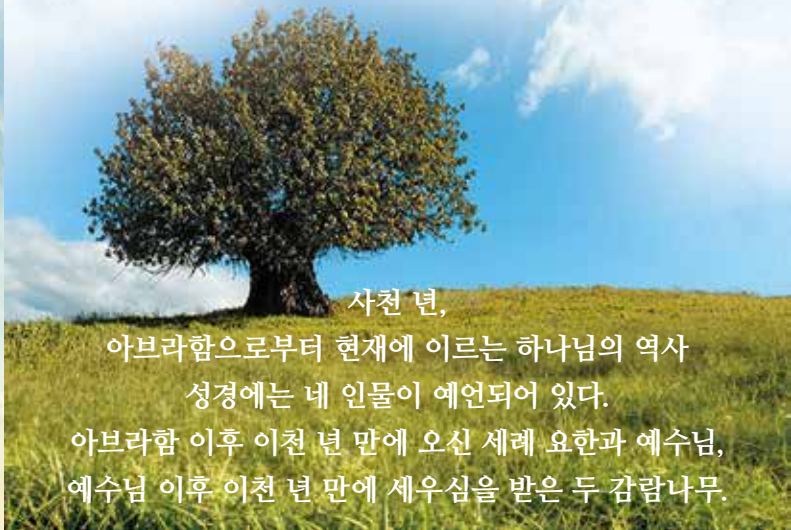


이영수 설교전집

에덴의 메아리

11



사천 년,
아브라함으로부터 현재에 이르는 하나님의 역사
성경에는 네 인물이 예언되어 있다.
아브라함 이후 이천 년 만에 오신 세례 요한과 예수님,
예수님 이후 이천 년 만에 세우심을 받은 두 감람나무.



(재)한국기독교에덴성회선교재단

에덴의 메아리

발행일 | 2012년 4월 30일 초판인쇄

지은이 | 이영수

펴낸이 | 한국기독교에덴성회

펴낸곳 | 에덴성회

주소 |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에덴벚꽃길 189

홈페이지 | ieden.kr

이메일 | info@ieden.kr

※ 문의 한국기독교에덴성회 총무부 031-582-7273

※ 잘못된 책은 구입하신 서점에서 바꾸어 드립니다.

ISBN 978-89-6449-367-0

ISBN 978-89-6449-223-9 (세트)

에덴의
메아리 11



저자 (1997년 당시)



에덴유스호스텔. 1999년에 신축한 에덴유스호스텔은 유스호스텔연맹으로부터 2002년, 2004년, 2005년에 최우수유스호스텔로 지정받았다. 축소판 에펠탑이 있는 건물은 유스호스텔 별관이다.



컨벤션센터. 유스호스텔 별관에 있는 컨벤션센터는 각종 단체에서 와서 모임을 갖고 있다. 2층에서 무대를 바라보고 있는 장면이다.

Prologue

“책머리에”

영의 세계는 시시비비를 따지는 우리의 지성(知性)만으로는 알기가 어렵다기보다는 알 수가 없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성의 지팡이에만 의지하여 세상을 살아가서는 절름발이 나그네의 신세를 면할 수 없다. 지성은 우리가 한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에 요긴한 잣대가 될 수 있으나, 그것은 결코 ‘필요하고도 충분한’ 구실은 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지성 더하기 ‘알파’가 요구된다. 이 ‘알파’는 곧 성령을 가리킨다. 우리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신령한 것을 알 수 없고, 신령한 것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세상에서 영화를 누리더라도 성공한 삶이라고 할 수 없다. 우리의 숙원인 영원한 생명길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으나, 신령한 신앙 체

힘에 의해, 살아 역사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 신앙 체험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우리의 사고(思考), 즉 지성에만 의존한다면 ‘하나님은 존재한다고 할 수도 없고,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없다.’는 칸트의 말(이율배반)을 상기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유무 여부도 단정할 수가 없다. 지성이 지닌 바 이와 같은 한계를 염두에 둔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2천 년 전에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고전하신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에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사람들의 생각(지성)으로는 목수 일을 하면서 근근이 살아가던 시골 청년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는 없었던 것이다.

감람나무 시대도 주님 당시와 별로 다르지 않다. 빛과 어둠의 대결 구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에 예언된 감람나무가 나타나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드러내고 놀라운 권능을 행하여도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고, 또 굳이 알려고 하지 않는다. 감람나무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역사에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는데도 말이다.

감람나무를 알려면 다른 보혜사 성령,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요14:26)의 감동이 뒤따라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긴자 감람나무의 역사를 일으키신 지도 어느덧 40여 년이 지났으나, ‘부르심을 입어’ 그를 알아보고 따르는 양떼보다 그를 외면하고 무시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못된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였다.(엡2:8) 신앙에서 인간은 이렇듯 수세에 놓여 있는 것이다. 감람나무는 말할 것도 없고, 그 가지도 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아직 원체에 접붙임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그 동기를 부여하고 그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먼저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소임이다. 이 설교집이 그 한몫을 담당할 것이다.

오늘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무너진 앞선 감람나무 역사를 다시 일으키는 나중 역사의 주인공이, 열악한 여건 속에서 ‘해산의 수고’를 다하고 있다. 그동안 세례 요한처럼 거친 광야에서 외쳐온 그의 목소리를 모아, 이제 열한 권째 설교집을 펴내게 되었고, 이어서 12집도 준비하고 있다.

이 설교집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신령한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해 있다. 그러니까 성경 66권의 심층 분석과 종합에 의해,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소상히 밝히고 있다. 그것은 주께서 보내기로 약속하신 다른 보혜사 성령의 조화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설교집은 설교집이라기보다는 21세기를 눈앞에 둔 오늘의 복음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시리즈로 계속해서 펴낸 ‘에덴의 메아리’가 읽는 사람들에게 줄줄이 큰 은혜로 이어져, 지면에서 좀처럼 눈을 땔 수 없고, 읽으면 읽을수록 감명이 새로워지는 것이 이를 잘 밑받침하고 있다. 아무쪼록 애독하여 은혜 받으시고 널리 전하시기를 바란다.

교정을 보아주신 김윤성 목사님과 정환택, 장승렬 장로님, 연정

희, 윤상학 선생님, 그리고 녹음테이프를 녹취해 준 최선아 양의
노고에 감사한다.

1997년 8월 최 현

Prologue

“설교전집을 발간하며”

1973년 11월 17일의 첫 예배 이후로, 이영수 총회장의 설교를 모은 설교집이 1, 2년에 한 권씩 엮여 나왔다. 그의 설교는 4천 년간 감추어진 하나님의 섭리를 밝히고,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인지 드러내고 있다.

성경은 비밀의 책이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비밀은 왜 필요한 것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대적 마귀 때문이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당신의 섭리를 알려 주셨다. 그 섭리란 궁극적으로 죄의 근원인 마귀를 멸망시키는 과정이다.(요일3:8) 따라서 당연히 마귀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본다.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마귀는 성경을 인용하여 질문을 던졌다.(눅44:10-11) 만약 마귀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

의 의도를 알게 된다면 하나님의 일이 원만히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하나님은 마귀가 알지 못하도록 성경에 당신의 섭리를 비밀스럽게 감추어 두셨다. 그런데 마귀도 알지 못하도록 하신 그 비밀을 과연 인간이 연구해서 알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 시대의 일화로 알 수 있다. 당시의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등 성경을 잘 안다고 자부하는 자들조차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알아볼 수 없는 내용을 굳이 기록하게 하신 것일까?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필요에 의해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것은 그 비밀을 이루어야 할 당사자가 나타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한 내용들이 당신을 위한 것이라고 하셨다.(요5:39, 눅24:44) 즉,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일을 하심으로써 당신이 성경에 기록된 그 주인공임을 밝히신 것이다. 그래서 자주 “때가 되었다.”, “때가 안 되었다.” 하시며 당신이 하셔야 할 일정이 있음을 말씀하신 것이다.(요2:4, 7:8, 30, 8:20, 13:1) 예수님은 탄생부터 죽음과 부활, 승천까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움직이다 가셨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것이다.(요19:30)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으니 모든 일이 다 끝난 것일까? 그렇지 않다. 예수님 이후에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 남아 있는 것이다. 예수님은 승천하신 후, 십자가를 지신 대가로 하나님의 우

편 보좌에 앉는 권세를 받으셨다.(행7:55, 시110:1)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던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을 받으셨다.(계5:1, 7) 그 책은 누구도 볼 수 없었던 비밀의 책으로,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었다.(계5:3)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책을 예수님에게 왜 주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 주시기 위함이다. 즉, 그 계획을 이루라는 사명을 주신 것이다. 예수님은 그 내용을 보시고 당신이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말씀을 수정해야 할 필요를 느끼셨다. 예수님은 육으로 계실 때, 사도들이 있던 당대에 재림하실 것으로 알고 계셨다.(마24:34) 그러나 하나님의 책에는 마지막 때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담겨 있었고, 예수님은 당신이 생각하셨던 것보다 훨씬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셨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 사도 요한을 불러 계시를 주신 것이다.(계1:1)

성경에는 예언된 인물이 네 분 있다. 세레 요한과 예수님, 그리고 두 감람나무가 그들이다. 앞의 두 분은 아브라함으로부터 2천 년 만에 그리고 나머지 두 존재는 4천 년 만에 등장하였다. 계시록은 감람나무를 위한 책이다. 그가 예수님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마무리 지어야 할 존재이기 때문이다. 감람나무를 예언한 인물이 사도 요한이라는 점에서 감람나무는 사도들보다 중요한 존재임을 알 수 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 감람나무에 대해 알지 못하셨다. 두 감람나무는 이미 주전 520년에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 예

언하신 존재로,(눅4:14) 예수님은 하나님의 책을 보시고 나서 그들이 당신의 보혈로 역사할 존재인 것을 알게 되셨으며, 그들을 당신의 증인으로 세우겠다고 약속하셨다.(계11:3-4) 그리고 이기는 자가 나오면 감람나무에게 해당하는 언약들을 그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다.(눅3, 4장, 계2:7, 11, 17, 26-28, 3:5, 12, 21)

하나님께서서는 이긴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유업으로 주시고 아들로 삼겠다고 약속하셨다.(계21:6-7) 그것은 이긴자가 받아서 역사할 생명수 샘물이 당신의 아들의 피로 이룬 것이기 때문이다. 즉 이긴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대행자이므로 아들로 대우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은 생전에 당신을 믿는 자의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흐른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이긴자가 유업으로 받은 생명수 샘물인 것이다.(요7:38)

생명수 샘물이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루어진, 죄를 씻는 생수다.(눅13:1, 12:10) 그렇다면 이긴자는 이 생수로 무엇을 하는가? 사람들의 죄를 씻는 일을 한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로 가지 못한다.(롬3:23) 구약시대 하나님의 선지자들조차도 죄를 해결하지 못했기에 음부에 가 있어야 했다. 생명수 샘물이 마련되면서, 주께서 그들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된 것이다.(계5:9, 마27:52-53) 그들은 하늘에 있는 제단 아래 있으며, 예수님을 만나서 언제 자신들이 억울하게 순교당한 원수를 갚게 되느냐고 여쭙었다.(계6:9-10)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시길, “너희와 같은 자들의 정해진 수가 차기를 기다려라.”라고 하셨다.(계6:11)

그렇다면 그 수란 몇인가? 이 수는 바로 14만 4천이다.(계14:1) 14만 4천에는 구약시대 인물들과 신약시대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어떤 이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또 어떤 이에게는 어린 양의 이름이 있는 것이다. 각자 배출된 시대에 따라 그 시대를 주관하신 분의 이름을 받은 것이다. 이들이 바로 하늘 군병이다.(계19:14) 이들은 마귀를 멸망시키는 전쟁에 참여하게 된다. 그 수는 아직 차지 않았다. 그 수가 찼다면 이미 세상은 종말을 맞이했을 것이다. 그럼 이 수가 언제 차는가? 바로 감람나무가 나타날 때이다. 감람나무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 수를 마무리 짓는 것이다.

이긴자 감람나무는 생명수 샘물을 유업으로 받아 그 수를 채우는 사명을 받았다. 그는 하늘 군병을 배출시켜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친다.(계7:2-3) 그리고 낮으로 이들을 추수하여 하늘 공간에 들인다.(계14:16)

마귀를 멸망시키고 난 후에는 하늘 군병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게 된다.(계20:4) 이들은 마귀가 다스리던 음부에 갇힌 모든 자들을 끌어내어 심판을 한다.(계20:13) 심판의 결과, 천국에 들어갈 자들과 지옥으로 보내어질 자들이 구분된다.(마25:32) 그리고 하늘 군병들은 세세토록 천국을 다스리는 왕이 된다.(계21:3-5) 즉, 천국은 14만 4천 개의 국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영수 총회장은 세상적으로는 배운 것이 없다. 그러나 그는 하

나님과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다. 성경에 가려진 부분들에 대해서도 가르침을 받았다. 영화를 본 사람이 그 내용을 쉽게 설명할 수 있듯이,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상 중에 가르침을 주시면서, 때가 되기 전에는 입을 봉하라고 하셨다. 그것은 전해 봤자 듣는 사람들이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밝힐 때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마귀를 멸하기 위한 군대를 완성하시면 이 세상은 더 이상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어진다.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세상이기 때문이다. 조만간에 하나님께서는 재앙으로 이 세상을 멸하실 것이다. 따라서 지금 보는 하늘과 땅은 사라지게 된다.(계 21:1) 모든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지 26세기 만에, 그리고 예수님이 예언하신 지 20세기 만에 감람나무가 등장하였기에, 기독교인들이 납득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을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에 관한 예언들이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몇백 년, 또는 천 몇백 년 전에 있었기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했던 것과 같다. 그러나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섭리라면 누구라도 그 결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노아의 가족이 방주를 지었을 때, 그 나머지 사람들 중 누가 그것이 자신들의 멸망을 가져올 줄 알았겠는가? 노아가 사명을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최악에 빠진 인류를 멸하셨던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후 인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영수 총회장은 이미 하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아무쪼록 흘려듣지 말고, 베뢰아 사람들처럼, **(행17:11)** 이영수 총회장의 말과 성경을 비교 검토하여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구원의 방주로 나아오길 기대한다.

설교전집을 준비하면서 이미 발간된 설교집 내용을 재검토하여 개정된 국문법을 적용하고,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첨삭을 하였다. 또 첫 설교집이 나온 지 40년 가까이 되므로, 그동안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함에 따라 말씀도 발전된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은 일관성 있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 과정에서 신창기 성회장님의 도움이 컸다. 혹시라도 미흡한 점이나 잘못된 점이 있다면 모든 책임은 편저자에게 있음을 밝히며, 독자의 질책을 바란다.

2011년 교육학박사 윤상학

차례



Prologue 책머리에 ... 06
설교전집을 발간하며 ... 10

Part 01.

신앙의 혁신을 위하여

- 01 신앙의 열매 22
- 02 장성한 신앙인이 되라 31
- 03 다른 보혜사 성령 39
- 04 하늘에서는 왜 군대를 필요로 하는가? 49
- 05 알고 모르는 차이 56
- 06 하나님께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65
- 07 하나님의 비밀과 '흰 돌' 76

Part 02.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 08 이것이 인류의 역사이다 84
- 09 지구의 수명에 대하여 94
- 10 하나님의 사정과 마귀의 사정 99
- 11 삼손이 남긴 교훈 106
- 12 십자가의 군병이 되는 조건 115
- 13 알파와 오메가의 역사 124
- 14 사단의 깊은 내막을 알라 136

Part 03.

하나님의 뜻을 따라

- 15 어린 양의 생명책에 녹명되려면 150
- 16 진리로 싸우라 162
- 17 항상 깨어 있으라! 173
- 18 하나님의 요구 조건 183
- 19 사후의 갈림길에 대하여 194
- 20 인간이 거룩해지려면 211
- 21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라 218

Part 04.

진리는 살아 있다

- 22 알곡은 이렇게 익어 간다 232
- 23 오늘의 주의 종 244
- 24 체계를 반석 위에 세우라 255
- 25 신과 신의 대결에 대하여 265
- 26 베드로와 천국 열쇠 271
- 27 새로운 국면을 맞은 하나님의 역사 281
- 28 모세 율법의 한계 291

Part 01.

신앙의 혁신을 위하여



1. 신앙의 열매 · 2. 장성한 신앙인이 되라 · 3. 다른 보혜사 성령 · 4. 하늘
에서는 왜 군대를 필요로 하는가? · 5. 알고 모르는 차이 · 6. 하나님께 인
간은 어떤 존재인가? · 7. 하나님의 비밀과 '흰 돌'

Chapter 01.

신앙의 열매



인류가 하나님과 교류할 정도로 인지가 발달하고, 문화가 어느 정도 형성된 것이 6천 년 전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다소나마 인간답게 살게 된 시점을 시초로 하여 기록했습니다. 제가 아현동 제단에서 예배를 인도할 때에는 따르는 양떼들의 심령이 어렸고, 우리 역사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말씀을 마음 놓고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창조론을 설명하면서, 성경에는 인류의 역사가 아담을 시초로 하여 기록되었다고 말했지만, 논란이 일어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제대로 얘기를 못하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과학적인 밑받침이 없으면 주의 종이 하는 말을 믿기는 커녕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동설’을 주장한 갈릴레오는, 수천 년 전이 아니고, 불과 400여 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가 지구는 둥글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갈릴레오를 미친놈이라고 욕했습니다. 대개 선견지명(先見之明)이 있는 가르침은 남들에게 가소로운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불과 몇 백 년 전에도 그러했는데, 6천 년 전이라고 하면 대단히 먼 옛날입니다. 그런 시대의 인류의 조상을 아담, 하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류가 굴속에서 원시적인 생활을 한 것은 과학적으로 연구해 보면 6천 년이 아닌, 훨씬 더 이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는 6천 년이 아닙니다.

과학자들은 원시생활에서 오늘의 문명에 이르렀다고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수백만 광년이라는 엄청난 거리에 있는 별도 오늘날 발견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몇 십만 년 전, 몇 백만 년 전의 일도 알아내고 있습니다. 진화론에서는 인류가 침팬지 같은 털복숭이에서 차츰 발달하여 두 발로 걸어 다니게 되었다고 합니다. 범죄하고 저주받아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인류가 야영생활을 하려면 반 짐승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래 못 살고 곧 죽습니다.

성서에 나타나는 므두셀라는 969세를 살았으며, [창5:27](#) 많은 사람들이 몇 백 년씩 살았던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있고, 자연과 생리 조건이 맞았을 때의 얘기입니다. 인류가 최초로 살아갈 때에는 자연에 적응하여 짐승을 잡아먹고 열매를 따먹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짐승과 같은 생활을 해야 했기 때문에 야생적인 털복숭이 인간이었습니다. 인류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창조론은 전에도 말한 바와 같이, 우주가 아니라 태양계를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떠돌이별들이 있습니다. 태양의 주위를 맴도는 떠돌이별 중에 지구도 속해 있습니다.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등은 태양의 영향력 밑에 있는 것입니다. 우주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은하계가 있고, 그 은하계 안에 수많은 태양계가 있으며, 우리 태양계 안에 지구가 속해 있는 것입니다. 지구에서 사람이 달이라는 위성에 간 것이 몇 해 전의 일입니다. 지구에서 가장 가깝다는 화성도 1초에 30리를 가는 빠른 속도로 몇 달이 지나야 도착합니다.

창세기의 천지 창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태양계에 속한 지구가 중심이 되어 있는데, 그때만 해도 지구가 둥글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태양계 하나만으로도 인간에게 우주가 얼마나 방대한가를 느끼게 할 만한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학이 발달하여 지금은 태양계란 은하계 안의 지극히 작은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어마어마한 은하계를 하나님이 인류에게 밝힌들, 당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위성이 사진을 찍어 보내 주기 때문에 태양계 안에 존재하는 별들을 이처럼 한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거리에 있는 별들도 사진을 통해 볼 수 있는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지금부터 약 4천 년 전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

상으로 세우셨습니다. 태양계 안에서도 지구라는 조그만 땅덩이 위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섭리가 언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광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 성경입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는 하나님과 교류하는 사람은 아브라함 혼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서 이삭, 이삭에서 야곱과 그의 후손에 이르는 수백 년 동안의 움직임을 하나님께서는 중요시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많은 인류 중에서 그 몇몇 사람만 상대하신 걸까요?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지극히 소규모 같지만,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움직이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생애가 이러이러하게 펼쳐지고, 그동안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네게 연결된 자녀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나타나, “나는 너의 부친 아브라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너와 함께하여 축복할 것이다.”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그 다음 야곱 시대에 와서 역시, “너의 부친, 너의 조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축복하겠다.”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건 소꿉장난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수백여 년 동안에 지상에는 아브라함의 후손 이외에 많은 사람들이 살다가 죽어 갔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왜?

하나님이 모든 인류의 창조주이실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상대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2천 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셔서 33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에서 사시다가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떠나신 것을 당시에 한국에 사는 우리 조상들이 알았습니까? 까맣게 몰랐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만 그렇습니까?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새까맣게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결코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작업은 남이 볼 때 언제나 우스꽝스러운데도, 거기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경륜이 깃들어 있습니다. 노아의 경우를 보십시오. 방주를 짓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무려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은 노아가 배를 완성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질적인 중요성을 모르면 양적인 면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중요성과 그 효력을 몰랐기 때문에, 무수한 사람들이 버림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의 종 사이에 맺어진 언약을 몰라서 그 언약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방인으로 낙인이 찍히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성경은 태양계를 우주로 기록했고, 인류의 역사를 6천 년으로 제한해서 설명했지만, 그것은 편의상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6천 년 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때가 아니라 인

류와 교류하기 시작한 때이고, 아담, 하와라는 인물은 태고의 인물이지만, 하나님께 최초로 제사를 드린 가인, 아벨의 부모를 인류의 시초로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날 지구상에는 50억이라는 인구가 각양각색의 환경과 문명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극히 적은 수의 여러분을 상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련을 겪으면서 이어져가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당시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경륜이 있었고, 그 후 인류가 퍼져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지금 인류는 과학이 크게 발달한 문명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와 새로운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때 그 말씀의 내용을 깨달은 사람은 그것이 귀하게 생각되지만, 깨달지 못한 사람은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됩니다. 옛날 노아가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을 때, 노아나 그 가족들에게는 대단히 귀중한 사명으로 생각되었지만 제3자에게는 우스꽝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새로운 신앙의 운동도 영적으로 깨달은 사람에게만 가슴에 와 닿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우습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이 지시하신 테두리 안에서 살아왔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활과는 판이합니다. 남이 보기에는 그들과 같은 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았습

니다. 우리 역사가 그렇습니다. 남들이 볼 때에는 그들과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활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생활과는 영적으로 판이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에 따라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시대에 오랫동안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후에 하나님의 새로운 경륜이 펼쳐졌습니다. 지금까지 받아 오던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경륜이 펼쳐지는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시련을 겪게 됩니다. 왜? 신앙에 큰 변화가 오기 때문입니다. 할례를 받아야만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시대가 지나가고, 누구나 성령을 받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을 수 있는, 육의 할례가 영의 할례로 바뀌게 되는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혁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혁명을 완수한 주인공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파란만장한 일생을 보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이어 내려오던 할례라는 관례를 폐지하고 새로운 법도를 심어야 하는 그의 고초는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하루에 수천 명씩 주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성과를 올렸지만, 바울은 겨우 한두 명 인도하기에도 바쁘고, 특히 감옥에 끌려가 얻어터졌습니다. 바울은 나중에야 “내가 하는 일이 사도들보다 조

금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설파했습니다.(고후11:5)

신앙 운동은 양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질에 있다는 것을 세상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종 모세가 한 일이 무어나고 반문했습니다.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수많은 인명을 죽이지 않았느냐? 그런 그에게도 영광이 있었거늘, 하물며 죽어갈 생명을 영생에 이르게 하는 나의 직분이 어찌 영광스럽지 않겠느냐?”(고후3:7-8)고, 자기를 변호한 것이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양적인 면에서 모세의 위력은 엄청났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자기의 사명이 훨씬 더 영광스럽다는 것을 내비친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분들은 앞선 감람나무 역사는 크게 부흥되었는데, 우리 역사는 왜 그렇지 못하느냐고 말하지만, 우리 역사가 질적으로 얼마나 차원 높게 이끌어 가는가를 들여다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선 양적으로 수십만이 모였다 하면 대단하게 보는 것이 오늘날의 신앙 풍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입김이 작용하는 역사에 몸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깨닫기까지가 어렵습니다. 깨닫는 사람은 이 역사를 소중하게 여기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참 진리의 말씀이 귀에 달걀게 들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일반 종교인들과는 달리,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계2:7)는 그 말씀을 토대로 하여 요한 계시록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으므로 귀가 열리지 않으면 들어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누구나 올바르게 받아들이는 것

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소귀에 경 읽기’가 되기도 합니다. 깨달음에 따라서 영적인 차원이 달라지기 때문에, 신앙은 천 층, 만 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질적인 면에서 신앙이 체계화되고 토착화되어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적용해 나가는 신앙인, 즉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계14:4)가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노아가 배를 만들기를 바라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잘되기를 바라시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바라셨던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 역사에서 한 명이라도 하나님께 필요한 성도가 더 배출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Chapter 02.

장성한 신앙인이 되라



1) 하나님의 처지

나는 요즈음 신의 실체에 대해 한 단면이나마 간간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감히 논한다는 것부터가 일반 교역자들은 상상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는 신앙인도 선불리 하나님이 어떻다, 주님이 어떻다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합니다. 계시록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계 2:17)는 단서가 붙어 있듯이, 귀에 인침을 받아 영적으로 깊은 차원에 이르지 않으면 분별도 안 되고, 따라서 믿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이 역사를 해 나가면서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그 사정을 하나님께 고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안타까운 처지를 알려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악령의 역사가 인간에게 이처럼 큰 영향을 미치는 줄 미처 몰랐습니다. 그래서 기도만 하면 일이 순조롭

게 풀려갈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제야 나는 하나님이 앞으로 될 일을 보여주시면서 “너만 알고 있으라.”고 말씀하신 까닭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20여 년 동안 여러분에게 전한 새 복음은 이미 열 권의 설교집에 나와 있으나, 그 내용이 성경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일반교회에서 흠을 잡지 못합니다. 성경과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설교집은 하나님의 역사를 입증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까지 설교집이 11집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그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선 역사는 ‘만나의 시대’이고 나중 역사는 ‘흰 돌의 시대’입니다.(계2:17) 한 돌에 일곱 눈이 박혀 하루에 죄악을 제해 버리는 역사(속3:9)가 오늘날 이 땅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님이 감람나무 역사에 함께하셔야 하는데, 앞선 역사가 주님을 배척하여 주께서 거할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마8:20 참조) 감람나무 역사가 시작되면서 주님은 기성교회를 떠나셨습니다. 하나님과 주님이 온 세상의 주를 모시고서 있는 이긴자 감람나무를 통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속4:14, 계:2:26) 앞선 감람나무 역사가 한창 은혜를 폭포수같이 부어줄 때, 그 주인공이 기성교회의 십자가 위에 마귀가 웅크리고 앉아 있다는 설교를 하여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가 실제로 은혜를 받았다는 기성교인을 안찰하면 이마에 흑이 빠져나오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기성교회를 떠나신 주님을 앞선 감람나무 역사에서 배척하니, 주님은 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중 역사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이 시대가 너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과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계2:27, 3:21 참조) 그게 바로 감람나무 역사 때문입니다. 주께서 땅에 계시던 당시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하늘나라에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을 때, 모르는 사람의 눈에는 그 이상의 이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예수의 추종자들을 잡아 감옥에 넣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줄 알았다가, 자기 잘못을 평생 뉘우쳤습니다. ‘나는 죄인의 괴수’(딤후1:15)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감람나무 역사가 일어나면서 획기적으로 달라진 것입니다. 일반교회가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도 주님의 설명을 듣고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거 큰일 났구나!’ 하고 걱정에 싸이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여러분이 하루 빨리 체계가 확고히 서서, 주의 종이 전하는 말을 이해하고 따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앞선 감람나무 역사가 얼마나 위력을 떨쳤습니까? 그 권능이 대단했습니다. 이슬이 내리고, 향취가 진동하고, 사단이 쫓겨나고, 위세가 당당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변해서 주님께 오히려 불영광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나중 이긴자를 만난 것이 얼마나 복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아야 주님을 기쁘게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걸 결코 나를 내세우려는 말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것쯤은 여러분이 신앙 체험을 통해 아실 겁니다.

연세 많은 분들은 돌아가실 때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나 죽는 것이 시작입니다. 나는 그때를 대비하여 여러분에게 그 나라의 자리를 확보해 드려야 합니다. 각자가 사명과 책임 의식을 갖고 하루하루 싸워 나가기를 바랍니다.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습니다.(계19:8) 주의 섭리 가운데 동참했으면 주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즉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주님이 내 행위를 어떻게 여기실까’ 하고 먼저 생각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면 100%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장성한 신앙인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2) 하나님께 도움을 드리자

사도 시대에 잡히기만 하면 모진 고초를 당하고 목숨을 버려야 하는 성도들의 소망은 주의 나라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양떼들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의 소망이 이생뿐이라면 우리보다 불쌍한 사람이 없을 것”(고전15:19)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인간에게 눈에 보이는 현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소망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의 교회에는 같은 심정에서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육적인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일평생 영의 세계를 그리워하는 신앙인이 많습니다. 그들은 하늘나라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

니다. 그러나 막상 그 하늘나라에 대해 질문하면 딱 부러지게 답변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배우지 못하고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기한 체험만 하면 그것이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기뻐하고 열성을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영의 세계를 소상하게 배워서, 새로운 신앙관이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체계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요한 계시록을 단계적으로 배워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되려니 하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어린애와 같은 신앙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주님을 도와드리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산5:23) 장성한 자식은 부모의 어려움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시작부터 남들과 목표가 다르고, 믿는 방법이 다릅니다. 또 달라야 합니다.

옛날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편히 사는 그에게 억지로 고된 방랑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릇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저는 주님의 안타까운 사정을 듣고 일하러 나온 종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를 상대로 싸워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에게 마귀의 정체를 소상히 가르쳐 주시고, 베일에 싸인 음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마귀에 관해 나만큼 자상하게 가르친 교역자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길 때에는 마귀에 대해 깊은 내막을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적과 싸우려면 적을 잘 알아야 합니다. 모르고 어

떻게 마귀와 싸우겠습니까? 주님이 저에게 악령의 세계를 자세히 가르쳐 주시는 것은 당신을 대신하여 마귀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아담, 하와를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창1:22) 즉, 14만 4천의 수를 채우라 이겁니다. 아담, 하와가 마귀의 꾀에 빠지지 않아 범죄하지 않고 계속 생육했다라면, 인류 역사는 지금과는 전혀 다르게 전개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가나안 땅에 있는 바알 신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전에도 언급한 적이 있지만,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곳(용두동)에는 선농단(先農壇), 즉 왕이 선농제를 지내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곳에 당신의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시작부터 주의 종은 마귀를 상대로 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해 왔습니다.

1945년에 미국의 헬스 대령이 원자폭탄 두 방으로 일본을 항복 시켰습니다. 당시에 이 폭탄의 비밀을 엄수하여, 태평양 사령관도 몰랐습니다. 악령과의 전쟁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전략을 극비에 부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 마귀에게 치명적인 타격이 된다는 것을 마귀는 몰랐습니다. 우리 역사에도 마귀가 알아서는 안 되는 전략이 있습니다. “너만 알고 있으라.”는 말씀이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이 역사에 여러분을 불러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우선 영적인 문제를 자

세히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에서는 내세를 중요시하여 이승을 하나의 징검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님은 “육은 무익하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요6:63, 11:25-26) 그리고 주님이 실제로 돌아가셔서 부활하신 것을 알게 된 바울은 내세에 대한 확증을 들고 나와 강력하게 증거했습니다.(딤후4:7-8) 오늘날 우리 역사에 동참한 여러분은 죽음을 보지 않고도 사후의 세계를 어느 정도 확인하고 신앙을 지켜 나가고 있습니다. 언제 죽음이라는 두 글자가 찾아올지 모르므로, 마음의 준비를 갖추고 죽음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자격자가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사후의 세계를 좀 더 정확하게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죽기 전에 그 세계에 가서 본 것처럼 알게 될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에스겔이 뼈가 모이고 살이 붙는 광경을(겔37:4-5) 이상 중에 보았다 하여, 죽으면 영이 떠났다가 다시 육으로 돌아온다고 막연히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와서 사후 세계에 대해 어느 정도 윤곽은 잡혔지만, 상세한 설명은 피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죽음에 대해 자신 있는 답변을 못하는 겁니다. 이 죽음의 의미를 밝히는 것이 이긴자가 하는 일 중의 하나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역사가 이만큼 차원이 높고 독특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서 쉽게 깨닫지 못합니다. 성령의 귀가 열리지 않으면 20년을 따르다가도 떨어집니다. 제가 하는 말은 다른 보혜사 성령의 가르침입니다.(요14:26) 저는 부족할지라도 그 역사는 착착 이루어

져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의 세계를 나에게 정확하게 보여 주셨습니다. 그 세계는 나한테도 해당되고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니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도 내 생애가 정해져 있으므로, 일을 마치면 주 앞에 가야 합니다. 그래서 초조한 겁니다. 모르면 초조할 게 없습니다.

일반 목회자와는 달리, 나는 내가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나는 영의 세계에서 여러분을 대우받게 해야겠다는 일념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현실에 매여 영의 세계의 귀중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려면 영의 세계를 내다보면서 신앙을 길러야 합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다윗은 막연하나마 자기가 죽으면 음부로 끌려간다는 것을 알고, 자기 후손으로 메시아가 태어나면 자기를 건져 달라고 유언했습니다.(시16:10) 영적인 문제는 하루아침에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나부터가 어찌다가 주의 종이 되어 영의 문제를 알았으니 다행입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점점 영적으로 깊은 단계에 접어들게 될 것입니다. 또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Chapter 03.

다른 보혜사 성령



신앙은 마음을 비우는 데서 시작됩니다.(마5:3)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고 느낄 때는 주님을 의지하는 힘이 약해집니다. 자기의 연합함을 느낄 때 온전하신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은 높은 보좌 위에서 천하고 낮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육적으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계셨지만, 유명을 달리하시게 되면 헤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영원토록 함께하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요14:16)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들이 죽든 살든 내가 함께할 수 있다.” 이겁니다. 세세토록 함께할 수 있는 비결은 곧 다른 보혜사 성령이 임하는 데 있습니다. 그 성령의 은총은 바로 주님의 피와 살, 곧 생명체입니다. 성령이 함께한다는 것은 주께서

함께하시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이 주의 종을 만나서 그 그늘에서 신앙을 지키다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여러분은 여호와께서 베풀어 주시는 안식처인 하나님의 세계로 가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는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천국에 간다고 흔히 말하지만, 그 천국에 대한 정의를 내리라면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는 보다 더 정확한 신앙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천국을 알고, 또 거기에 소망을 둘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면, 우선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주의 은혜 가운데 사시다가 이 세상의 장막에서 벗어나는 순간, 즉 육의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에 영의 세계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생명, 한 생명을 거두어들이는 섭리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가고 있는 신앙의 길입니다.

우리에게는 복과 화가 있고, 또한 죽고 사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존재를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과 주님으로 봅니다. 그리하여 신도들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하나님과 주님이시여”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 대해 의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 인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면,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지상의 엄청난 참사들은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향력에 대해, 즉 인간의 앞날을 좌

지우지하는 차원이 어떤 것인가를 좀 더 깊이 알아봐야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신의 위치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의 언동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검을 주러 왔노라.”(마10:34) 검은 싸울 때 쓰는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때문에 싸움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검을 주신다는 것은 싸움을 붙인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싸우고, 부모와 자식이 싸우고, 형과 아우가 싸우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요1:5) 빛과 어둠의 관계는 극과 극입니다. 물과 기름입니다. 그러므로 빛과 어둠은 섞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전기의 플러스, 마이너스의 경우와 같습니다. 전기의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만나면 반드시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서로 닿기만 하면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리하여 불꽃이 튀니다.

세상은 어둠이 주관합니다.(눅4:6, 엡6:12) 이 어둠이 주관하는 세계에 빛이 와서 주관하려고 하면, 어두움을 몰아내고 빛이 들어 가야 합니다. 어둠과 빛은 극과 극이므로, 닿게 되면 충돌이 일어납니다. 주님의 “검을 주러 왔노라.”는 말씀은 이것을 가리킵니다. 어둠만 있으면 조용한데, 주님은 어둠에 빛을 심으러 오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자신을 가리켜 ‘양의 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요10:8) “나

는 너희들이 하나님께 갈 수 있게끔 하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둠이 주관하는 생명체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생명체로 바꿔 놓겠다, 이겁니다. 이때 빛이 어둠 속에서 A라는 사람을 빼내어 다 스룹니다. 즉 그 사람을 빛이 주관하는 것입니다. 어둠이 주관할 때와 빛이 주관할 때, 사람은 같지만 그 사람의 생각과 말과 소망이 달라집니다. 주관자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빛과 어둠의 관계를 잘 알아야 합니다. 왜정 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지배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본 사람이 한국 사람을 그냥 놓아두지 않습니다. 일본 사람처럼 만듭니다. 그래서 일본말을 쓰도록 강요하고 창씨개명(創氏改名)도 시킵니다. 지배권을 일본이 쥐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일본 사람이 되어서 일본 사람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고, 우리는 분명히 한국 사람인데도 일본 사람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점령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빛이 됐든, 어둠이 됐든, 신의 지배를 받게 마련이라고 저는 20여 년 동안 한결같이 주장해 왔습니다. 빛과 어둠은 신을 상징합니다. 그리하여 인간은 어떤 신이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그 신의 영향력 아래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어둠의 지배를 받는 인간을 빛 가운데로 빼앗으려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하지 않을 때에는 아무에게도, “어둠이 너희를 이렇게 지배를 한다. 그래서 이렇게 도로 빼앗아야 한다.” 하고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둠이 지배하는 인간을 빼앗아서

빛이 지배하게 하려고 할 때에는, 지상에서 그 일을 맡은 종에게, “어둠이 인간들을 어떻게 빼앗아서 지배하고 있으며, 어떻게 도로 빼앗아 내야 한다.”고 설명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둠의 지배권과 빛의 지배권이 밝혀지게 됩니다.

아담, 하와는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슬하를 벗어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담, 하와는 하나님과 멀어지는데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반드시 빛이 아니면 어둠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배받고 싶어 받는 게 아니고, 신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 아이가 알아서 “나 누구 편이 될래.” 한 것이 아니고, 자동적으로 빛이면 빛, 어둠이면 어둠의 지배를 받게 마련입니다. 어둠의 지배를 받으면 어둠 속에서 자라고, 빛의 지배를 받으면 빛 속에서 자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마1:23) 하고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입니다. 이때 태어난 아들은 예정한 분의 슬하에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분이 정한 길을 가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본인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그 배후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십니다. 즉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하십니다.

마귀가 하나님이 아들에게 예정하신 내막을 알았다고 칩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몇 살 때 어떻게 하나님의 도를 전하고, 어떻게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어떻게 다시 살아나고, 어떻게 하늘에 오르

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하나님은 크게 불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예정을 은폐하셨기 때문에 마귀가 들여다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 얘기가 그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이 마귀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주는 줄 알았던들, 마귀가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으리라고 말입니다.(고전2:8)

“보라. 여호와와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말4:5-6)고 했습니다. 여기서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가리키며(마17:12) 그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감동을 주어 조상의 경건한 마음을 갖게 하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분신(分身)으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도록 예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제사장의 집안에 태어나 양식이 넉넉한데도 광야에 나가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체질을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때 세례 요한의 움직임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독사의 자식들’(마12:34)로 어둠이 다스립니다.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여러분은 이 걸 아셔야 합니다.

앞선 역사의 주인공을 통하여 생수의 성령이 내렸습니다. 그리하여 9만 명이나 그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주관이 생명체로 바뀐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계속 살지 않고, 어둠이 주관하는 존재로 바뀌었을 때에는 하나님이 주관하실 수 없습니다. 다른 교회에 다닐 때의 생명체와 감람나무의 그늘 아래 들어왔을 때의 생명체는 다릅니다. 그 생명체가 감람나무의 그늘을 벗어났을 때에는 길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길은 인간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인간을 주관하는 신에 의해 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역사에 들어오셔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 은혜를 받은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관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이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는 것입니다.

무당에게 악신이 들어가면 그의 생사는 악신이 주관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감람나무의 그늘에 거하다가 다른 신이 여러분에게 들어가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면, 그 신이 여러분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앞날은 신에 의해 언제나 바뀔 수 있습니다.

감람나무의 역사는 기독교를 대표합니다. 감람나무가 어느 나라에서 나타났든, 그건 상관 없습니다. 감람나무 자체가 기독교의 대표자입니다. 감람나무는 ‘온 세상의 주를 모신 자’(눅4:14)이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자가 어둠의 세력에게 항복을 하게 되면, 기독

교 자체가 손을 드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기독교 안에서 제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든, 그 제사는 항복을 받아 낸 신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백성이 왜정 시대에 세금을 냅니다. 그때 그 세금을 내는 것이나 지금 내는 것이나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세금을 거두는 주체가 다릅니다. 지금 세금을 내면 우리나라에 이득이 돌아가지만, 왜정 때에 낸 세금으로 이득을 보는 것은 일본입니다.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제사를 받는 주체에 따라서 이득을 받는 존재가 다른 겁니다. 이때 제사의 내막을 모르는 사람들은 제사만 지내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줄 알지만, 주관자가 바뀌었을 때에는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만 못한 결과가 오게 됩니다. 따라서 그런 제사를 지내는 자의 수는 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합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아담, 하와를 간단히 빼앗은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어렵게 빼앗았는데, 호락호락 내놓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속했던 자가 은혜를 쏟아 버리고 어둠에 속하게 되면 7배나 악해진다고.(마12:45) 마귀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작살을 내 버립니다. 그러므로 한 번 그렇게 떨어져서 어둠의 지배를 받은 생명체가 다시 빛 가운데 오려면 전보

다 7배나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둠 속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이 영의 싸움입니다. 인간이 ‘내가 이래선 안 되지’ 하고 다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와서 주의 종을 통해 축복을 받아 그 사람에게 은총이 함께하게 되면 빛의 지배권이 강해집니다. 이것을 어둠의 지배권자는 가만히 구경만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지배권에서 벗어나지 않게 갖가지로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어둠 속에 있다가 빛 가운데로 가면, 어둠 속에 머물러 있는 아내와 의가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부딪치는 겁니다. 주님이 “검을 주러 왔다.”(마10:34)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돈독해질수록 여러분을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게 되고, 여러분의 신앙이 희미해질수록 여러분을 어둠이 더 주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보는 간단한 방법은 점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점을 보러 갔는데 “당신은 점괘가 나오지 않는군요.” 하고 점쟁이가 말했다면, 이 사람은 빛의 지배가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과 신이 인간을 사이에 두고 서로 지배권을 차지하기 위해 다투는 것입니다. 이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주님이 어둠 속에 있던 사람을 빛으로 지배하여,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하늘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입니다.

다. 그것이 다른 보혜사 성령의 작업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지 않습니다. 은혜 안에 들어온 자만 주관하십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롬9:15)는 하나님의 말은 이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누구나 주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줄 알았다가는 오산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보혜사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여러분과 동행하다가 여러분이 세상을 이별하는 날, 주께서 여러분을 영접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음부를 벗어나서 가는 길입니다. 그렇게 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축복(계20:6) 속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Chapter 04.

하늘에서는 왜 군대를 필요로 하는가?



기독교에서는 다른 종교의 신을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다른 신을 경배하기 때문입니다. 이 우상의 표를 받지 않은 경건한 자들이 입을 옷을 영적으로 세마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세마포를 입은 사람을 어린 양의 아내, 곧 하늘의 군대라고 합니다. **(계19:7-8)**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는다고 했습니다. **(계19:14)**

군대는 하늘이나 지상을 막론하고 전쟁을 할 때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군대를 기른다는 것은 하늘의 전쟁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세마포를 입으라는 말은 하늘의 군대가 되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한 생명이라도 세마포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을 길러 내라고 한다면, 한 사람이라도 더 하늘의 군대로 기르라는 얘기가 됩니다.

군대란,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전쟁에 필요한 사람들이지, 평상시에 필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적인 깊은 내용을 모르니까 2천 년 동안 계시록을 읽은 모든 기독교 신자들이 ‘하늘에 군대가 있는가 보다’ 하고만 알았지, 그 하늘의 군대가 얼마나 필요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왜 필요한가를 논하지도 못했고, 또 이 시간에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다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와 하늘 군대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고, 또 그것을 기르라는 말씀 가운데 영적 신앙 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군대들이 수많은 어둠의 세력, 즉 마귀들과 최후의 접전을 벌이는 전쟁을 누차 말한 대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에 대비하는 작업을 해 오셨습니다. 이것은 하루 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수백 년 계획을 세워 아브라함에게 통고하시고, 후손들이 수백 년 후에 다닐 곳을 “네가 발로 다녀 보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 유랑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는 기쁘나 슬프나, 괴로우나 즐거우나, 하나님의 지시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지시한 대로 그가 끝까지 준행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시험하셨습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하나님은 인간이 감당하기가 제일 어려운 일을 하나, 못 하나 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시련과 연단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충실히 섬기는가를 살피십니다.

하늘의 군대가 필요하다는 것은 계시록에서 최초로 밝혀졌습니다. **(계19:14)**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

래서 기독교 신자들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믿는 자가 모두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기쁘고 반가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듣기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주인공이 되시는 주님은 사도 요한을 불러서 당신의 안타까운 사정을 호소합니다. 목 베임을 받은 자들의 영들과 그 손과 이마에 우상의 표를 받지 않을 자들, 소위 말해서 하늘의 군대 14만 4천이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숫자까지 공식으로 표명했습니다.(계7:4, 14:1)

구약 시대에 지상에서 엄청난 괴로움을 겪으면서 살아온 선지자들이나 일반 성도들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 그러니까 순교를 당하여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그 영들이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주님 앞에서 “우리들의 원수를 갚게 해 달라.”고 호소할 때, 주께서 “너희들과 같이 죽음을 당하는 자들의 수가 찰 때까지 기다리라.”(계 6:11)고 말씀하셨다면, 정해진 수가 없습니까? 정해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수가 뭐냐? 14만 4천의 하늘 군대입니다. 그럼 주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군대를 필요로 합니까? 전쟁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승리하신 주님이 전쟁을 하려고 군대를 소집한다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으로 승부가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삼척동자라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께서 구세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믿는 자가 다 구원받는다 주장과 얼마나 거리가 있는 말입니까?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성서에 기록되어 2천 년 동안 전해 내려왔지만, 지금까지 그 수가 왜 필요한가를 알지 못했고, 또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앞선 감람나무 역사를 이어받아 다시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점을 내게 강조하셨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세마포를 입을 수 있는 자격자를 만들어 달라.” 이게 우리 역사입니다. 세마포는 하늘 군대가 입는 군복입니다. 전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패하지 않고 이기는 조건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린양의 생명책’에 녹명되는 겁니다. 그래야 짐승에게 패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계13:8) 그렇지 않으면 누구를 막론하고 짐승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 짐승이 마귀의 괴수에게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무저갱으로부터 나옵니다.(계11:7) 이 전쟁에 대비하여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군병을 육성하는 역사와, 아무것도 모르고 숫자나 늘어가면서 전도하는 차원에서 믿는 신앙 운동은 비교가 안 됩니다.

왜 하늘에서 군대를 필요로 하는가, 왜 안타깝게 군대를 모집하려고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전쟁은 비참한 겁니다. ‘너 살고, 나 살자’는 것이 아닙니다. ‘너 죽고, 나 살자’ 하는 것이 전쟁입니다. 다시 말해서, 네가 살면 내가 죽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너를 죽여야 한다, 이게 전쟁입니다.

하늘의 군대는 마귀를 상대해서 싸우는 군대입니다. 만일 이 군대가 전쟁에서 마귀를 무찌르지 못하면, 거꾸로 마귀에게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전략이 필요합니다. 14만 4천이 왔다, 전쟁하러 가자 — 이렇게 해서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14만 4천이 다 차면 다음에는 어떻게 해서 이길 것인가

가에 대해 사령관과 군대가 전략을 짜고 훈련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전쟁을 대비하는 기간이 천 년입니다.(계20:6) 그런데 이 영의 세계는 천 년이 잠시에 불과합니다.(벧후3:8 참조)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세마포를 입기 위해 저를 따라오고, 여기 서 있는 주의 종도 여러분에게 세마포를 입히기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다른 곳의 신앙 운동은 그렇지 않습니다. 10만이 모여도 예수 믿는 거고, 100만이 모여도 예수 믿는 것입니다. 1,200만의 대한민국 신도가 믿는 것은 우리와 같은 신앙 운동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를 이해 못 합니다. 십자가의 군병을 배출하라는 지시를 받지 않고 그냥 예수를 믿는다면, 저나 여러분도 그분들과 같은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의 종은 하나님께서 이러저러하게 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오늘까지 여러분을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기르라는 하늘 군대는 기르지 않고, 일반교회 식으로 단체나 부흥 발전시키고,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말씀이나 증거하면서 부흥사가 된다면, 나는 세상에서 인기를 끌지 몰라도 하나님의 지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나를 따르는 사람들의 수가 지금의 10배, 100배가 되어도 소용없습니다. 이렇게 부흥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의 존경은 받을지 몰라도, 주님의 요구는 하나도 들어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감람나무 역사가 힘들어도 참고 이끌어 가야 한다고 주께서 신신당부하신 겁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

도 사실 힘듭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평범한 신앙 운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쳐부술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전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가서 여리고성을 빙빙 돌다가 그냥 돌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6일째까지 반복하니 성안에 있는 군대는 ‘이것들이 또 괜히 엄포만 놓고 갈 테지’ 하고 방심하고 있는 사이에 쳐버렸습니다. 그게 전략입니다.

여리고성을 칠 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당장 박살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돕지만, 쳐들어가는 일은 이스라엘 군대가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이 지시한 여호수아의 전략만 믿고 그대로 따르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아이고, 쳐들어가지도 않을 걸 괜히 돌고 돌아? 피곤해 죽겠는데 또 나가서 물자만 쓰고 돌아오란 말이야?” 하고 원망이나 불평을 했다면 전쟁은 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에게 뜻이 있을 거다. 우리는 시키는 대로 순종하면 된다.” 이런 군병들이 여호수아의 병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했습니다.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드온이 정예부대 300명으로 미디안 군을 무찌른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같이하셨기 때문입니다.(삿 7:8-13)

오늘날 앞선 역사에서 피의 제단이라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 건물들에는 십자가가 비둘기로 교체되고, 피의 찬송을 부르던 성전에서는 저주의 소리가 들려오고 — 이렇게 퇴폐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앞선 감람나무 역사는 완전히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위엄은 매장되다시피 되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요구가 뭐냐? 명예를 회복하라 이겁니다. “감람나무 역사를 다시 일으켜, 더욱 멋있게 재건해서 내게 영광을 돌리고, 내 십자가를 빛 내라.” — 그것이 우리 역사입니다.

그래서 건물 하나 짓는데도 최대의 정성을 기울입니다. 손에 쥘 게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얼마 되지 않는 성도를 데리고 엄청나게 어려운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하늘에서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충성심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런 섭리 안에서 고통이 따를지라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 성전을 통해 내 나라로 들어오게 된다.”는 언약이 있는 겁니다.

내가 내일 죽어 없어져도 내가 한 말은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종의 위력은 세상의 힘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진리에서 나옵니다. 세상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것도 진리입니다. 말과 수단과 경제력으로 이겨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체계가 서고, 진리 가운데서 정신 무장이 될 때, 그것을 깰 어떤 세력도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깨질 것 같고, 저렇게 하면 부서질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행5:38 참조)

Chapter 05.

알고 모르는 차이



오늘날 지상은 과학이 크게 발달하여 옛날에는 상상도 못하던 편리한 생활을 유지하게 되고, 인구가 아무리 팽창해도 거기 따라 첨단 기술이 발달하여, 살아가는 방법이 적절히 강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중에 마귀의 앞잡이가 된 죄값으로 고통과 슬픔을 겪게 되는 저주 아래서 인간은 수 없이 퍼져 나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면서, 멸망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힘을 기울여 오신 것을 우리는 성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영의 세계에서 전개되는 투쟁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믿을 때의 신앙과 신과 신의 대결과 투쟁이 얼마나 치열하고 얼마나 긴 세월을 서로가 상극이 되어 지내 왔는가를 알게 된 연후의 신앙은 결코 같을 수 없습니다. 그 투쟁은 쉽게 말해서 신과

신이 인간을 사이에 두고 뺏고 뺏기는 삼각관계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인간은 신과 신 사이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신에게 속하여 다른 신을 대적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신의 존재를 느끼기 때문에 그 신을 공경하며, 또 그 신에게 자기를 맡기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때 인간은 신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 옛날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에 걸쳐서 기독교를 비롯하여 다른 종교들도 크게 퍼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신에 대한 존재 가치를 느끼기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기도하고 찬송하고, 때로는 철야하면서 신을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과 교류하기 위해 무던히 애씁니다. 그러나 유종의 미를 거두고 세상을 떠나는 신앙인은 극히 드뭅니다.

영의 세계를 알면 인간의 노력은 어느 시점에 가서 한계에 부딪치고 만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왜 그런가? 신과 신의 엄청난 투쟁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여건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우리가 원수로 대하는 마귀의 여건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나 마귀를 의지하는 사람은 종교에 의해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선지자나 사사를 통해 인간에게 역사하십니

다. “그 날에 내가 시온에 돌을 두게 될 것이다. 그 돌을 믿는 사람은 형통할 것이다. 그러나 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 돌이 도리어 거치는 반석이 된다.”(사8:14-15) 이런 돌이 나타날 때에는 그 돌의 정체를 깨닫는 사람에게는 크게 유리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크게 불리하게 됩니다. 즉 깨닫는 사람에게는 건축의 머릿돌이 되지만,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깨달은 사람은 그야말로 형통하는 축복을 받게 되고,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은 주님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님이 걸리는 반석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이처럼 엄청납니다.

당시에 주님을 알아본 사람들 중에는 미친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나 막달라 마리아의 경우가 그러합니다. 특히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기생은 오늘날 개화된 시대에도 천시하는데, 그 당시에는 사람 축에 끼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만난 이들 여인은 하루아침에 돌변했습니다. 그야말로 형통하는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반대로 주님에 대해 까맣게 모르고 있던 당시의 존경받는 수많은 경건한 신앙인들은 예수님 때문에 하루아침에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육적으로 보면 판단이 제대로 서지 않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이루어지는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구원과 멸망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의 기준을 세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는 인간의 생각이 도외시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인물인데도, 옷이 더러워졌습니다.(슌3:3) 그것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잘못이 아닙니다. 마귀가 더럽히는 것을 막을 수 없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막을 수 없으면 당합니다. 전쟁에서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쳐들어가면 점령한 나라가 마음대로 합니다. 점령당한 나라의 왕은 유명무실합니다. 그러니 그 아래 면장이면 뭐하고, 군수면 뭐합니까? 힘을 쓰지 못합니다.

대제사장이 아무리 거룩하고 경건해도, 하나님 편에서 하는 이야기지, 마귀가 와서 더럽히면 속수무책입니다. 더럽히는 존재에게 사로잡히지 말아야 위대한 것도 유지되고, 경건한 것도 지속됩니다. 점령당하면 소용없습니다. 이럴 때에는 우선 점령당하지 않게, 즉 사로잡히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또 더럽혀졌다면 그것을 씻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설사 마귀가 더럽혀 놓아도 순식간에 씻어서 거룩하게 만드는 방법을 제시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한 돌에 박힌 일곱 눈입니다.(슌3:9)

사람이 볼 때에는 경건한 사람 100명이 중요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마귀에게 점령당하지 않는 한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신의 요구입니다. 왜 오늘날 어떤 사람은 한평생 경건하게 살았는데 시체가 썩고, 어떤 사람은 경건하게 살지 못했는데 축복 속에 시체가 피어 가는지 아십니까? 신의 섭리 때문입니다. 인간이 잘나고 똑똑한 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신의 섭

리를 모르면 이런 현상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한 돌에 일곱 눈이 박힌다는 비유를 한 분이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사118:22)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따르던 자들은 다 도망쳤습니다.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가루가 된다고 했습니다.(눅20:18) 사도 요한이 하늘나라에 가서 계시록의 내용을 전달받을 때, 그 돌이 주님에 해당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돌에 일곱 눈이 있는 것처럼, 주님이 일곱 눈을 갖고 계셨던 겁니다.(슌3:9, 계5:6) 그리고 일곱 눈은 온 세상을 두루 살피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습니다.(계5:6) 또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와 또 ‘흰 돌’을 준다고 했습니다.(계2:17) 성경 66권 중에서 돌을 주겠다고 하는 말은 이긴자에게만 해당됩니다. 이 돌을 받게 되면 죄를 하루에 제합니다.(슌3:9)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하시려면 한 돌에 일곱 눈이 박히게 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돌이 실제로 역사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도 마귀가 더럽히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계속 이처럼 더럽혀지는 불리한 여건 속에서 백성을 다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돌이 역사하는 시대가 되면 양상이 크게 달라집니다. 사람이 하루아침에 거룩해지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얼마나 유리한 조건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단에게 점령당하는 것과 사단을 물리치는 것은 극과 극입니다.

세상에는 신앙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분들

이 세상을 떠날 때 그들이 잘못했거나 흠이 있어서 썩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악령이 점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악령이 들어가는 걸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수를 바를 때 시체가 변하는 건 뭐냐? 그 사람이 경건해서가 아닙니다. 하루에 죄악을 제하는 역사를 그 사람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것 사람들이 어떻게 구분합니까?

제가 모든 준비를 마치자, 하나님께서 “나가서 외치라.” 하셨고, 제가 움직이니까 여러분이 제게 오셨습니다. 그동안 의심을 하고 떨어진 사람도 더러 있었습니다. 주의 종을 알아보고 따르는 사람은 형통하는 거고, 알아보지 못하고 떨어지는 사람은 곁길로 가게 됩니다. 이것을 제3자가 어떻게 보든지, 당사자인 저는 20여 년 동안 한결같이 하나님의 일을 해 오면서, 죽고 사는 길을 인력으로는 가늠할 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일반교회의 교역자들 중에는 철야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오늘의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조금도 모릅니다.

무당이 낫할 때 가서 참석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마귀에게 지면 모를까, 그렇지 않는 한 곳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활동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보이지 않는 싸움터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술, 담배 먹고 세상에서 되는 대로 살던 사람이 안찰을 받을 때에 까무러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악령이 들어간 사람은 양상이 달라집니다. 아무

죄도 짓지 않았는데 이 손이 닿으면 그냥 뺏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지배하는 마귀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무슨 원수 졌습니까? 태초부터 하나님의 원수는 마귀입니다. 그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인간들은 마귀의 편이 되고 맙니다. 이 시간에도 더럽히는 것을 하나님이 막지 못한다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경우처럼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더러워지는 겁니다. 반대로 별로 경건치 않은데도 죄악의 더러움을 하루에 제한할 수 있는 역사를 만난 사람은 정결해 집니다. 이것이 신의 섭리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오늘날까지 나는 못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내가 신학을 했습니까, 인격이 뛰어납니까? 그렇다고 경건하게 살아온 것도 못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못하는 일을 합니다.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성경을 줄줄 외우다시피 하는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성경의 깊은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쉽게 전합니다. 또 그 사람들이 열심히 매달리고 울고불고 눈이 툭툭 붓게 철야 기도해도 해결하지 못하는 걸 순식간에 해치웁니다. 이것이 사람의 힘입니까, 신의 능력입니까? 그래서 “나의 신으로 된다.”고 하신 겁니다. (속4:6) 온 세상의 욕을 다 뒤집어쓰고 정신적으로 하루도 편안할 새 없이 지나오지만, 0.1초도 성령의 교류가 끊이지 않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육적으로 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이긴자는 한 돌에 일곱 눈이 박힌 역사를 실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장한 거지, 이긴자가 남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인격을 소유하여 장한 게 아닙니다. 이긴자는 하루에 죄악을 제해 버리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눅3:9, 계21:6-7) 주님이 주셔서 이긴자가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긴자가 나타나면 그걸 주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하루아침에 죄를 제해 버립니다. 그것이 오늘날 입증되고 있습니다. 누가 마귀를 물리칠 수 있습니까? 이 손길이 닿아야만 가능합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역사를 만난 사람은 유리하고, 만나지 못한 사람은 불리합니다. 오늘날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이 시대에 너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내게 올 자가 없다.” 하나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못 알아듣는 사람은, “자기를 통해야 한다니, 사이비다. 이단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긴자의 입김과 손길을 거쳐서 하늘나라에 직접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난의 대상이 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이것을 설명하면 할수록 미움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당시에는 주님을 참람한 말을 했다고 해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고 하니가 잡아 죽였던 겁니다. 오늘날 보십시오. 우리 설교집 ‘에텐의 메아리’를 많은 교역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다 좋다. 다만 한 가지, 왜 자기를 통해야 한다고 하느냐?” 여기에 그만 걸립니다.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당신은 세상 학문을 많이 쌓았지만, 나는 하늘나라에 오르내리면서 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전한다. 인자가 아니면 하늘에 오르내릴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요3:13)

오늘날 그 복세통에서도 말씀이 샘솟듯 하고, 은혜를 입혀 주고, 범죄자도 일평생 경건하게 산 사람보다 그 시체가 더 아름답게 변해서 가게 하는 것은 한 돌에 일곱 눈이 박힌 역사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육적으로 아무리 따져 보십시오. 답이 나오나. 이런 엄연한 사실 속에서 오늘날 악의 조건을 멸하는 작업이 한 생명, 한 생명에게 세마포를 입게 하는 일로(계19:8) 이어지는 것입니다.

Chapter 06.

하나님께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던 작업은 육적인 시대의 역사였습니다. 당시에 하나님에게 최대의 적수가 ‘바알 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을 자상히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자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할 때에 20세 이상 된 장정만 해도 60만이었습니다.(출12:32)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노력했으나,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민20:10-12) 또한 이스라엘 민족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죽었습니다. 그가 실패하기까지의 과정은 대단히 오래 걸렸습니다. 모세가 인도한 60만 장정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두 명(여호수아와 갈렙) 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성경에서 보고, 두 명이 들어갔다고 말로는 간

단히 얘기하지만, 그것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사람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자세히 알아야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왜 40년 동안 고생은 고생대로 하다가 다 죽었는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특이한 것은 첫째,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탈출하는 과정입니다. 그들은 인간이라 의식주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살자면 옷이 있어야 하고, 집이 있어야 하며, 먹을 것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3대 요소를 초월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따라갑니다. 그것도 피난 갈 이유가 분명치 않은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이 애굽보다 살기 좋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들어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세운 계획에 의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시기 위해 부른 종입니다. 하나님은 시킬 일이 있을 때 사람을 부르십니다. 아무 계획도 없이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언가 하시고자 할 때를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사55:6)라고 합니다. 종을 세우지 않으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교류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던 시대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천주교가 들어온 것이 200여 년 전, 개신교는 100여 년 전입니다. 우리나라에 천주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이란 한국 백성을 상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도 우리를 모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서구 각국을 상대하여 교류하면서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여 애굽에 보내고 그 나라의 문명과 문화를 이어받아, 퍼져 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글도 배우고 공예도 익혀, 그 시대의 선진국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400여 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릴 때가 가까워지니까 그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애굽 백성의 학대가 심해집니다. 하나님이 애굽 백성을 격동시켜서 이스라엘 민족이 못살겠다는 생각을 갖도록 하신 겁니다. 그때 모세를 종으로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지만, 애굽 땅에서 기반을 잡고 잘사는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못살겠다는 서민층은 모세를 따라가는 것을 좋아했지만, 기반을 닦고 잘사는 사람들은 모세를 따라 나가기를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0대 재앙을 내려 금은보화를 싸들고 이들을 애굽에서 떠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불만이 대단합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유리방황하게 한 장본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절대로 그 뜻을 준행하지 못합니다. 모

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더라면 웬만한 고생은 참을 수 있을 텐데, 자기가 잘 먹고 잘살 궁리만 했기 때문에 괴로우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사정을 올바르게 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고 고생을 달게 받아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원망 불평하고 지지고 붉는 날엔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하고 설득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유리방황한 데에는 피차에 책임이 있습니다. 모세는 모세대로, 백성은 백성대로 따로 움직였습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에게서 들은 대로 백성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였다면 모세가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아니, 못했습니다. 얘기하는 날엔 모세가 난처해집니다. 백성들이 불리한 얘기만 나오면 모세를 원망하고 때려죽이려고 하니, 모세는 할 말을 못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사정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만 알고, 백성들은 알 수 없습니다. 백성들은 모세가 어떤 말이 라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양떼들에게 때로는 언짢은 이야기도 들려줘야 합니다. 살기 위해서는 서로 의합해야지, 숨기고 가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주의 종이 정직하고 정직하지 못한 것은 주의 종 자신에게도 달렸

지만, 따르는 양떼들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가나안 민족을 몰아내고 영광을 받기 위해서다. 그 때문에 우리를 애굽에서 이렇게 길러 주셨으니, 우리는 고생이 되더라도 하나님이 400년 간 기다린 소원을 풀어 드려야 한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다.” 하고 말했어야 합니다.

이 체계를 백성에게 심지 못하고 얼렁뚱땅하면, 우선은 편안할지 몰라도, 결과적으로는 패망에 이르고 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사정을 사실대로 말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하나님의 사정을 모세의 입에서 들어 보지도 못했으며, 따라서 알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초능력만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대할 수 없게 되니까, “이놈들이 저 살 궁리만 하고 내가 정한 뜻은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이 백성은 있으나 마나 해. 400여 년 동안 내가 길렀는데 아무 도움도 안 되는 백성이니, 쓸어버려!” —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저 녀석들이 내 안타까움을 알고, 협조하려고 애쓰는구나.” 하고 흐뭇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고 엉뚱한 짓이나 하면서 하나님을 위하는 척하면, 있으나 마나 한 존재이므로, 하나님은 제거해 버립니다. “내가 너희들을 예뻐서 길렀느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어서 길렀는데, 너희들은 딴 소리만 해?” 하고 결국 다 쓸어버립니다. 하나님은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또 당부하십니다. “너는, 내가 모세에게도 말했듯이, 인정사정 보지 말고 가나안 민족을 싹 쓸어버려라.”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가나안 땅에 쳐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두령들이 자기 나름의 이유로 일부 원주민을 살렸다가 하나님께 질책을 당합니다.(삿2:21)

그 후에 성전을 건축합니다. 다윗이 금은보화를 산더미처럼 쌓아 놓고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많은 사람의 피를 흘린 다윗이 건축하는 것보다, 손에 피를 묻히지 않은 사람이 짓는 게 낫겠다 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게 ‘솔로몬 성전’입니다. 지상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최초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시기 위해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이 말을 여러분들은 귀가 따갑도록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필요하여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찾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저를 불러 주시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이거니까, 너 이걸 좀 해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을 우리가 준행할 때 선이 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을 안 하면 악을 행하는 것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고생스럽다고 애굽으로 도로 돌아가

자고 한다면(민14:3) 그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민족을 말살시키고 신당을 헐고 영광을 돌리도록 여러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위해 살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여 잘 먹고 잘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 이러저러한 일을 해 달라, 이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대하기 전에 하나님과 주님으로부터 지시받은 게 그겁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내용을 다 설명해 주시고, “너는 이렇게 하라.” 하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모인 후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으니, 너는 이렇게 해라.” 하신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너한테 사람들이 모일 테니, 내 일을 해라.” 해서 저는 오늘날까지 움직이고 있는 것뿐입니다.

모세가 젓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가 보기를 했습니까? 그 말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만이 있으면 하나님께 따져야지, 모세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오늘날 여기 선 이 사람이 여러분을 20여 년간 이끌어 오면서, 언제 “내가 이렇게 한다.”고 말했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시하셔서 한 겁니다. 그러면 그걸 믿어야지, 날 가지고 어찌고저찌고해 봤자, 답이 나오니까? 이걸 아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래라저래라 하십니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저는 그 일을 잘하면 잘했다고 칭찬을 받는 거고, 못하면 못했다고 혼나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점에서 저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저를 세우신 겁니다. 그게 뜻대로 안 되면 저는 하나님께 별 볼 일 없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할례를 전하였던들, 누가 나를 핍박하였겠느냐? 그러나 할례를 폐지시키지 않으면 주의 저주를 면치 못했을 거다.” (갈5:11, 고전9:27 참조) 왜? 그게 주님의 지시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세상 사람들이 선과 악을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옳다, 뭐 어땠다, — 그건 자기 생각입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은 자기 생각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계14:4) 여러분의 생각대로, 따르고 싶으면 따르고, 따르고 싶지 않으면 등을 돌리고 — 이런 자세로는 저를 못 따라옵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 떨어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모르는 것이 이렇게 천양지차입니다. 알면 따르고, 모르면 역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체계를 중요시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의 섭리를 모르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하시고자 한 일이 잘 안 된 걸 보십시오. 모세는 60만 장정 중

에서 30만이 됐든 20만이 됐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끌고 가
나안 땅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끌고 들어
갔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고, 못 들어가면 하나님께
불영광이 됩니다. 모세는 트리바의 물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
렸습니니다.(민27:14) “네가 잘 설득해야지, 이럴 수가 있느냐!” — 모세는
그걸 못했습니다.

흔히들 하나님은 무한히 자비로우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
만에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자비롭기만
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걸 뭐로 아느냐? 여러분, 제가 청량리에서
‘감람나무다’ 하고 나왔을 때, 앞선 역사의 주인공을 비롯하여 교
역자나 교인들이 나를 도깨비로 몰았습니다. 나야 무슨 죄가 있습
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쪽정이 같은 저한테 기대를 거시고, 수많
은 그 사람들을 외면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중점을 당신의 뜻
에 두십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저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
는 뜻이 있기 때문에 저를 보호하십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니까, 거기는 망하고, 여기는 이만큼이나마 지
금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별 볼
일 없다고 단정하시는 날에는 우리 역사도 끝나는 것입니다. 저한
테, “너 20여 년간 내 일을 해 왔지만, 너의 백성에게 이제는 기대를 못하
겠어.” 하고 통고가 내려온다면, 그것으로 끝장납니다. 그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그걸 아셔야 합니다.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 “내가 이제부터 너한테 할 일을 지시하겠

다.” 하고 바울이 해야 할 일을 통고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까지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증거하기가 쉽습니까? 환장할 일입니다. 그러니 하려 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걸 주님은 뻔히 아십니다. 그래서 눈부터 멀게 했습니다.(행 9:8) “너, 내 말 안 들으면 평생 장님이 된다.”고 협박하신 것입니다. “어이구, 죽을지언정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바울은 그 소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눈뜨게 해 놓고, 고생을 낙으로 삼아 일하게 하셨던 겁니다. 두들겨 맞고 뼈가 부러져도 장님이 되는 것보다 낫습니다.

남이 볼 때에는 하나님의 종이 거저 되는 줄 생각하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저도 사양했습니다. 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는 시키는 대로 하면 돼. 뒷감당은 내가 한다.” 하신 겁니다. 그래서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막상 이 역사를 하다 보니, 어려움이 여간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몸을 사릴 수는 없습니다. 괴로워 발뺌을 하려고 하면, 위로 부터 압력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신뿐만 아니라, 어둠의 신도 사람을 그렇게 씹니다. 세상에 무당이 되고 싶어서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악신의 강요에 못이겨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눈의 가시처럼 여깁니다. 특히 하나님의 역사에 영향력을 행하는 사람일수록 마귀가 더 노립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쓰러뜨리면 하나님의 역사에 결정적인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인은 모릅니다. 예수님의 애제자 유다가 스승을 팔아넘기는 걸 보십시오. 마귀는 다른 사람한테도 할 수 있는 일을 가까운 제자의 허점을 노려 이용합니다. 악령의 힘이 대단히 강하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Chapter 07.

하나님의 비밀과 ‘흰 돌’



계시록 10장 4절에, “일곱 우리가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리가 발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 훌륭한 말씀을 많이 기록했는데, 이 일곱 우리가 발할 때의 내용에 대하여는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기록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하늘에서 기록하지 못하게 하셨습니까?

오늘날까지 어떤 신학자도 서두에 인용한 말씀에 대해 논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을 뿐, 의문도 제대로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계2:7)는 그 귀는 부모의 뱃속에서 달고 나온 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신령한 말씀

을 이해하는 귀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나는 계시록 강해에서 본문의 말씀을 가볍게 다루고, 깊이 논하지 않았습니다.

계시록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도 요한이 밧모 섬에 유배되었을 때 주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 내용만 보더라도 불가사의한 의문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록조차 안 되어 있다면, 이것은 근황은커녕 상상도 안 가는 것입니다. 기록된 것을 해석하는 일도 어려운 것이 계시록인데, 기록도 하지 않았으니 어떻게 그 내용을 상상인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하늘에서 기록하게 한 내용과 기록하지 못하게 금한 내용은 어느 쪽이 비중이 크겠습니까? 당연히 기록하지 않은 것입니다.

만일 일곱 우리가 발할 때에 들은 말을 기록해 놓았다면, 읽은 사람들이 입을 모아 “뭐 이런 말이 다 있어!”하고 무시하거나, 논란의 대상이 되기가 십상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나중에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때에 밝히는 것입니다. 가령 제가 이 단상에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깊은 말씀을 했다고 칩시다. 여러분은 어느 정도 이해하겠지만, 처음 듣는 사람은 “무슨 설교가 이래!” 하고 무시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테이프에 그 내용을 담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작전상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이 극비에 속한다면 함부로 취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봉합하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 말은 다니엘서에도 나옵니다. 다니엘이 천사를 통해 여러 가지 계시를 받고, 그 천사에게 “이것이 무

슨 뜻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천사는 “너는 알 바가 아니다. 마지막 때까지 봉합하라.”(단12:9)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받은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씀했다면, 그것이 얼마나 극비의 내용인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에 일곱 우리가 발할 때에 들은 내용을 인봉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전 세계 사람들이 성경을 갖고 있어도 그 내용을 읽을 수 있습니까? 읽을 수 없습니다. 주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것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이고, 또 이루어질 일들인데, 그 일부를 기록하지 못하게 금한 것은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영원히 인봉해 두느냐? 아닙니다. 때가 되면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위대한 말씀이 많아도,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비밀이 있습니다.(계10:7) 그 비밀은 누구나 알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적나라하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지상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국왕이나 대통령의 비밀을 일반 사람들이 압니까? 모릅니다. 당사자나 당사자에게 연결된 사람만 압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 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의 부르짖는 것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계10:1-3)라고 했는데, 이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밝혀지는 것입니다.

그럼 그 내용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주님이 이긴자에게 주시는 ‘흰 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계2:17)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하지 않은 대신에 ‘흰 돌’에 기록하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보고 듣기는 했으나, 주께서 그 내용을 기록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당시의 일곱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전 세계의 교회가 오늘날까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흰 돌’을 이긴자에게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흰 돌’에 기록한 내용을 이긴자가 아닌 제3자가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그럼 이긴자의 증거를 제시하려면 ‘흰 돌’의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그걸 아는 자라야 진짜 이긴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인간과 싸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와 싸우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비밀을 인간에게 숨기시겠습니까? 마귀에게 숨기시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 66권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을 마귀에게 비밀로 남겨 두시는 겁니다.

앞에 인용한 성경 말씀에 바다와 땅을 밟고 외친다고 했습니다. 바다와 땅은 지상입니다. 밟는다는 것은 지배를 뜻합니다. 이긴자가 영적으로 지상의 지배자요, 대표자인 것입니다. 감람나무를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시고 서 있는 자’(슥4:14)라고 규정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입니다. ‘흰 돌’을 받은 자가 “사자의 부르짖는 것같이 큰

소리로 외친다.”고 했습니다. 조용히 혼자 중얼거리는 것이 아니라, 사자처럼 부르짖습니다. 큰 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자 후’라고 합니다. 듣는 상대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따르는 양떼가 듣는 것입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하나님의 가장 깊은 사정을 알려면, ‘흰 돌’을 받아야 합니다. 거기 하나님의 비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숨겨진 보물을 찾으려면 지도가 있어야 합니다. 지도가 없으면 사방을 아무리 뒤져도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도가 있으면 그 지도에 의해 쉽사리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비밀을 아는 자가 나타나면, 그를 통해 쉽사리 들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듣는 자가 영적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계2:7)

하나님의 비밀이란, 요컨대 하나님의 위상과 관련된 일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어떤 처지에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성서학자라 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 비밀 통로를 알고 있는 당사자가 아니면, 즉 주인공이 아니면, 물 쏠듯 설교하지 못합니다. 그 비밀 통로를 모르는 사람은 손톱, 발톱이 다 닳아빠지도록 찾아내려고 노력해도, 애만 쓰다가 때가 되면 죽고 맙니다.

여러분은 내가 잘나서 따르는 게 아닙니다. 남들은 머리를 싸매고 연구해도 하나님의 근황조차 모르는 내용을 주의 종이 여러분에게 즉흥적으로 내리 퍼붓는 것은 뭔가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인공이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의 깊은 사정을 알 수 있겠습니까?

기적을 행한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순리적으로 질서정연하게 앞뒤가 맞아야합니다.

전 세계 기독교가 2천 년 동안 몰랐던 하나님의 사정을 제가 조금씩 단계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걸 언뜻 들으면 상상이 안가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천만이 넘는 신도들이 예배 보는 시간이 아납니까? 그곳에서는 여러분보다 100배 훌륭한 사람들이 경건히 머리 숙이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근황조차 알지 못합니다.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손에 펴 놓인 작은 책을 들고”라고 했습니다. 왜 ‘작은 책’이라고 했습니까? 말씀이 많습니까? 적은 겁니다. 성경 66권에는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방대한 말씀이 복잡하게 담겨 있지만, ‘작은 책’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책’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들이 머리를 싸매고 연구해도 하나님의 근황조차 알지 못하는 것을 내가 여러분에게 즉흥적으로 마구 쏟아놓는데, 거기에는 까닭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마무리 짓는 주인공이 아니면 하나님의 깊은 사정을 알 길이 없습니다.

Part 02.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8. 이것이 인류의 역사이다 · 9. 지구의 수명에 대하여 · 10. 하나님의 사정과 마귀의 사정 · 11. 삼손이 남긴 교훈 · 12. 십자가의 군병이 되는 조건 · 13. 알파와 오메가의 역사 · 14. 사단의 깊은 내막을 알라

Chapter 08.

이것이 인류의 역사이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깊은 내용을 안 다음에,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만세 전에 정하신 하나님의 비밀 가운데 부르심을 입었다.”(고전2:7)고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 말이 무슨 소린지 전혀 몰랐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신학자들 중에도 그 뜻을 깊이 아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당시에 하나님의 어려운 일을 했기 때문에 주께로부터 특별히 영의 세계에 대한 가르침을 어느 정도 받았지만, 듣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겨 버리기가 일쑤입니다. 바울이, ‘만세 전에 예정하신 뜻 가운데 여러분이 부르심을 입었다.’고 말한 그 ‘만세 전’은 인류가 창조되기 전에 말합니다. 그럼 인류가 창조되기 전에 무엇을 정하셨기에 그 예정대로 부르심을 입었다고 하는가?

하나님이 인류를 지으실 때 뜻이 계셨습니다. 그 뜻은 인류가 범죄하기 전의 처지에서 생육하고 번식하여 많은 자손을 늘리는 것이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데 군대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인류는 그렇게 되지 못하고, 범죄하여 죄 가운데 태어나 자손이 퍼져 나갔습니다.(시51:5) 다시 말해서 마귀의 지배하에 떨어진 이후에 후손이 퍼져서 오늘날과 같은 인류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마귀와 대적하려던 뜻을 펴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기독교가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동안 영적인 말씀을 많이 드려 왔고, 또 오늘의 섭리에 대해 많은 설명을 했지만, 그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얘기입니다. 성서를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세 전’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제 말을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대적에게 어떤 작용을 하는가 하는 것이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지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인간을 위해서냐, 아니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냐 — 이 핵심적인 문제를 알아야 기독교를 올바르게 알 수 있고, 우리의 역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를 하나님과 신앙인 사이에 믿고 의지하는 관계로만 아

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경 66권을 보십시오. 제가 이미 자상하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상에 수많은 종들을 세우실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 어떤 필요성을 느끼십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들이 필요로 해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닙니다. 이 경우에 양적으로 아무리 수가 많고, 기라성 같은 인물이 모이고, 훌륭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생기를 부어 그들을 생령이 되게 하셨습니다.(창2:7) 이 생령들을 번성시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이루려고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미처 번성하기 전에 마귀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습니다.(창3:17) 그 빼앗은 자가 뱀입니다. 뱀이 하와를 꼬였고, 하와가 아담을 꼬여,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기도 전에 저주를 받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온 인류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잘났든, 못났든, 모두 저주 아래 있게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 조상인 아담, 하와의 후손이 퍼지면서 100억이 되든, 1,000억이 되든,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저주 아래서 살게 됩니다. 우리는 이 근원적인 내막을 잘 알아야 합니다.

만일 아담, 하와가 저주를 받기 전에 자식을 낳아 하나님의 뜻

이 이루어졌다면, 오늘날과 같은 인류는 나타나지 않고, 색다른 인류가 살게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저주 아래 떨어지도록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생명과일을 먹으면서 영생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그런 신령한 생명체로 지으셨습니다. 그러한 아담과 하와를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신 생명체를 탄생시키기 전에, 하나님이 마귀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인류는 저주 아래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모든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자” (마25:41)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저주 아래 있는 생명체가 저주를 벗어나기 전에는 영생에 이를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죄와 유전죄로 인하여 대대로 저주가 따라다니기 때문입니다. (롬5:19, 벰전1:18)

나는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영적인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그것은 거의가 저주 아래 있는 인간들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계시록에는 ‘흰 돌’에 하나님의 새 이름과 어린 양의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을 받은 자밖에는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계2:17, 3:12 참조) 이긴자 감람나무라고 해서 뭐 딱 부러지게 표가 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 중에서 유일한 표시가 있다면 바로 ‘흰 돌’의 내용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나 아는 게 아닙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다른 건 다 흉내 낼 수 있어도, 누구도 흰 돌의 내용은 근사치도 모릅니다. 그걸 터뜨리는 걸 봐서 이긴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긴자의 증거가 그겁니다. 성경에 기록한 대로, 앞선 역사에서는 만나로 이긴자를 입증했지만, 후자는 흰 돌

의 내용으로 입증합니다.

주의 종이 하는 말이 역대의 어떤 신학자들이 한 이야기이거나, 또 오늘날 수십만 명 모아 놓고 설교하는 부흥 강사나 선교사, 목사들이 하는 이야기와 같다면, 저를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이 인류를 지으시게 된 동기를 감히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는가? 이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인간을 제일 나중에 지었습니다. 왜 제일 나중에 지었습니까? 아마 이런 생각을 해 본 사람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적에, 성경에 기록한 대로 많은 혼돈이 일어났습니다.(창1:2) 혼돈은 가로막는 세력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지구상에서 대포를 쏘면 대포알이 날아가는 게 보입니다. 6.25 동란 때, 저도 많이 보았습니다. 대포에서 탄알이 나갈 때 공기의 저항을 받아서 열이 납니다. 만일 지구가 아닌 대기권 밖에서 대포를 쏘면 별경게 달아오르지 않습니다. 공기가 없어서 마찰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로막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기는 마이너스 플러스가 서로 부딪치면 스파크(충돌)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엄청난 혼돈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을 가로막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건 전쟁입니다. 여호와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못하게 하는 어마

어마한 세력이 있습니다. 거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가로막습니다. 하나님은 그 세력이 여러 날 동안 어떻게 가로막는가를 시험하신 겁니다. 그리하여 시험이 끝난 후에 제일 마지막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래도 뚫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 세력이 형편없습니까? 강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도 상대와 겨뤄 봐야 그 힘의 세기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악령과 힘을 겨뤄 가면서 상대방 세력을 약화시키고, 결정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여기에 필요한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같은 요소를 지닌 존재가 있어야겠다 해서,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시고, 그 수를 예정해 놓으셨는데, 한 사람도 생육하기 전에 마귀에게 뺏겨 버린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뜻은 일단 좌절된 겁니다. 하나님의 여건이 불리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짓지 않은 것만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사람을 지었던고!” 하고 한탄하신 것입니다.(창6:6)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전지전능을 부르짖는 일반교회에서 날 공박할 걸 잘 압니다. 그러나 사실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어린 고로 좀 벅찬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오늘날 우리 역사에 들어온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알 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신 다음에 여자를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

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창1:22) 이때 하나님이 덮어놓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생명과일을 먹어야 하는 겁니다. 그럼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법은 뭐냐? 선악과를 먹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은 인간이 생명과일을 먹고 영생하여 적대 세력을 무찌르게 하려는 것이었는데, 반대 세력이 선악과를 따먹게 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쫓겨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인류를 짓기 전, 곧 만세 전에 예정했던 뜻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것을 회복하여 인류를 짓기 전에 정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오늘날까지 끊임없이 역사해 오셨습니다. 아담, 하와를 짓기 전에 하나님이 어둠의 세력을 무찌르기 위해 예정했던 뜻이 일단 좌절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최초로 이렇게 해야겠다고 작정하신 방법도 변해야 합니다. 변하지 않으면 어둠의 세력을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잠재해 있습니다.

여러분, 앞선 역사에서 감람나무의 진액을 받은 자가 9만 명이라고 주님이 저에게 공식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주의 보혈의 은총을 받은 자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주의 피를 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최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끝까지 주의 편에 있었다면 주님이 유리하시겠지만, 반대로 주의 적이 될 때에는 그 역사 자체가 없었던 게 더 유리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을 짓지 않은 것만 못한 결과가

왔듯이, 앞선 역사가 어둠의 세력에게 빼앗겨, 없던 것만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은 지면 안 한 것만 못합니다. 주님은 감람나무를 내세워 악령에게 도전했다가 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코너에 몰리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복귀하는 것은 시작할 때와 같은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복싱 선수가 챔피언 벨트를 뺏으려고 도전해서 졌는데, 다음에도 같은 방식으로 싸우면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이때에는 방법을 달리 하여, '상대가 이렇게 나오니 나는 이것을 꺾을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익혀 이겨야겠다.'는 생각에서 피나는 맹훈련을 쌓아 다시 도전해야지, 이전처럼 싸워서 이기지 못합니다.

앞선 역사가 불행하게도 오늘날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이런 처지에서 저 같은 미약한 것을 앞세워 주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오고 계시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역사는 앞선 역사가 시작되지 않았던 당시보다도 월등하게 불리한 여건에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 하와는 화려하게 창조됐지만 비참하게 떨어져 어둠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상에서 비참하게 태어나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갔으나, 승리하여 생명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첫째 아담이 실패한 것을 둘째 아담이 복귀시켜 놓은 것입니다. [\(고전15:45\)](#) 그분이 없으면 복귀할 길이 없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역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역사는 화려하게 시작했다가 비참하게 꺾였기 때문에, 두 번째 역사가 엄청난

게 어렵게 시작됐습니다. 복귀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끌어 가는 주의 종에 대해서도 이해 못합니다. 이 점을 여러분은 명심해야 합니다.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니, 다시 에덴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담, 하와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이미 아담, 하와는 악의 세력에 가담하여 그 세력을 업고 들어오므로 못 들어오게 조치하신 겁니다. 성경은 아담, 하와가 생명과일을 따먹고 영생할까 봐 막았다고 기록했습니다.(창3:22) 막을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동산에서 쫓겨났다가 다시 들어와서 생명과일을 먹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생명과일을 먹으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양식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유리한 양식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차단하신 겁니다.

영의 전쟁은 옛날부터 오늘까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밤낮 하나님을 향해 참소하는 악령의 적대 행위는(계12:10) 주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 비로소 끝장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 하시려고 했던 일을 마귀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로막습니다.

주님이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을 떼은 이후에, 비로소 14만 4천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옵니다. 창세기에서 유다서까지 수천 년이 지나면서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무수히 등장했지만, 14만 4천을 언급한 것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계시록에만 14만 4천이라는 숫자

가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주님이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을 취하였을 때 수많은 천사들이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계5:11-12) 이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을 뿔 자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승천하여 떼시고, 만세 전에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을 짓기 전에 14만 4천을 필요로 하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만세 전에 정하신 하늘 군병의 수입입니다. 지구상의 인구가 100억이 되건, 1,000억이 되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통해 의로운 자의 수 14만 4천이 차기를 원하셨지만, 이 땅에 계실 때 주님은 이것을 모르셨습니다. 왜냐하면, 일곱 인으로 봉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을 저 같은 게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듣지 않고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20여 년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겁니다. 흰 돌을 받은 장본인이 아니고서는 말할 수 없는 겁니다. 흉내도 못 냅니다. 그것 하나만 보고도 주인공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인간의 수는 따로 있습니다. 그 수가 14만 4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4만 4천은커녕 단 한 사람도 배출시키지 못하고 마귀에게 아담, 하와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에 이른 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Chapter 09.

지구의 수명에 대하여



오늘날 과학이 발달하여 인간이 지구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천체에서 지구를 바라볼 수 있는 시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쳐다볼 수밖에 없었던 달나라에 직접 가고, 거기서 지구를 바라볼 수 있는 시대 — 이처럼 과학 문명이 발달한 시대에는 이 지구의 생태계를 상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우리는 현재의 지구와 반대되는 경우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즉 사람이 살고 있는 지구를 하나님이 살지 못하게 하실 경우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상에 사람이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시는 것과는 달리, 그 모든 조건을 제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이 지상에 살 수 없습니다. 계시록에는 지구의 멸망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 사람이 지구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표시했다고 본다면, 계시록에는 지구에 사람이 살

수 없는 조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지구의 생성과 기원을 과학적인 측면에서 상고해 볼 수 있습니다. 과학은 지상에 멸종의 시대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옛날 공룡 같은 큰 짐승들이 지상에 살고 있다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공룡은 한 시대에 도태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류가 한 시대에 사라진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계6:14, 21:1)

오늘날 지구에서 보면, 하늘에 많은 별뿔별들이 지나갑니다. 하루에도 여러 차례 지구를 향해 운석이 날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고, 우리가 직접 어떤 해를 받고 있지 않으므로 모르고 있습니다. 수많은 운석들이 갖가지로 날아오고 부딪쳐서 지구뿐 아니라 지구의 위성인 달에게도 상처를 입히고 있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달은 우리 눈으로 봐도 아름답지 못합니다. 엄청난 분화구가 수백만 개나 되는 상처투성이입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달의 분화구를 촬영해 보면 움푹 패어져 있습니다. 달에 가까이 가서 보면 수많은 웅덩이가 생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달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달은 곰보가 되어 있습니다.

달은 이처럼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지구는 별로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구에는 운석이 날아오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수없이 날아옵니다. 밤하늘을 쳐다보면 별뿔별이 엄

청난 꼬리를 달고 지나갑니다. 워낙 거리가 머니까 그렇지, 가까이서 본다면 수 킬로미터나 되는 꼬리입니다. 3천도 이상의 굉장히 뜨거운 불덩어리가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구에는 아무런 피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구에는 소위 대기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들이 살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신 겁니다.

이것은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더욱 분명히 알게 됩니다. 대기권이라는 지구의 보호막이 우리 눈에는 안 보여도 엄연히 있으므로, 외계에서 수많은 운석들이 날아와도 대기권에서 전부 타 버립니다. 간혹 운석이 지구에 도착하는 것이 있기는 합니다. 미국에도 운석이 날아와 어마어마한 웅덩이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 대기권을 지나 달나라에 갔다가 다시 대기권을 지나 지구로 돌아올 때에는 엄청난 불꽃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기권을 지날 때에 인공위성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타 죽지 않게 하기 위해, 벽돌로 용광로의 온도 섭씨 2,500도에서 3,000도를 견딜 수 있는 특수 장치를 설치합니다.

태양이 지금보다 좀 더 먼 데 있으면 지구는 얼음 덩어리가 돼 버리고, 조금만 더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 불덩어리가 됩니다. 금성은 태양과 가까워 표면 온도가 섭씨 500도나 오릅니다. 지구에는 농작물에 해를 끼치는 것을 막아 주는 오존층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지상에서 인류가 살아가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배려

속에서 비로소 가능하게 됩니다. 만에 하나, 하나님께서 인류를 멸망시키고자 하신다면, 지구는 가만두고 대기권 하나만 제거하면 됩니다.

성경에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열매가 떨어지듯이 지구를 향해 떨어지고, 큰 우박이 떨어져, “산아 날 가려라. 바위야 날 가려라.”(계 6:13) 한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을 과학적인 측면에서 분석해보면 대기권이 없는 경우에 일어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만일 대기권이 없다면 외계에서 떨어지는 운석들이 인류를 박살내고 말 것입니다. 대기권이 걷히면 하루아침에 인류는 사라지게 됩니다. 인류의 멸망은 간단한 얘기입니다. 지구를 박살내지 않더라도 금세 멸할 수 있는 장치가 지구상에 이미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즘 지구상의 대기 오염이 오존층을 파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성에서 사진을 찍어 보니 오존층에 구멍이 크게 뚫려 있습니다. 그 안으로 자외선이 비치면 사람과 농작물에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 구멍이 자꾸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인류의 멸망이 서서히 다가오니 이 오존층을 보호하지 않으면 자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인류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만일 그 보호의 손길을 거두시면 인류는 살지 못합니다. 지구는 대기권을 걷으면 하루아침에 달처럼 곰보가 되고 맙니다.

한편 오늘날 핵폭탄을 이북에서 만들고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것을 장거리 유도탄에 실어서 떨어뜨리면 대

한민국은 말할 것도 없고, 지구 자체가 잿더미로 변할 우려가 있습니다. 핵을 보유한 다른 나라들에서는 이미 만들어 놓은 핵폭탄을 제거하려고 하는데, 이북에서는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는 안 만든다고 하고, 여기서는 그들이 몰래 만들고 있다고 말합니다.

일본에는 아직도 원폭 피해자들이 병을 앓고 있습니다. 기형아가 태어납니다. 이 얼마나 가공할 무기입니까? 오늘의 핵무기는 일본에 투하한 원폭의 100배, 1,000배의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류의 멸망을 자초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역사의 성패와도 깊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Chapter 10.

하나님의 사정과 마귀의 사정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는 사명을 맡은 주의 종들은 시대마다 할 일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이룰 때 어떤 종에게 어느 정도의 어려움이 따르느냐, 또 어느 시대에 종으로 부르심을 입었느냐 하는 여건에 따라서 그 생애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똑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종이 있는가 하면, 여건이 좋아 비교적 순조롭게 일하는 종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로서 예정된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그 예정되어 있는 역사가 성경에 몇 군데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이사야가 예언한 주님의 시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그리스도의 길 예비자로서 엘리야가 나타날 것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오리라 한 엘리야의 분신은 특이하게 태어난

세례 요한입니다. 이 예언적인 인물인 메시아와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나라를 무대로 역사하였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예언적인 인물인 두 감람나무는 메시아와 마찬가지로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메시아의 존재는 이 땅에 오셔서 큰 발자취를 남겼기 때문에 많은 기독교 신자들의 연구 대상이 되었으나, 감람나무의 경우는 다릅니다. 온 세상의 주를 모신 감람나무가 일찍부터 이스라엘 땅에 나타나 역사했던들, 비판을 받았든 칭찬을 받았든, 오늘날 감람나무라는 명칭을 갖고 주님을 섬기는 기독교 신자가 많을 겁니다. 그리하여 감람나무를 인정하고 주님을 섬기는 기독교와 감람나무를 인정하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 기독교로 갈라졌을 것입니다.

옛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적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거해 달라고 주님으로부터 부탁을 받은 것이 12사도입니다. 그래서 12사도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기 위해 목숨을 바쳤고, 반대로 유대교를 신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지 못하게 가로막았습니다. 그 후 바울을 통해 기독교가 범세계적으로 전파되고, 유대교는 점점 위축되었습니다.

7세기에 이르러 마호메트가 기독교와 유대교를 종합하여 알라신을 섬기는 이슬람교를 전파했습니다. 그리하여 세 종교가 함께

성지로 삼고 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즉 예루살렘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구역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기독교보다 먼저 나타난 종교가 불교입니다.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불교보다 나중입니다. 천주교가 불과 200여 년, 개신교는 100여 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앞선 역사를 빼고 보면 170여 년이 됩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나라에도 감람나무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170여 년의 연조밖에 안 되는 나라에 감람나무가 나타났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하와가 먼저 따먹었습니다. 하와가 따먹자마자 즉시 죽었으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겠습니까? 안 먹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안 죽었습니다. 그러니 뱀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마귀는 사람을 중간에 놓고 겨룰 때, 마귀보다 하나님이 사람을 당신의 편에 끌어들이기가 한결 힘든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마귀를 어떻게 경계해야 할지 알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믿으러 이곳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저를 통해 나타난 주의 음성과 손길을 귀히 여겨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교회를 놔두고 먼 이곳에 오신 것은 다른 교회에서 깨닫지 못한 하나님과 주님을 이곳에 와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죽는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먹어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럼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냐? 그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죽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 듣는 사람은 먹는 순간에 죽는 걸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축복을 받는 데 시간이 걸리고, 멸망 받는 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마귀를 따르면 효과가 곧바로 나타납니다.

마귀는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게 된다고 꾀었습니다. 그래서 먹었더니 금세 마귀의 말대로 되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유리합니까? 마귀가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기보다 마귀에게 쫓리기가 한결 쉽습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신앙 운동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여건이 불리하기 때문에 비참한 길을 가게 됩니다. 고통이 따릅니다. 태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역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즉시 아담이 따먹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와는 따먹고 자기 눈이 밝아지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아담에게 권했습니다. 아담은 하와의 말을 듣고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마귀는 이런 식으로 꾀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병들게 할 때, 마귀는 그렇게 스며듭니다. 주의 종의 이야기는 장차 될 일에 관한 것이지만, 여러분을 꾀는 얘기는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꾀는 쪽이 여러분에게 빨리 와 닿습니다.

저는 10년, 20여 년을 기르지만 떨어뜨리는 것은 하루아침에 가능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저를 10년, 20년 따랐던 분도, 저를 의심할 때 10년, 20년 걸리는 게 아닙니다. 순간에 의심하게 됩니다. 단 몇 마디 이야기에서 확 돌아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여건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처지에서 오늘날까지 인류를 상대로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정과 마귀의 사정을 모르면 하나님의 일을 돕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귀와 대적하기 위해 사람을 필요로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저를 택하신 것도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라가 국방 예산을 짜고, 군대를 모집하는 것은 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국토방위를 위해 백성들이 세금을 내어, 외적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지켜 달라는 겁니다.

주님이 저를 세우고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뭐냐? 우리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만 쳐다보라고 불러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마귀를 상대하여 싸우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이슬이 내리고, 생수가 흐르고, 불이 오는 것은 마귀를 상대하여 싸우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날 받기만 하고 주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은혜를 주신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앞선 역사의 경우가 특히 그러합니다. 주님과 사람 사이에 오고 간 것은 강했지만, 마귀를 상대해서 싸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기가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러므로 100만이 모여도 하나님과 그

들 사이에 오고 가는 것 가지고는 승부가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을 모아서 하시려는 작업은 마귀를 멸하는 것 입니다.

옛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여 하시려 했던 일이 뭐냐? 아브라함의 자손을 대대로 번성케 하시려던 게 아닙니다. 그 백성들을 앞세워 ‘바알’을 섬기는 가나안 민족을 말 살하시려던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상대를 까부수지 않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뽐뽐거려 봤자, 하나님의 의도와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주님은 태어났을 때, 수천 년 전부터 예언된 인물인데도 인정을 못 받으셨습니다. 하물며 불교가 성행하는 나라에서 개신교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어 감람나무가 나타났으니, 어떻게 쉽사리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나마 몇 해 만에 수십만이 모인 것도 파격적인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는 대단히 큰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좋아하셨는데, 이것이 거꾸로 돌아갈 때 하늘에서는 당황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 뒷수습을 해야 할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이 내막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2천 년 기독교 역사상, 하나님과 주님을 돕는다는 것이 믿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러나 내용을 알고 보면, 그게 사실이라는 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무릎을 꿇은 수십 만, 수백 만 기독교 신자들은 주님 앞에 달라는 것뿐이지, 주님이 뭘 필요로 하시는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필요로 하여 인간을 지으셨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날 저부터가 주님을 위해 이러저러한 일을 하라는 부탁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한 겁니다. 그것이 우리 역사입니다. 마귀는 다릅니다. 내게 희생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내 편만 되어 다오. 그러면 네가 원하는 대로 해 주겠다.” 했습니다. 주님은 정반대입니다.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을 당했으니, 이제 네가 날 위해 고생해 달라.” 하셨습니다. 나는 주님의 지시에 따라 오늘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 종을 따르는 여러분도 그런 섭리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Chapter 11.

삼손이 남긴 교훈



종교 운동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두 가지 양상을 띠게 됩니다. 폭발적으로 펼쳐지는 경우와 조용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그것입니다. 삼손이 사사로 등장할 무렵에 이스라엘은 대단히 어려운 지경에 있었습니다. 블레셋을 상대할 만한 여건이 전혀 조성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필요로 한 좋은 기운이 센 장사 삼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시켜 삼손이 태어날 때, 아기가 태어나게 되면 그 아기의 머리카락에 절대로 칼을 대지 말라고 그 부모에게 당부했습니다. [\(삿13:5\)](#) 그래서 그 부모는 자식이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하나님이 당부하신 내용을 자식에게 몰래 알려 줍니다.

머리에서 힘이 솟아나는 놀라운 이적은 하나님이 삼손에게만 허락하신 겁니다. 내가 성서에 있는 이런 말씀을 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 얘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걸 알아야 오늘 날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손을 대는 것과 달리, 왜 주의 종이 손을 대면 주의 것이 들어가는가를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머리를 아무리 길러도 힘이 나지 않는데, 삼손은 왜 머리를 기르면 기운이 솟아나는가? 그의 머리에는 하나님의 신이 연결돼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삼손의 머리와 비슷하게 길러도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기 때문에, 삼손과 같은 힘이 솟아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삼손의 머리를 깎지 말라고 그 부모에게 당부하신 이유는 삼손의 머리에 초능력을 주시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삼손의 머리가 없어지면 하나님이 함께하실 장소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에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기고 지는 것이 삼손의 머리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삼손의 머리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시는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만큼은 하나님의 능력이 삼손의 머리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삼손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도 아니고, 장사가 되고 싶어 된 것도 아닙니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인물이 돼 버린 겁니다. 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삼손을 이스라엘 민족의 무기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시대에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시지만, 당시에는 삼손의 머리를 무기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의 하나, 삼손의 머리가 손상당하게 되면 하나님도 그만큼 피해를 입는 겁니다. 삼손의 머리는 삼손의 것이 아닙니다. 그 머리 여하에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의 성패가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은 블레셋 군대를 상대하는 전쟁에서 삼손을 통해 이기고자 그의 머리에 함께하신 겁니다. 그 머리가 손상을 입으면 이스라엘이 블레셋 군에게 패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불리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삼손의 머리에 같이했기 때문에 블레셋 군이 삼손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런고로 블레셋은 큰일 났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나 — 그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블레셋 군의 뒤에도 신이 있습니다. 그 신은 당시에 우상화된 ‘다곤’이었습니다. 그 신이 블레셋 군을 돕고 있었습니다. 삼손은 물론 하나님이 돕고 계신 겁니다. 블레셋 군은 삼손하고 싸우기만 하면 자꾸 잡니다. 이것은 블레셋 군을 다스리는 신이 지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은 어디서 저런 힘이 나오는가를 캐내려고 했습니다.

이 비밀을 캐기 위해 마귀는 갖은 방법을 모두 동원했습니다. 그러나 여의치 않자, 당시에 삼손이 가장 사랑하는 들릴라라는 여인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여인을 블레셋 군이 매수한 겁니다. 그리하여 삼손의 힘을 꺾을 수 있는 비법을 찾아내게 했습니다. 들릴라는 삼손을 살살 꼬여 그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를 알아내려고 하지만 삼손은 탄소리만 했습니다. 밝히지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밝히는 날에는 죽습니다. 들릴라는 갖은 아양을 다

떨면서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드디어 실토를 했습니다. “내 초능력은 내 머리에서 나온다. 이 머리를 깎는 날에는 나는 힘을 못 쓴다.”

(삿16:17) 그 머리에는 여호와께서 함께하십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 비밀을 들릴라에게 알려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약속을 어기는 것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삼손은 결국 패하게 됩니다. 삼손만 패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눈 녹듯이 녹아 나갑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만 녹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은 삼손의 눈알을 빼내고 저희들이 섬기는 신을 앞세워 찬양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큰 타격을 주는 겁니다. 이것이 구약 시대에 있었던 하나의 장면입니다.

그럼 우리 역사는 어떠한가? 하나님은 제가 여러분을 대하기 전에 “이 시대에 나를 찾는 자가 네 손을 거쳐서 내게로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주의 종을 통해 안찰을 받습니다. 이 안찰의 비결을 마귀가 알게 되면 가로막습니다. “이영수가 안찰을 하니 우리도 하자.” 이렇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셔야 됩니다. 제삼자들은 그 내막을 모르기 때문에, 나더러 앞선 역사의 주인공을 흉내 낸다고 합니다. 흉내 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된다면 내가 하기 전에 누구나 다 했을 겁니다. 일찍부터 흉내 내는 것들이 많았지만, 다 도중하차하고 말았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실질적

인 특혜가 있습니다. 성경에 “그 손에 희한한 능을 주사, 그 손으로 안수하매 즉시 성령을 받더라.” (행19:6)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에 대한 얘기입니다. 당시에 아볼로에게서 복음을 배운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열심히 기도했으나, 이들은 성령이 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안수하자 즉시 성령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실질적으로 거룩한 세마포를 입게 하는(계19:8) 작업을 펼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 종의 손에 희한한 권능을 주시는 겁니다. 즉 그 손에 능력을 주셔서 다듬어 세우게끔 하십니다. 그럼 그 손은 일반인들이 흉내를 낸다고 됩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흉내를 내 봤자 형식에 그칩니다.

하나님은 블레셋 군을 쳐부수는 일에 삼손이 필요하여 그에게 극비의 전술을 제공하셨는데, 오늘날 성경에 예언된 감람나무 시대를 맞아 뒤를 이어 수보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마당에 그 주인 공에게 적당히 하게 하시겠습니까? 거기에는 삼손의 비밀은 비교도 되지 않는 엄청난 비밀이 있는 겁니다. 마귀가 알지 못하는 비밀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을 통해서 나가는 모든 것이 차단되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감옥이나 그 밖의 어느 곳에 갖다 놓아도 그것만은 차단시키지 못합니다. 삼손은 그 비밀을 들릴라에게 알려 줬기 때문에 차단을 당한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과 주의 종의 언약은 아무도 모릅니다. 또 알아서도 안 됩니다. “너만 알라. 이에 대해 입을 병긋하

는 날에는 네가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4만 4천이라는 수는 요한 계시록에만 나와 있습니다. 요한 계시록은 하나님의 역사를 마무리 짓는 말씀입니다. 어둠의 세력을 박살내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해야 합니다.(계21:1) 이것이 요한 계시록의 골자입니다. 그러므로 간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오래 따라도, 체계적으로 알지 못하면, 일반교회나 여기나 그저 그렇다고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은 눈만 뜨면 먹고살기에 바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실에 매달려 살아가야 합니다. 그건 무리가 아닙니다. 육을 갖고 살자니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종은 다릅니다. 여러분을 만나기 전부터 하나님과의 언약을 갖고 나왔습니다. 한 사람이 오든, 두 사람이 오든, 제가 하는 일은 하나님과 저 사이에 맺어진 언약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할 일입니다. 제가 할 일은 다른 교회처럼 부흥이나 시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저의 지상 과제입니다. 그 외에는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써봤자 주님이 합당하게 여기시지도 않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이 사명을 맡겨 주신 후에, “너는 나 여호와와 깊은 사정을 알았으니, 내게 필요한 하늘 군병의 수를 채워 달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내세우신 겁니다. 그럼 저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을 해야 합니다. 그걸 안 하는 날에는, 삼손이 괜한 짓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총을 다 날려 버

린 것처럼,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시험이 닥치면 주의 종이 밤잠을 못 자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이 지연되기 때문입니다. 주의 종은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있고, 지시 받은 것을 이 시대에 이루어 놓아야겠기에 고민하는 것입니다. 나 개인의 일 같으면 크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을 모르고 따르는 여러분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역사에 지장을 주는 일을 할 때, 주의 종은 몹시 걱정스러운 겁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괴로우나 즐거우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늘나라에 가서 약속하신 상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바울의 말대로 ‘죽으나 사나, 주의 것’(롬14:8)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부름을 받은 이상,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자기 자신이 잘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길을 막아 버립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고자 할 때 길이 열립니다.

오늘날 우리 역사에 들어오신 여러분이 희망하는 것은 세마포를 입는 것입니다.(계19:8) 세마포를 입는 사람은 어린 양의 아내가 됩니다. 우리 역사는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마포를 실제로 입게 하고, 그 수를 채우는 깊은 내막을 마귀가 알게 되면 한사코 휘방합니다. 그러므로 하늘 군병의 수를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내려고 마귀들이 엄청나게 애를 쓰지만, 턱도 없는 소리입니다.

세마포를 입으려면 진실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계17:14) 진실이란 주를 위해 가식이 없는 것을 가리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모든 면에서 주의 일을 제일주의로 삼아야 합니다.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너 나 할 것 없이 세상의 욕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나 깨나 주를 위하는 정신이 투철한 사람은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궁극적인 목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의 역사에 지장이 가든 말든 함부로 움직인다면, 하나님의 눈 밖에 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걸 잘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삼손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실 때 삼손의 머리에 함께하셨듯이, 이 시대에 하늘에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계시서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시는 겁니다. 이때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은 일반 백성들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체계가 필요한 겁니다. 체계가 서지 않으면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억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역사가 안고 있는 과제는 대단히 크면서도 조건은 전혀 없이 불리합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끌어 주시는 손길 속에서 오늘날 여러분과 함께 힘을 합쳐서 이 어지러운 세파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하나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는 삼손이 하지 말라는 말을 해서 실패한 것처럼, 그런 역사가 되어서도 안 되고, 앞선 역사처럼 성경을 왜곡하여 자

떨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면 지도자와 따르는 양떼들 사이에 놓인 담이 제거되어야 합니다. 불신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불신은 마귀가 틈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Chapter 12.

십자가의 군병이 되는 조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 베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 년 동안 왕 노릇 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 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 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계20:4-6)

본문에 대하여는 여러분에게 이미 설명한 적이 있으나, 오늘은 좀 더 깊이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알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일생을 애쓰고 기도해도 끝내 정확한 답을 받지 못

하고, 2천 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에 계속 죽어 갔습니다. 간단한 말씀인 것 같아도, 이 말씀 자체가 이루어져야 여호와와의 뜻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육적으로 아무리 들여다봐도 답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14만 4천이라는 말이 계시록에만 나와 있는 이유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에 올라가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을 떼시고 오늘 날 우리에게 새로운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14만 4천이라는 말 자체부터가 기독교인들에게는 생소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자의 수를 상징해서 말한 것이라고 막연하게 이야기하면서 2천 년 동안 목회자들이 얼버무려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14만 4천이라는 수를 왜 정했느냐고 물으면, 그것은 구원받는 자라고 대답하는 것이 고작입니다.

그 14만 4천이 어떻게 해서 정해지고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14만 4천은 지구가 생기기 전부터, 다시 말해서 인류가 탄생되기 전부터 하나님에게 필요한 하늘 군병의 수라는 것을 나는 이미 여러분에게 밝혔습니다. 그것은 불멸의 진리입니다.

역대의 하나님의 선지 성인들도 인류가 마지막에 이르는 순간, 즉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순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며, 어떻게 해야 그 뜻이 이루어지는가를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으면 그것으로 족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면 그것으로 기뻐했지, 인류의 마지막에 관한 문제를 생각할 여지나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메시아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 다윗이 영적으로 교류하면서, 인간이 죽으면 영혼을 마귀에게 빼앗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상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너도 죽으면 음부로 끌려간다.”는 통고를 받고 시름에 빠졌습니다.(시16:10)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하나님과 동고동락한 그가 죽음이 임박할 때 음부에 가야 한다는 통고를 받는 순간, 기가 막혔습니다.

선지자 다니엘도 천사를 통해 마지막 때의 광경을 보고, 깨닫지 못해, “이 모든 일이 끝나려면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하고 천사에게 물었습니다.(단12:8) 천사가 말하기를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크게 입었으므로 내가 마지막에 되어질 일을 가르쳐 주겠다.” 하고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신이 묻는 모든 내용은 당신도 알 수 없고 나도 모른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까지 인봉하라고 하셨노라.”고 했습니다.(단12:9) 이걸 종말에 관한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도 모르고, 당신도 알 수 없고, 알 필요도 없다. 당신은 조용히 있다가 때가 되면 당신이 고생한 대가를 받게 될 테니 가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니엘이 하나님의 종이로 하여 죽자마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마지막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은총을 크게 받은 다니엘이라고 분명히 말했는데도(단9:23) 죽자마자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기다리라는 겁니다.(단12:13) 하나님의 뜻이 먼저 온전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죽자마자 생명의 은총을 바로 받지 못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네가 음부에서 건짐을 받을 날이 온다. 너뿐만

아니라, 내 종들이 다 음부에 끌려가지만, 그들을 건져 내는 비결이 있다. 그 비결은 메시아의 강림이다. 그 메시아가 네 후손으로 태어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사는 자기가 죽으면 하나님이 데려가셔야 하는데, 음부에 간다고 하니 기막힌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나 다윗은 자기 후손으로 태어나는 메시아지만, 자기가 음부에서 버림을 받지 않으려면 그 메시아의 혜택을 받아야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가 간절히 바라는 소망을 글로 남겼습니다.

주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다윗의 위대한 것만 알고, 다윗이 그렇게 간절히 바란 메시아의 존재를 모르고 있다. 메시아가 바로 나다.” 하고 말합니다.(마22:43-45) 위대한 다윗도 메시아를 거치지 않으면 음부에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그 밖의 하나님의 선지 성인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린 보배로운 피권세가 없으면 그들이 고생한 대가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거치지 않으면 아무도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은 불멸의 진리입니다. 주님은 “너희 조상들이 이때를 보고자 했으나 못 보고 죽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13:17) “이 말을 하는 자를 만나고 싶었으나 못 만나고 죽었다. 너희 조상들보다 너희가 복이 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너희들이 얼마나 존경하는 인물들이냐? 그들도 너희들이 보는 나를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났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하늘나라에 못 간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찾았으나,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하나님을 찾아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게 되어 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하고 기도하는 방법을 바꿔 놓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당시의 사람들이 그 말씀의 내용을 알았느냐? 몰랐습니다. 어쨌든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신앙이 얼마나 힘들면 하나님의 아들도 기적을 일으켜 죽은 사람까지 살리면서 하늘의 도를 전하셨겠습니까?(요11:44)

여러분이 오늘날 ‘이긴자, 이긴자’ 해도 이긴자가 뭔지 잘 모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남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해서 뿔이 돋아나고 꼬리가 달린 게 아닙니다. 왜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가를 성서의 가르침에 의해 알아야지, 그걸 모르면 물위를 걸어 다니고 병 고치는 걸 봐도 소용없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병 고치는 사람이 없습니까? 눈이 세 개, 네 개 달리고, 머리가 네 개, 다섯 개 달렸다면, “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다르네.” 이랬을지 모릅니다.

지금 한국에도 1,000여 만이 예배를 보고, 전 세계에서 수억이 예배를 보고 있지만, 저 혼자만 이런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지상에서 하신 말씀을 토대로 해서 예배를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최고로 알고 있습니다. 계시록을 빼놓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14만 4천이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꾼 인으로 봉한 책에 대하여는 근황조차도 모르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왜 모르느냐? 주님이 이 땅에 계

실 때에는 일곱 인을 떼기에 합당한 분이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씀은 많이 하셨지만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의 내용에 대한 말씀은 한마디도 하실 수 없었습니다.

옛날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은 많지만, 현재의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있나, 찾아보십시오. 현재의 주님의 말씀을 따를 사람은 저를 따르고, 2천 년 전의 주님의 말씀을 따를 사람은 탄 데로 가시라, 그 말입니다. 신앙은 여기서 길이 갈리고 맙니다. 복잡하게 얘기할 것 없습니다. “하늘 위나 땅 위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이가 없더라. ...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계5:3-5)고 했습니다.

계시록에 기록된 14만 4천의 수가 하나님께 필요한 겁니다. 이것을 이 땅에 계셨던 주님도 모르고 계셨습니다.(계5:3) 더구나 역대 선지 성인들은 상상도 못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마귀를 까부수는 데 필요한 수이므로 때가 되기 전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공포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14만 4천을 하늘 군병으로 표시하지 않고, 인 맞은 자니(계7:4) 노래 부를 자니(계14:3) 하고 얼버무린 것입니다.

이제 다시 모두의 말씀을 설명하겠습니다. 목 베임을 받은 자들에 대해,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라고 했습니다. 옛날에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이런 지시가 왔습니다. 저런 지시가 왔습니다.” 해서 잡혀 죽고, 불에 타 죽고, 톱에 쳐 죽

고, 엄청난 수가 죽어 갔습니다. 신약 시대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하늘에 올라가신 다음에 은혜를 받아 목 베임을 당한 자들하고,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목 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이 각각 있습니다. 목 베임을 당했다는 것은 순교한 것을 가리킵니다.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이것은 2천 년 동안 숨겨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모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을 모르고 못 백성들이 2천 년 동안 죽어 갔습니다. 그럼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을 자격자는 누구인가? 이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녹명된 자들입니다.(계13:8) 에덴성회는 바로 그런 자들을 배출시키는 역사입니다. 그 자격자를 만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지상명령입니다.

주님이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다음, 목 베임을 당한 성도들의 영혼이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을 만나 원수를 갚아 달라고 했습니다.(계6:10) 왜냐하면, 주님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전권을 행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께 호소할 테지만, 주님이 모든 권한을 쥐고 계시므로 주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께서 그들에게 정한 수가 찰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계6:11)

이 시간에 그분들이 다 하늘의 지성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에 세마포를 입고 그곳에 가게 되면 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여러분을 맞이하여, ‘한 사람 들어왔으니, 몇 명이 남았구나!’ 하고 또 기다려야 합니다. 그곳으로 가신 여러분도 기다

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당부하신 것은 바로 그곳에 들어갈 수를 채우라는 겁니다. 나는 그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짐승에게 표를 받지 않는 조건이 뭐냐? 짐승이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다 표를 주는데, 그 짐승이 표를 찍으려야 찍을 수 없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걸 아는 자가 있으면 나와 보십시오. 여러분은 내가 이 정도로 정확하게 근사치를 밝혀 드리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차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필요로 하시는 것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을 자격자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순교가 아니고도 이긴자가 그런 자격자를 만들어 내는 비결이 주님과 이긴자 사이의 언약입니다.

이렇게 극비의 전략으로 주님이 요구하시는 수를 만들어 낸다는 것은 무기를 만드는 것과 비슷합니다. 무기를 만드는 방법이 적에게 알려지면 전쟁은 지게 마련입니다. 하나님과 악령은 엄청난 힘을 가졌지만, 인간이 조금만 도와도 승패가 갈라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엄청나므로 큰 힘을 써야 도와드릴 수 있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쪽과 이쪽이 비슷할 때는 조금만 협조해도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 역사를 보고, “얼마 안 되는 숫자를 갖고 뭘 한다고 그래?” —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노아가 하는 일이 그 시대에 비중이 있었습니까? 당시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산꼭대기에 방주를 짓는 것은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배가 세상을 끝내는 소임을 갖고 있는 줄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배가 만들어지니 세상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까? 멸망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수십만이 모여야 뭔가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시대에 주의 종이 하는 일은 짐승의 표를 이마나 손에 받지 않을 영적인 생명체를 만드는 겁니다.

Chapter 13.

알파와 오메가의 역사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
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창2:9) 이렇게 생명나무하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창세기 3장 22절에는 “여호와 하나님
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
니….’” 이것은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신 말씀입니
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한 계시록
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빼도 안 되고, 더해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계
22:18-19) 그러니까 요한 계시록을 그대로 읽어야지, 일곱 사자에
게 편지하지 않은 내용을 사람의 생각대로 더해도 안 되고, 일곱

사자에게 편지한 내용을 이해가 안 간다고 해서 빼도 안 되며, 만약에 이 말씀들을 어겼을 때에는 계시록에 기록된 재앙이 그에게 내릴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창조의 역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걸 누가 기록했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신학자들이 왈가왈부하다가 결론을 내리기를,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했다. 모세는 어떻게 알았느냐? 조상으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스라엘 민족의 행적을 토대로 하고, 또 이상 중에 보여주신 계시를 근거로 해서 기록한 것이다.’ — 이렇게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학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독교는 이쯤에서 덮어두고 있습니다.

일반교회에서는 창세기와 요한 계시록을 밀접하게 연관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창세기와 요한 계시록을 밀접하게 관련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덮어두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일반교회는 주님이 지상에서 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부흥 발전되면 할 일을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그분들은 창세기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든, 요한 계시록에 무슨 예언의 말씀이 나와 있든, 별로 흥미를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요한 계시록에 입각한 섭리 안에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 창세기나 요한 계시록은 그분들이 생각하는 차원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루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믿는 데 그치지 않고,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루어야 하느냐? 요한 계시록의 말씀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

럼 창세기와 요한 계시록이 어떻게 연관되는가? 창세기는 인류의 창조를 논하고, 요한 계시록은 재창조를 논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조를 받은 사람들이 재창조되는 과정을 알려면, 창세기와 요한 계시록을 깊이 상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재창조를 목표로 하는 우리에게 창세기가 하나의 역사서로서 끝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영적인 차원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창세기와 요한 계시록은 맥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인간에게 필요한 과일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와 요한 계시록에만 나옵니다. 창세기에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생명나무 실과’라는 말이 나오고, 요한 계시록에도 이긴자에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쥐 먹게 하겠다고 했습니다.(계2:7) 창세기를 알아야 요한 계시록을 알게 됩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시작과 끝이 긴밀히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시발점이 바로 종점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합니다.

은하의 세계는 수없이 많습니다. 1초에 지구 둘레의 일곱 바퀴 반을 도는 빛의 속도로 1년 가는 거리를 1광년이라고 하는데, 보통 한 은하계에서 다른 은하계까지는 몇 십만 광년을 가야 하고, 한 은하계 안에 속한 별과 별 사이도 엄청나게 멀다고 합니다. 이런 시대에 창세기를 논한다는 것은 좀 우스꽝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는 우주관을 말한 것이 아니라,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계를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는 태양계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우주

를 뜻합니다. 우주는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방대합니다. 창세기에는 인간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과 달이 뜨고 지는 것을 기준으로 밤이다, 낮이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지구가 태양계 안에 속해 있고, 태양계가 은하계 안에 속해 있습니다. 비유해 말하면 은하계 안에 속한 태양계는 저 망망한 사막의 바윗돌 하나에 불과하고, 지구는 모래알에 불과합니다. 이런 은하계가 수없이 많이 널려 있는 것이 우주입니다. 상상이 안 가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주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태양계만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창세기에는 태양계로 나와 있습니다. 낮과 밤이 있다, 연월일시가 있다, 다달이 어떻게 된다, 이걸 전부 태양계를 위주로 해서 기록한 겁니다. 인류가 태양계 안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창세기에 알기 쉽게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작은 분야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인간은 신을 헤아릴 수 없으므로, 어느 정도 알아듣게끔 하기 위해 그렇게 기록한 거다, 그 말입니다. 2천 년 전에 기록한 요한 계시록은 다릅니다. 그건 인지가 상당히 발달한 후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에는 근사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과학자들 중에는 ‘인류 역사는 분명히 수십만 년이 되는데, 왜 성경에는 6천 년이라고 돼 있느냐? 안 맞는다. 성경은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현대 과학은 지구의 나이를 산출해 낼 정도로 발달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류 문명의 발상지나, 발자취를 알아내는 것은 식은 죽 먹기입니다. 창세기를 기록할 당시의 지식수준하고는 판이합니다. 이런 시대에 나타난 주의 종은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사람이 활약하던 시대의 종들하고는 다릅니다. 당시에는 지구가 평평하고, 하늘은 지붕이고, 어느 지점에 가면 낭떠러지가 있어서 아래로 깊숙이 뚝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눈으로 봅니다. 지구만이 아닙니다. 다른 천체도 비교적 소상히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있는 그대로의 어마어마한 권능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하고 교류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보다 힘이 조금 강한 존재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실제의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모습을 축소시켜 가지고 사람에게 접근하시는 겁니다. 그 내용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하나님의 전모가 밝혀진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게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적인 문제에 대해 다소 보충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주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이를 말이 많으나, 너희들이 감당치 못한다.”(요16:12)고 말씀하셨습니다. 할 말이 많지만 얘기해 봤자 알아듣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럼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귀하겠습니까, 못하신 말씀이 귀하겠습니까? 당연히 못하신 말씀이 더 귀한 겁니다. 그 시대에 백성들이 감당할 수 없는 얘기는 주님이 입 밖에 내지 못하시고, 그 시대에 감당할 수 있는 얘기만 하셨기 때문

에 성경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가 주님에 대해 가르칠 때에, “주님이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 사실 이겁니다.” 하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저 주님이 일반인들에게 하신 말씀만 가지고 신학 박사도 되고, 그 말씀만 가지고 선교사로서 활약하다가 죽었지, 주님이 다른 보혜사에게 미룬 말씀(요16:13)을 전하는 자가 기독교 역사상 없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내가 최초로 여러분들에게 조심스럽게 터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계시록은 누차 말씀드린 대로, 주님이 하늘나라에 올라가 여호와와 우편에 앉아, 사도 요한에게 지시하신 내용입니다. 사도 요한은 당시에 나이가 많아 백발이 다 된 사람입니다. 이때 요한을 부른 것은 앞으로 이긴자가 나타나 주님을 대신하여 역사하게 된다는 것을(계3:21) 믿는 사람들에게 전해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고전15:51) 하고 말했습니다. 비밀이란 감추어진 말씀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은 성경에 이미 다 개봉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들은 얘기들입니다.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말씀하시지 않았던 내용을 직접 지시 받았다.”(엡3:3)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지 않은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단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은 것을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단이 안 됐습니다. 바울

의 말이 오늘날 성경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 이것은 내가 어떤 사람의 가르침을 받은 것도 아니고, 전해 내려오는 얘기도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말씀도 아니고, 오직 영광의 주님이 나에게 계시로 가르쳐 준 비밀이니, 이 말씀을 거짓말이라고 하여 천사가 와서 왜곡시킨다 할지라도 그 천사는 주의 저주를 면치 못할 것이다.”(갈1:8 참조) 하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요한 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내용을 이루어 나가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요한 계시록의 내용이 주님이 이 땅에 계실 적에 하신 말씀이라면, 일곱 교회에 편지를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요한을 통해서 강조하시기를, “내가 전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노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니라. 나는 우주를 지을 때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그대로 있느니라. 이제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너 요한은 내가 새로 전하는 말을 기록하여 일곱 교회에 전해야 한다. 내가 네게 보여준 대로 써 보내라.”(계1:17-20) 이렇게 주님이 강조했습니다.

창세기가 알파라고 하면, 요한 계시록은 오메가가 됩니다. 요한 계시록은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쫓겨났으면 돌아가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 중간에 무수한 변화가 있어도 시작과 끝은 같아야 합니다. 그래야 제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끝을 알려면 시작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에덴동산의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주님은 요한 계시록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계1:3) 하고 사도 요한에게 강조하셨습니다. 만일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말씀보다 계시록의 말씀이 중요하지 않다면, 구태여 요한에게 이렇게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못하는 자들은 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 계시록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상관이 없는 데, 이루어질 때에는 그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복이 없는 쪽이 돼 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갈라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할 말이 많으나, 못하고 간다. 그러나 다른 보혜사가 오면 얘기를 할 거다.”(요16:12-14)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 주님이 이상 중에 요한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런데 요한의 눈에는 이 땅에 계셨던 주님과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요한은 해같이 빛나는 분을 보고는 깜짝 놀라서 까무러쳤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죽은 자같이 됐다고 말했습니다.(계1:17)

그런데 조금 있다가 까무러쳐서 엎드린 사도 요한의 머리를 다 정성스럽게 쓰다듬으면서 “염려하지 말고 일어나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계실 때 자기가 직접 섬기던 주님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주님인 줄 알게 된 것입니다. ‘아, 이 분이 내가 지상에서 섬겼던 주님이구나.’ 하고 생각할 때, 주께

서 설명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네가 본 바를 글로 써서 일곱 교회의 사자들에게 전하여라.” 이것이 요한 계시록입니다. 즉 요한 계시록에는 영광을 받으신 주님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은 요한에게 앞으로 될 일이니, 기록해서 일곱 교회에 보내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오늘날 주의 종에게는 “2천 년 전에 요한이 이렇게 기록한 내용이 네가 해야 할 일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너는 내가 요한에게 내린 지시를 이루는 종이므로, 이렇게 해 다오.” 하늘에서는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시하신 분은 주의 종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움직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종들을 택하실 때에는 으레 이렇게 하십니다.

호렙산에서 목동으로 양을 치던 모세가 어느 날 가시떨기나무 가운데서 갑자기 불이 타는 것을 보았는데, 그 안에서 음성이 들려 왔습니다. “모세야!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는 무릎을 꿇고 듣습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신을 벗어라.” 이진 무슨 뜻이냐 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네가 이제부터 거룩해졌으니, 네가 딛고 다니는 땅은 다 거룩하다.’는 겁니다. 이처럼 거룩하고 깨끗한 곳에는 신발이 필요 없습니다.

이건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것을 네가 해야 된다. 그러니 너는 이제부터 내가 지시하는 대로 바로에게 가거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이러나 모세가 하는

말이 “저는 말도 할 줄 모르고 애굽에서 사람을 쳐 죽여서 살인자로 수배 되어 도망쳐 나왔습니다. 제가 거기 가면 잡아 죽이려고 할 텐데, 제가 어떻게 갑니까? 못 갑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이놈, 입을 누가 지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네가 입이 둔해서 말을 못한다고 하지만 그건 나 여호와께 맡겨라.”

“저는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명하는 건 자신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손에 든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걸 던져라.”

던지니까 갑자기 뱀이 된 것입니다. 모세가 깜짝 놀라서 뒷걸음을 칩니다.

“다시 잡아라.”

모세가 다시 잡으니까 지팡이로 변했습니다. 모세가 신기해서 얼떨떨할 때 “바로에게로 가거라.” 하고 하나님은 지시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모세가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가라는 겁니다.

“감람나무 역사를 나는 오랫동안 기다렸다. 그게 무너져 나갔다. 내 심정을 알겠느냐?” 주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입니다. “앞선 역사의 주인공이 안찰한 것처럼 너도 안찰을 하여라. 물을 떠놓고 입김을 불면 앞선 역사에서처럼 생수가 되느니라.” 하나는 서서히 거두어 버리고, 하나

는 뒤따라와서 오늘날 이렇게 정착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위적으로는 안 됩니다. “알곡성전을 건축해라.” 해서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건축했습니다. 이것 해라, 저것 해라, 하면 그대로 실천합니다.

창세기는 시작이고, 요한 계시록은 이루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전자는 출발이고 후자는 마무리 짓는 겁니다. 에덴동산에서 쫓겨났다면, 다시 들어갈 장소도 역시 에덴동산이 되어야 합니다. 재창조되어 다시 들어갈 때의 모습은 아담,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의 모습과 같아야 하는 겁니다.

아담,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즉 하나님과 방불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권사님이나 집사님 한 분이 돌아가셔서 영의 생명체로 변하여 옛날의 아담같이 만들어졌다고 할 때에는, 그 권사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과 비슷합니다.

아담,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조물주와 피조물의 관계만 다르지, 형상은 같습니다. 그러면 죄악에 물든 인간이 죄악을 벗어 버리고 그 영체가 옛 아담, 하와처럼 재창조된다면 그 영체는 하나님과 비슷해지는 겁니다. 물론 처지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이쪽은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창조는 받았을지라도 형상은 비슷한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범죄하기 전의 아담, 하와처럼 정결함을 입어서 영이 하늘나라로 가게 될 때에는 ‘하나님도 나와 비슷한 형상을 하고 계시겠구나.’ 하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영의

생명이 주의 피로 이루어지면 주의 형상을 닮습니다. 그러나 어둠에 물들면 마귀의 형상을 닮습니다. 주의 형상을 닮아야 빛에 적응할 수 있고, 마귀의 형상을 닮아야 어둠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주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어둠 속에 가도 살지 못하고, 마귀의 형상을 닮은 자는 빛의 세계에 와도 살 수 없습니다. 빛과 어둠은 섞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영이 바로 그렇습니다. 주의 종이 지상에서 여러분의 속사람을 주의 피로 이루어지게 하면 주께로 가게 되고, 그걸 만들어 놓지 못하면 여러분을 어둠이 끌고 가도 속수무책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에게 올 수 있는 자격자를 만들라는 겁니다.

말로만 만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만들 수 있는 재료를 주십니다. 그래서 안찰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이러한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서 이루어 나가는 시대를 마귀는 구경만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사코 휘방합니다. 그리하여 만들려고 하는 자와 못 만들게 하는 자의 치열한 싸움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이것이 오늘의 우리 역사입니다.

바울은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후4:16)고 했습니다. 그는 백발이 되어서 순교를 눈앞에 두고, “이제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노라. 내 앞에는 영광의 면류관만 남았다.”(딤후4:8)고 말했습니다. 지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이긴자의 슬하에서 은혜를 받다가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주님의 영접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분에게는 바울이 말한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Chapter 14.

사단의 깊은 내막을 알라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계2:24-25)

오늘날 주의 종은 여러분에게 일반교회에서 숭상하는 복음도 아울러 전하지만, 하나님과 마귀의 깊은 사정을 여러분의 뇌리 속에 심고자 무던히 애쓰는 것을 여러분들은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마귀가 뭐냐? 천사가 교만해서 마귀가 됐다고 말하는 것이 일반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일반 교인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위주로 하고, 마귀라는 존재는 부각시키지 않았습니다. 부각시킬 필요도 없었고, 또 하나님은 마귀의 깊은 내막을 사람들이 알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때가 때인 만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창세 때부터 마귀가 아

담, 하와를 피어내는 장면과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지어 놓으시고 주의를 주시는 장면을 누차 여러분에게 상세히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이 밝혀지지 않으면 오늘날 제가 하는 말이 여러분에게 믿어지지 않고, 또 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여러분이 결코 그렇게 쉽게 깨달을 수 있는 얘기들이 아닙니다.

주님이 “사단의 깊은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하고 말씀하셨으니, 주님은 사단의 존재를 깊이 의식하고 계셨던 겁니다. 사람들은 성경에 마귀의 유래가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사가 교만하여 하나님이 내쳐서 마귀가 됐다는 겁니다.(겔28:14, 사14:12, 유1:6)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입니다.(히1:14) 천사가 하나님이 부리는 정도의 존재에 불과하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마귀라는 존재는 별 볼 일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이제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일반교회에서는 2천 년 동안 천사가 범죄하여 마귀가 되고, 주님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을 밝히는 제 설교가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비진리가 되고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천사는 한두 명이 아닙니다. 천사장들이 수많은 천사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까짓 천사가 범죄하여 떨어져서 마귀의 역할을 한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과연 마귀가 별 볼 일이 없는 존재인가를 여기서 봐야겠습니다. 천사가 사람보다도 먼저 지으심을 받았다가 범죄하여 떨어졌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천사 대 천사끼리는 사실상 적수가 되

는 겁니다. 즉 대등한 입장에서 얼마든지 싸울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천사의 모습으로 지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천사와 사람 중에 비중이 누가 더 크겠습니까? 사람이 훨씬 더 큼니다.

지금 범죄하기 전의 아담과 하와, 즉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당부를 어겨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단이 아담을 범죄하게 했으므로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요한 계시록에 옛 뱀이요, 사단이라고 했습니다.(계12:9) 뱀은 곧 사단이요, 마귀입니다. 그럼 뱀이 아담, 하와를 꼬였다면 누가 꼬인 겁니까? 사단이 꼬인 겁니다. 마귀가 공작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이 사람을 이긴다면 천사는 당연히 이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천사에게 “만물을 다스려라.” 하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담에게는 “네가 모든 생물을 다스릴 터이니, 네가 일컫는 대로 이름이 될 것이요”(창1:28, 2:19)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근원부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은 천사보다 못했습니까, 더 컸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천사보다 더 큰 존재였습니다. 이 존재를 사단이 꼬여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즉 천사보다 강한 세력을 꺾었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과 악령은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지배를 받던 여러분을 주께로 끌어들이기 위해 안찰을 할 때,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싸우는 겁니다. 악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안찰을 받을 때 성령과 부딪쳐서 까무러치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주의 종이 손을 대면 안찰 받는 사람의 눈동자가 돌덩이처럼 굳어 버립니다. 그 순간 충격에 의해 뇌신경이 마비되고 속이 울렁거립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마귀는 나를 감옥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 납치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주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을 내가 사람들에게 연결시켜 주는 것은 마귀가 막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나를 무서워하는 겁니다. 다른 건 다 차단시킬 수 있어도 이것만은 차단을 못 시킵니다. 그래서 안찰을 받는 사람한테는 마귀가 속수무책입니다.

이처럼 제게 온 사람을 어쩔 수 없이 놓아줘야 하기 때문에 마귀는 사람이 제게 못 오게 막으려고 합니다. 또 사람이 내 슬하에 있는 한, 마귀가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 슬하에서 끌어내어 삼켜 버립니다.

동물의 왕국에 보면 솔개가 다른 짐승의 새끼를 잡아먹으려고 할 때, 그 새끼를 어미한테서 떼어 놓으려고 합니다. 어미가 새끼를 보호해 주면 솔개가 덤벼들지 못합니다. 이 경우에 솔개는 어미가 여러 마리 새끼에게 이것저것 신경을 쓰게 합니다. 그래서 어미가 이리 가고, 저리 가게 하여 어미와 떨어져 있는 새끼를 낚아채어 버립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을 삼키려는 마귀는 여러분을 지

켜 주는 이긴자의 슬하에서 먼저 벗어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삼켜 버리는 것입니다.

사단은 천사가 범죄하여 마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인데, 천사가 범죄하여 장난쳐 봤자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 시대를 제가 누차 설명하는 겁니다. 사단이 주님을 시험할 때, 우습게 여겼다고 말입니다.(눅4:7) 그것은 영적인 차원에서 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주님은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계2:24) 사단은 마귀입니다. 그 마귀에게 깊은 사정이 있다 이겁니다. 마귀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주님과 믿는 사람들만 있어서 서로 교류한다면 하나님도 좋으시고, 주님도 편하시고, 믿는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마귀와 사람들이 삼각관계에 있을 때에는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뜻을 이룰 수 있었다면 아담, 하와를 지으실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사명은 천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일 부리는 영인 천사들을 시켜 대적인 마귀를 무찌를 수 있다면, 구태여 사람을 지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사람을 지으시고도 걱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말입니다. 이처럼 주의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걱정하

신 대로 골칫거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의 식구만 제외하고 홍수로 인간을 멸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시의 심정을 말 씀하셨습니다. “내가 왜 사람을 지었단고.” (창6:6) 하나님이 한탄하신 겁니다. 이걸 뭐냐? 하나님이 마음대로 사람을 다루실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만 있으면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안 되는 이유는 마귀 때문 입니다. 이걸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하려면 마귀를 없애 버려야 합 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마귀를 발등상 시킨다는 말이 나옵니다.(시 110:1, 행2:35, 히10:13) 주님은 승리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늘나라 에 가셨지만, 마귀가 발등상 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마귀가 발등상 되게 하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은 무슨 뜻 입니까? 주님이 직접 하십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겁니까? 주님이 직접 하신다면 기다린다는 말이 해당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는 이 말씀에서 주님이 직접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가장 큰 소원은 마귀가 발등상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하늘에서 마귀가 발등상 되기를 기다 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원은 마귀 발등상 되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 잘 먹고 잘사는 것입니다. 또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은 소원, 그 밖에 별 소원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소원이 하나입니다. 마귀가 발 등상 되게 하는 것, 그게 주님의 소원입니다. 누구나 자기의 소원

을 이루어 주는 사람이 그에게 가장 큰 은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제일 고마운 자가 누구냐? 두말할 필요도 없이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게 된 동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의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건 나중 얘기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시려고 지상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죽게 생겼다. 너희들이 도와다오.” 이런 부탁을 안 하십니다. 왜 안 하시느냐? 그들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창세 전, 인간들을 짓기 전에 저와 같이 영광을 누렸던 시절을 생각하십시오.” 이것이 사람들 앞에서 행한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내가 지금은 죄인의 형상을 입은 인간이지만, 사실은 아버지와 함께 있던 영화의 주인공이 아닙니까? 그때처럼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요17:1)

그 다음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갈등을 겪으면서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셨습니다. “아버지,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당신의 뜻을 압니다. 그러나 이것을 내가 당하지 않고도 될 수 있는 길이 없겠습니까?” 타협을 하는 겁니다. 당사자끼리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해당치 않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러 오셨으니까. 이때 하나님은 주님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

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려움을 겪으면, 여러분하고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20여 년 동안 일해 오면서 어려움을 당하면 주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여기 나온 건 그 분이 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에게 따져야 합니다. “내가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하니 이런 어려움이 옵니다.” 하고 주님께 말씀을 드려야지, 딴 데는 통하지 않습니다. 세상일이라면 세상적으로 따지겠습니다만 제가 하는 일은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준행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뜻이 뭐냐?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림으로써 사람들을 마귀의 손에서 건져 내는 조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을 마귀의 손아귀에서 빼앗아 와야, 하나님의 큰 경륜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을 가리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바친 거룩하신 자여”(계 5:9)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대가가 뭐냐? 바로 여호와 우편에 앉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긴자에게도 약속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계3:21)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사회에 살다가 “못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게 하는 주의 종이 되어야지.” 하고 나왔다면 문제가 다릅니다. 저는 그렇게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 저에게 지시하신 겁니다. “너는 이제부터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라.”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뜻을 준행하러 나온 것입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저

한테 부탁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걸 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도 하나님이 시킨 것을 이루시기 위해 사신 것입니다. 그걸 아버지의 뜻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제가 하는 일은 주의 뜻입니다. 272장 찬송 부릅시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빛으사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제가 옥중에 있을 때 많이 부른 찬송입니다. 저는 주님이 지시한 대로 그 뜻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설교를 할 때, 저 혼자 마음대로 “제가 하는 게 주의 뜻입니다.” 하고 떠든다면, 여러분이 들을 가치가 없습니다. 주님과 저 사이에 오가는 교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가 설교하는 이 시간에 주님이 저에게 성령을 보내 주고 계십니다. 이 설교가 주의 말씀이라는 것을 성령이 보증하는 겁니다. 안찰할 때에도 주의 성령이 여러분과 같이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세상이 나를 갖가지로 매장시켜도 이것만큼은 빼앗아 가지 못합니다.

지금 밖에 나가서 수많은 교인들에게 마귀가 뭐냐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마귀를 우습게 얘기합니다. 마귀를 발등상 시킨다는 말은 이단이나 하는 허튼 소리로 듣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주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다른 것은 모릅니다.

여러분, 앞선 역사가 사람이 한 것이라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경에 예언된 감람나무 역사였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그 역사는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성령이 하신 겁니다. 그게 잘되고 못되는 것이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령과 악령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요한 계시록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 감람나무가 나타나라, 이긴자가 나타나라, 그럼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신 언약들이 이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언약이 이루어지다가 아담, 하와처럼 사단에게 먹혔다면, 문제는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경우처럼 싹쓸이를 하든가, 아니면 여호수아의 때처럼 또 다시 세우던가, 양단간에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감람나무는 하나가 아니고 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신창이가 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오늘과 같이 이 역사를 이어가고 계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악령과의 싸움에서 빛어지는 현상입니다. 겉으로는 평온하게 보일지 몰라도, 빛과 어둠의 싸움은 지금도 치열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바, 마귀를 발등상 시키는 작업을 하려면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무관한 게 아니라, 전쟁이 일어납니다. 요한 계시록에 나와 있는 두 감람나무는 상대방에게 도전을 하는 겁니다.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왜? 원수를 발등상 시켜야 하니까.

전쟁을 하려면 상대방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긴자가 나타나면 이러한 무기를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 계시록 2장, 3장의 약속입니다. 이긴자가 나타나면 이러저러한 은혜와 성령을 주시겠다고 했으면, 그것은 마귀와 싸우라고 주시는 무기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마귀를 이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쟁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은 악령과의 싸움입니다. 즉 마귀하고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그 역사를 이루어 가는 주의 종 사이에는 극비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전쟁을 하려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군대를 키워야 합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군대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마귀를 멸망시킬 수 있는 군대를 키워 달라 이겁니다. “그 군대를 키우는 재료와 방법은 너한테 가르쳐 줄 터이니, 네가 군대를 키워서 하나씩 하늘나라에 들여보라.” 하신 겁니다. 그럼 그 군대를 이끌고 나중에 마귀를 완전히 쳐부수겠다는 겁니다.

그 군대가 많이 배출될수록 마귀가 불리하게 되니, 마귀는 그 군대를 키우지 못하도록 가로막습니다. 전쟁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없으면 싸울 엄두도 내지 못하고, 항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힘이 남아 있으면 끝까지 싸웁니다. 이때에는 서로가 피해를 보게 됩니다.

성경에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계2:10)고 했습니다. 기독교는 적당하게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목숨을 거는 종교입니다. 그러니 진

실한 자 한 사람을 키워 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재료를 갖고, 사단의 깊은 사정을 알고, 주의 안타까운 심정도 알고서 이렇게 20여 년을 가르치는데도 똑똑 잘려서 떨어져 나가는데, 그걸 들어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1,000만이 있으면 뭐하고, 1억이 있으면 뭐합니까? 다 겹돌다 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악령이 유난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힘든 겁니다. 이 세상은 주의 것이 아닙니다. **(눅4:6 참조)** 어둠이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어둠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빛을 가지고 하나하나 심어 나갑니다. **(요1:5)** 자기 세계에서 만들어도 어려운데, 남의 세계에 가서 남의 사람들을 빼앗아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힘이 듭니다.

나는 일반교회 목사들처럼 성경을 공부하여 주님을 증거하고, 옛날 선지자들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아버지! 아멘. 할렐루야.” 하며 존경받는 목회자하고는 다릅니다. 그건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나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들과는 다른 차원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를 따르는 양떼들도 믿는 방법이 달라야 합니다. 내가 여기에서 가르치는 대로 따라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 내 음성을 듣지 않는 자는 내 양이 아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Part 03.

하나님의 뜻을 따라



15. 어린 양의 생명책에 녹명되려면 · 16. 진리로 싸우라 · 17. 항상 깨어 있으라! · 18. 하나님의 요구 조건 · 19. 사후의 갈림길에 대하여 · 20. 인간이 거룩해지려면 · 21.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라

Chapter 15.

어린 양의 생명책에 녹명되려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졌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 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 주매, 각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계20:11-15)

우리가 요즘 영의 세계를 논하는 가운데 지상에서 흔히 말하는 지옥에 대해 고찰하고 있습니다. 지옥이 무엇이나 하고 막상 물으면 기독교 신자들도 지옥은 형벌 받는 곳이다, 죄인들이 가서 쫓겨갈 처지는 곳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 그렇게들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천국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천국은 선한 일을 한 사람이 가서 영화를 누리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언뜻 듣기에는 이해하기가 쉽고, 또 거기에 대해 더 이상 알가알부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 계시록에는 주로 장차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이 말씀도 그렇습니다. “땅과 하늘이 간 데 없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는 하늘과 땅을 말하는 것이고, 요한 계시록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늘나라가 이루어졌을 때에 성도들이 보는 땅과 하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모든 죽은 자들이 무론 대소하고 보좌 앞에 섰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 이 사람은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지옥에 갔다, 저 사람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천국에 갔다, 이렇게들 말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종지부를 찍는 일이면서도 다시 영의 세계의 시작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일반인들에게는 영의 세계가 아무렇지 않게 느껴질지는 몰라도, 영의 세계를 소망하는 신앙인들에게는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나는 방금 그동안 기독교는 지옥을 죄지은 자들이 죽자마자 가서 고통을 당하는 곳으로 알고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즉 거기가 암흑세계가 됐든, 뜨거운 불 구렁텅이가 됐든, 마귀가 죄인을 끌어다가 형벌을 가하는 곳을 지옥이라고 알았던 것입니다. 또 오늘 날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방금 여러분에게 읽어 드렸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 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니...” 여기에 사망과 음부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사망과 음부 자체가 바로 불 구렁텅이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음부는 마귀가 다스리는 세계입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지옥, 즉 불 구렁텅이가 음부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의 세계에 있는 줄로 알았습니다. 마귀가 다스리는 세계가 음부고, 음부 자체가 불 구렁텅이에 들어가는 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지옥)이라고 했으니, 음부 안에 지옥이 없다는 것을 성서에 의해 알 수 있는 겁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보좌 앞에 책들과 책이 펼쳐 있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보좌 앞에 불러 나옵니다. 그리하여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 구원을 받을 자는 하늘나라에 가고, 멸망을 받을 자는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때 이루어지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중에 누구는 죽어서 세마포를 입게 되어 지성소로 가고, 누구는 세마포를 입지 못해 음부로 갔다고 칩시다. 지성소와 음부는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음부로 간 영들은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음부 자체가 불 구렁텅이로 들어가는 판이기 때문입니다.

세마포를 입은 영들이 가는 곳은 하늘나라의 지성소니까, 이들은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받아야 하는 영들이 가는 곳을 음부라 하고,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되는 영들이 가는 곳을 지성소라고 합니다. 영이 이렇게 갈라집니다. 따라서 구

원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심판을 거치지 않는 구원과 심판을 거치는 구원이 그것입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맡겨 주시면서, “음부가 너를 다스리지 못한다.” 하고 말씀하신 것은, “너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지옥에 가고 안 가는 것은 심판이 베풀어진 후의 일입니다.

그럼 심판이 베풀어지기 전에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기에, 심판이 베풀어져야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다니엘이 이에 대해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네가 알 바가 아니니 봉합하라.”(단12:9) 해서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다니엘에게 말했습니다.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대군 미가엘이 일어나서 엄청난 전쟁이 시작되는데, 그 전쟁은 창세 이후로 보지 못한 전쟁이라는 것이었습니다.(단12:1) 그런 엄청난 전쟁이 일어난 후에야 하늘의 별같이 빛나는 영광을 취할 자들도 있고, 죄값으로 엄청난 형벌을 받을 자들이 구분된다는 것입니다.(단12:2) 주전 600여 년에 선지자 다니엘에게 천사가 한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 구절씩 상고해 보겠습니다. “죽은 자들이 무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했습니다. 읽어 드린 본문의 책들은 복수니까 많다는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녹명된 세마포를 입은 자들은 14만 4천 명입니다. 이 14만 4천 명은 멜기세덱의 반열에 속한 사람들로, 의

(義)의 왕들이자 대제사장입니다. 왕은 백성 없이는 있을 수 없습니다. 만 명이 됐든, 10만 명이 됐든, 백성이 있어야 왕이라는 권좌가 생기는 겁니다. 14만 4천 명의 왕이 생긴다는 것은 14만 4천 개의 국가가 형성되는 것을 뜻합니다.

지금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는 57억 인구가 170여 개 국가를 형성하고 있는데, 그중에 중국은 12억입니다. 우리나라는 남북을 합쳐서 약 7천만이고, 대한민국만 해도 지금 4,300만(1997년 기준)입니다. 14만 4천 개의 국가가 형성된다면, ‘무슨 나라가 그렇게 많아’ 언뜻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의 세계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세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보다 더 방대합니다.

우주 안에서 먼지에 불과한 지구에도 170여 개 국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영의 세계의 14만 4천 국가는 결코 많은 것이 아닙니다. 이 영들은 육체보다 백 배, 천 배 세밀합니다. 지금 우리 육체는 곤장을 몇 대 맞으면 뺨이 빨개지고 그 이후에는 아픈 것을 모릅니다. 영의 세계는 까무러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곤장 백 대 맞는 것보다 백 배 아파도 그대로 당해야 합니다.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 없습니다. 그게 영의 조건입니다.

의(義)의 왕 권세를 가진 자는 책과 책들을 소유하게 됩니다.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합니다. 그 사람은 언도만 내립니다. “너, 이런 죄를 지었지? 이 나쁜 놈아!” 하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심판할 때, “김 말뚝이나? 너는 하늘의 법 몇 조, 몇 항에 의해 어느 지옥으로 가라.” 하고 판결했다면 14만 4천 국가니까, 한 국가마다 지옥이 하나씩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세계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14만 4천의 왕들이 심판을 베풀 때에, 만일 첫 번째 왕의 책에 성령을 훼방한 죄를 지은 자가 있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14만 4천 번에 속하는 왕도 보니까 성령을 훼방한 자가 와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훼방한 죄인에게 해당하는 지옥에 던집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훼방한 자는 어디서 심판을 받든 같은 지옥에 끌려갑니다. 성령을 훼방한 죄값도 큰 자와 작은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지옥에 떨어져도 행한 대로 보응을 받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에 차이가 있습니다.

영의 세계는 정확한 것입니다. 그건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지옥 불이라는 것은 뭐냐?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한 자, 마귀의 지시를 받은 자들에게 고통을 주는 겁니다. 마귀의 손아귀에 있는 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줄 수가 없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목 베임을 받은 영들이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원수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언제까지 하시려나이까?” (계 6:10) 하고 질문하니까 주님이 흰 두루마기, 즉 세마포를 각자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세마포가 뭔지 모릅니다. 그냥 광채가 나니까 흰 두루마기를 줬다고 했는데 그게 세마포입니다. 그걸 주님께서 나눠주시면서, “너희와 같은 자들의 그 수가 차기를 기

다려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와 같이 순교당한 자들의 그 수가 차야 원수를 갚기 위해 지옥에도 던질 수 있다 그 소리입니다. 음부의 권세를 빼앗아야 심판을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지성소에 가 있는 영들이 지상에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말도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건, 속된 말로 새 밭의 피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괴롭힌 자들에게 원수를 갚고 싶은 겁니다. 그렇지만 기다려라 이겁니다.

영의 세계에서는 보복이 대단한 겁니다. 이 지상에서는 원수 갚는 거야, 총으로 ‘탕!’ 쏘 죽이면 끝나지만, 영의 세계의 보복은 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나 여호와에게 맡겨라.” (롬12:19)

그럼 “책들이 떠 있다.”고 했으니, 이 책들에 기록된 대로 형벌을 받을 때에, 가령 어떤 사람이 80%의 악을 행했다고 하면 80%의 죄값으로 이에 해당하는 고통을 당하는 지옥으로 끌려갑니다. 심판은 여러 군데에서 하는데, 형벌은 한 군데서 받습니다. 같은 지옥에서도 고통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행한 대로 보응을 받기 때문입니다. (잠24:12)

그런데 심판하는 왕이 자기 마음대로 “너는 지옥이다.”, “너는 천국이다.” 하고 판결한다면 책들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심판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왕들은 책에 기록된 대로 언도를 내립니다. 그럼 책들은 누가 기록하느냐? 심판은 왕이 하는데, 책들을 기록하는 자가 있어야 할 게 아닙니까? 책들은 14만 4천의 왕들이 기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누가 뭘 했는지 모릅니다. 단지 책만 보고 기록한 대로 심판하는 겁니다. 그 기록을 바로 천사들이 하는 것입니다.

“한 돌에 일곱 눈이 박혔으니, 모든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슥3:9)고 했는데, 정하고 제하는 것은 천사들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안찰할 때 천사들이 움직입니다. 천사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 먼 곳에서 성령의 은혜가 오지 못합니다. 내가 생수를 만드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가 움직이지 않으면 생수로 변하지 않습니다. 시체에 생수를 바르면 부드럽게 변하는 것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천사가 시체 앞에서 마귀와 싸워 주기 때문입니다. 거저 되는 게 아닙니다.

계시록에 보면, “죽은 자들이 무론 대소하고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퍼졌으니, 곧 생명책이라.”(계20:12) 이 생명책에는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이 기록되어 있으며, 이 책은 14만 4천의 명단이 기록된 ‘어린 양의 생명책’(계21:27)과는 다릅니다. ‘책들’에는 지옥에 보내어질 존재들이 행한 대로 받을 벌이 쓰여 있습니다.

왕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반열대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반열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차례대로 서열이 정해집니다. 역대 하나님의 종들 치고, 그런 것을 구분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건 상상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제가 말로만 떠들어 놓고, 여러분이 돌아가시면 그것으로 끝장이라면 제 말

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영의 세계가 어떻다는 걸 제가 아무리 많이 알아서 여러분에게 설명 드려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허튼 소리에 불과합니다.

생명책에 기록이 되려면 천사의 기억을 받아야 합니다.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는 천사가 있고, ‘책들’에 범죄만 기록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이 천사들은 모든 인간들의 소행을 다 조사해 왔습니다. 한편 14만 4천은 멜기세덱의 반열에 속하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천사가 체크하지 않고 주님이 직접 정하십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합니다. 이 생명책은 주님이 태초부터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이름이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한 겁니다.(말3:16) 모세는 자기의 이름이 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올려 있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통고를 받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려움을 겪을 때 “여호와여,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저주를 내리실 바에는 하나님의 책에서 제 이름을 도말하여 주십시오.”(출32:32) 하고 호소했던 것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녹명이 되면, 어린 양이 직접 기록하셨기 때문에 어린 양하고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됩니다. 인간 사회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는 부부입니다. 아내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은 남편이고, 남편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은 아내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가장 가까운 인물들이라 하여 ‘어린 양의 아내’(계21:9)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를 막론하고, 설사 ‘어린 양의 생명책’에 녹명이 못 되더라도 왕들이 심판하는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최소한 지옥은 안 갑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주의 종을 통하여 영의 세계에 대해 소상히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과 신이 부딪치는 중간에 인간들이 끼어 있습니다. 마귀도 우리를 미워할 이유가 없고, 하나님도 우리를 미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과 마귀가 싸우는 과정에서 인간과의 3각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인간이 마귀의 편이 되는 것을 싫어하시고, 마귀는 인간이 하나님의 편이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여기서 투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의 종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움직이니까, 마귀는 인간을 통하여 나를 괴롭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편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싸움에 대해 알아야 하니까, 여러분을 대하기 전에 주께서 저에게 영의 모든 내용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전쟁을 해야 할 사람이니까.

나는 전에 이상 중에, “너를 거치지 않으면 나 여호와에게 직접 오자가 없느니라.”는 음성을 듣고, 자다가 일어나서 거울을 봤습니다. ‘내가 실제로 그런 사람인가?’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믿어지겠습니까? 이만큼 모인 것도 주님이 불러 주셨기 때문입니다.

시작부터 얼마나 거센 바람이 몰아쳤습니까? 한 사람도 우리 역사에 오지 못하게 밟아버린 겁니다. 그런 와중에서 누구를 상대

로 하여 전도할 겁니까? 전부 외면하는 판인데. 그런 역경 속에서 지금까지 끌어온 것입니다. 전도만 해야 한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악령하고 싸워야 합니다. 호시탐탐 악령은 여러분을 노리다가 기회만 있으면 채어 갑니다. 악령이 침범하기만 하면 여러분은 금세 생각이 돌아 버립니다. 그리하여 주의 종에게 눈이라도 빼주려고 하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원수가 됩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신과 신의 싸움입니다. 이런 치열한 투쟁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바보도 되어야 하고, 병어리도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일단 만들어 놓고 봐야 합니다. 그때까지 큰 인내와 지도력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따르다가 싫으면 그걸로 끝납니다. 안 나오면 그만이고, 안 믿으면 그만입니다. 여러분은 간단하다면 간단합니다. 그런데 영의 세계가 엄연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가 문제입니다. 이 시대에 예수를 부르는 사람들이 어디 우리들뿐입니까? 미국의 대통령도 취임식 때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그분들도 하나님을 공경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이처럼 귀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전 세계 인구가 2천 년대를 맞이하기까지 나름대로 주를 위해 충성을 했습니다. 목숨도 버렸습니다. 저는 마카오에 갔을 때, 순교를 당한 천주교 신도들의 유적을 보고 남다른 감회를 느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였구나. 거기에 비하면 오늘날 내가 당하는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제

자신이 숙연해졌습니다. 그리고 양떼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웃집에 가서 마루를 고쳐 주고, 책상을 만들어 줄 때, 그 사람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곁에 두고도 몰랐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생사가 갈리게 됩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감람나무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녹명되면 돌아가실 때 천사들이 바로 영접하여 주님 앞으로 안내해 갑니다. 이때 주님은 여러분을 따뜻이 맞이해 주시고, 순교자들이 있는 하늘 나라의 지성소로 안내를 받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 지성소에 있는 영들과 대화도 나눕니다. 이걸 동화가 아니라 성서적인 사실입니다.

Chapter 16.

진리로 싸우라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갖고 살아갑니다. 어떤 신앙이 됐든, 그들도 나름대로의 소망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갖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이한 생각은 금물입니다. 기독교 자체가 큰 변혁기를 맞이한 오늘날,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의 섭리에 얼마만큼 적응하여 마음의 발을 가느냐 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입니다.

신앙 운동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우리 인간들이 필요로 하여 믿는 경우이고, 또 하나는 신이 인간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하는 경우입니다. 우리 역사는 두말할 필요 없이 후자에 속합니다. 여러분은 주의 종을 만나, 주의 새로운 복음을 들으면서 함께 긴 세월을 따라오고 있습니다.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을 듣는 과정에서 각자가 믿음의 집을 지

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집은 갖가지 모양으로 지어질 것입니다. 튼튼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까지 어느 교회에서 어떻게 하든, 어느 목사가 무슨 말을 하든, 염두에 뒀 본 적이 없습니다. 또 둘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독교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된다면 심각한 문제들이 산재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는 양적인 종교가 아니라, 질적인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오늘날 신도의 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선진 국가는 국민의 거의가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가 국교(國敎)인 셈입니다.

그럼 미국을 한번 봅시다. 미국은 세계를 주무르는 강대국이지만, 그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신앙 운동이 오늘날 주 앞에 과연 무엇을 드렸는가, 그리하여 어떤 업적을 남겨 놓았는가 하고 영적인 차원에서 고찰해 보면, 한 가지 들 수 있습니다. 근대 신학 자본주의 강대국으로서 전 세계에 기독교를 전파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하신 말씀을 여기서 한번 상고해 봐야겠습니다. “말세에 과연 믿는 자를 보겠느냐? 너희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결코 천국 가는 문은 넓은 문이 아니다.”(눅13:24)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처럼 ‘넓은 문’이 없습니다. 기독교를 믿으면 생활에 도움이 되어 살아가기가 편리합니다. 조금도 어려움이 따르지 않

습니다. 이걸 ‘좁은 문’이 아니라 ‘넓은 문’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 한국에서도 인기 있는 교회는 몇 부제로 예배를 봅니다. 그럼 왜 인기가 있느냐? 얻어지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에게 육적으로 이득이 온다 이겁니다. 소위 말하는 ‘기복 신앙’이 그것입니다. 기독교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람들에게 이득을 주는 종교로 전략해 버렸습니다. 희생하는 종교와는 정반대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따르는 자는 각기 메인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 따르는 자는 나에게 합당치 않다.”(마10:38)는 주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입니다.

기독교의 신앙 운동이, 주님의 말씀과는 상반되게 전개되어, 모이는 수만 많아진다면, 그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적응하면서 사람들의 수가 늘어난다면 바람직한 일이지만, 주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되는 양상으로 모이는 수가 많아진다면, 이걸 뭔가 잘못됐다 이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전개하는 신앙의 운동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비참한 여건에서 출발했습니다. 감람나무 역사는 한마디로 인기가 없는 신앙 운동입니다. 그런데도 주께서는 그것을 다시 하라고 오늘날 주의 종에게 지시하셨던 것입니다. 다른 신앙 운동은 인기가 좋습니다. 방언을 한다, 병이 낫는다, 해서 사람들이 떼를 지어 모여듭니다. 내용이야 어찌됐든, 그것이 자기에게 이득을 주기 때문입니다.

몸이 아픈 사람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건 별로 달가운 일이 아닙

니다. 병이 낫는다면 귀가 번쩍 열립니다. 어린아이에게 정치가 어떻게, 경제가 어떻게, 백 번 얘기해야 소용없습니다. 어린아이에게는 먹을 것을 줘야 합니다. 과자를 주면 그 아이는 흡족해합니다. 돈이나 저금통장을 갖다 줘 보았자 어린아이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는 아이에게 울지 말라고 백만 원짜리 수표를 갖다 준다고 그 아이가 울음을 그칩니까? 아기에게는 어머니의 젖이 제일입니다. 젖을 물리면 울다가도 곧 그칩니다.

그럼 또 주님의 말씀을 살펴봅시다.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집에서 진수성찬을 차려 놓았는데, 사람을 초청해도 이유를 대고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끌어다가 그 자리를 메우라는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눅14:23)

여러분이 알다시피, 평양 감사도 자기가 싫으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모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판단을 앞세우면 하나님의 눈 밖에 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징계가 따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요한 계시록에 보면,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니 그 포도주 틀에서 피가 나와서 말갈레까지 닿는다는 말이 있습니다.(계14:20) 여러분, 포도를 포도주 틀에 짓이기면 포도즙이 흘러야지, 왜 피가 나오니까? 피는 사람이나 동물에게 있는 겁니다. 포도에 피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포도는 포도송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인

간들을 가리킵니다. 포도송이라는 말이 신도를 상징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주님이 당신을 포도나무로 비유했기 때문입니다. 포도송이는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지는 수가 얼마나 많으면 그 피가 말굴레까지 이르겠습니까? 굴레까지 피가 찼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의 수가 많다는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걸 최대의 비극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죽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면, 그 부모의 입장이 정상적인 겁니까? 내 목숨을 바치지 않으면 아버지가 위기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목숨을 바쳐서라도 아버지를 구해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심청은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인당수에 몸을 던졌습니다. 심청의 아버지가 건강하고 멀쩡한 사람이라면 심청이 목숨을 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다면 그 보내시는 분이냐, 죽으려고 오시는 분이냐 결코 편안한 것이 못됩니다. 인간들은 도움을 받는 위치니까 기쁨이 될지 몰라도, 도움을 주는 측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처지라면 이건 비참한 겁니다. 주님의 탄생이 우리에게는 이득이지만, 하늘에서는 엄청난 피해를 감수하는 것입니다. 양쪽이 다 좋아야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한쪽은

죽어야 하고, 한쪽은 상대가 죽기 때문에 살게 됩니다. 이럴 때는 입장이 정반대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아기 예수를 탄생시키기 위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결국은 계획대로 그 후손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의 탄생은 하늘에서는 하나님을 돕는 일이고, 땅에서는 사람을 돕는 일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정해 놓은 뜻을 이루는 데 메시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므로 하나님께는 합당하고, 이로 인하여 사람들에게는 구속 받는 혜택이 오니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죽어야 하는가? 죽는다는 것은 이유야 어찌됐든 최악의 경우입니다. 아들을 죽이는 계획을 세우는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카드를 내놓은 겁니다. 이것은 일반교회에서는 전혀 모르는 얘기입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종을 택하여 아무리 혹사해 봤자, 당신의 아들을 죽이는 것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속된 말로 새 밭의 핍니다.

세상에는 훌륭한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건 근처에도 못 갈 인격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택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분이 항의하실 겁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그 훌륭한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크신 뜻이 뭔지 모릅니다. 그러

나 저는 압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왜 저에게만 가르쳐 주시느냐? 하나님의 일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가르침을 받았다고 목에 힘주고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이나 받으면 되느냐? 아닙니다. 욕을 먹든, 매장이 되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권한을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저에게 온 사람이 열 명이든, 백 명이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사람들로 키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따라오지도 못하고, 따라와 봤자 결국 버림을 받게 됩니다. 하늘에서 쏘아 내는 겁니다. 그럼 합심하여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면 어떻게 되느냐? “너를 따르는 자들이 너와 같이 나 여호와를 섬기게 되면 네가 하는 일은 물든 동산 같이 되리라.” (사58:11)는 말씀이 응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다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시고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왜 그런 기도를 하셨는가? 당신이 돌아가시는 게 싫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죽음을 싫어하신 겁니다. 그래서 고민하신 것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죽음과 싸우셔야 했기 때문에 나이 30밖에 안 된 분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50쯤 되어 보일 정도로 수척했던 겁니다.(요 8:57) 그것은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불원에 죽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스트레스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멀어지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시는 주님의 심

정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들에게 천사를 보내어, 힘을 주고 압력을 가하여 죽게 하신 겁니다.(눅22:43)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날 주의 종이 괴로운 역경에 시달리게 되어, “될 수 있으면 저도 이 역경을 벗어나고 싶습니다. 저도 인간인데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간구했다고 칩시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이득이 가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앞으로 너는 편안하게 지내라.” 이러시지 않습니다.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걱정하지 마라. 참고 견디면 전화위복이 된다.” 하고 위안을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위안을 주시는 것은 그 일을 계속하라 이겁니다.

그럼 이것이 그 사람을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계속 고생하라는 것입니다. 그 대가가 뭐냐? “죽은 다음에 내가 갚아 준다.” 이겁니다. 그게 바로 영광의 보좌에 앉는 것입니다. 신앙의 운동은 그렇게 고난 끝에 영광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생스러워도 하나님의 일이니까 끝까지 해야 합니다. 가다가 한쪽 다리가 부러져도 남은 다리로 절뚝거리면서 계속 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좋아서 그러니까? 지시가 오니까 하는 겁니다. 그 대가가 뭐냐?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보상해 주십니다. 지상에 있을 때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에게 이득을 주기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

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 목숨은 버리지 못할망정, 우리의 최대의 정성을 드려야 한다 이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섭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의 정성을 다 기울여야 하는 섭리 말입니다.

여러분이 주의 종을 통해 설명을 듣기 전에는 하나님의 깊은 사정을 알 길이 없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감동을 받고, 그 말씀 가운데서 진실하게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은 다 존경받을 만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주의 섭리를 모르면 주님 앞에 이득을 드리지 못합니다.

주님에게 가장 큰 선물이 뭘지 아십니까?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겁니다. 주님의 소원이 뭘니까? 주님의 원수, 마귀를 발등상 시키는 것입니다.(마22:44) 그러나 일반교회에서는 주님의 소원이 뭘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반가워하실 리가 없습니다.

주님의 원수는 마귀입니다. 서로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가 생길 때에는 원수가 되는 거지,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역사를 시작하라고 지시하실 때, 주의 종에게 그 내용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보라. 전 세계에서 이렇게 열렬하게 나를 찾고 있다. 저것들이 다 내 이름을 부르고 있다. 그 때문에 어둠의 세력이 장난을 해도 모르고 있다.” 주의 종은 그 내용을 주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나서, “이거 큰일 났구나!” 하고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너를 통하지 않고는 내게로 올 자가 없다.” 왜 저 같은 것을 거쳐야 하는 시대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시고 주님께서 예고하셨기 때문입니다.(눅4:14, 계2:26-27, 3:21) 누차 말했지만, 제가 잘 나서가 아닙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저에게 따지니, 답이 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물으셔야 하는 겁니다. 제가 되고 싶어서 되고,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한 말이 앞뒤가 안 맞거나, 어폐가 있거나, 비성서적이면 항의하라 이겁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나를 이단으로 몰려면 “성서적으로 네가 하는 말이 틀렸으니까 너는 이단이다.” 하고 단죄해야 합니다. 내 설교집이 10권이나 나와 세상에 돌아다니는데, 트집 잡아보라 이겁니다. 감람나무라고 하니까 사이비다 하는데, 감람 나무가 불교 얘기입니까, 이슬람교 얘기입니까?

나를 감람나무가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너는 이래서 감람나무가 아니다.’ 하고 정확하게 지적해 줘야 합니다. 무조건 이단이다, 그건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항간에서는 이영수가 이단은 분명히 이단인데,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니까 빈틈이 없는 무서운 이단이라고 그런답니다. 그럼 이단 소리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의 운동은 모이는 수가 많다 적다, 그 사람이 잘났다 못났다, 이걸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질적인 내용이 문제입니다. 우리 역사가 오늘날까지 많은 멸시와 천대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것은 진리 때문입니다. 그동안에 주의 종이 전파한 이 진리의 말씀은 세상이 박살나도 살아 있을 것이고, 에덴성회가 깨져도 남

아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었어도 그가 한 말이 주님의 지시였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진리는 그래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는 하나님과 주님이 함께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주님이 원하십니다. 이 엄연한 사실을 우리가 알진대, 어깨를 펴고 당당히 싸워 나가야 합니다.

Chapter 17.

항상 깨어 있으라!



우리의 이 육체를 성경에서는 장막이라고도 합니다. 장막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뜻하는 것입니다. 혼이 담겨 있는 육체를 이처럼 장막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혼의 귀중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집보다 중요한 것처럼, 육체 속에 있는 혼이 육체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혼이 떠난다고 합니다. 우리 육체는 죽으면 결국 흙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 육체 속에 있던 생명체인 혼, 즉 인류가 태어날 때부터 지니게 된 혼은 영의 세계로 떠나게 됩니다.

영의 세계는 영이 거하는 곳인 고로, 그 세계로 갈 때에는 안내하는 영들이 오게 되는데, 그때 바로 음부로 끌여가는 영체를 마귀라 하고 하늘나라의 지성소로, 즉 여호와께서 계신 곳으로 우리 영을 데려가는 영체를 천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누구나 죽으면

반드시 인도를 받게 되는 것은 불가항력적인 일입니다. 우리는 지성소나 음부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혼자서는 갈 수도 없습니다. 이것을 갈 수 있게 하는 안내자들을 이 세상에서는 소위 ‘죽음의 사자’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죽은 사람이 이 사자에게 끌려가기 싫어서 발버둥을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무서워하는 것은 가기 싫은 곳으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살을 합니다. 살아 있는 것보다 죽는 게 나을 것 같은 경우에 자살을 택합니다. 이렇게 죽음을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멀쩡하게 잘 먹고 잘사는 사람은 죽기가 싫습니다. 그러나 심한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은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여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비결은 뭐냐? 현세의 삶보다 죽은 후의 모든 여건이 훨씬 나을 것을 확신하게 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반가이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의 세계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 언제 죽어도 좋다는 생각을 갖게 되며, 따라서 영의 세계에 대해 애착을 갖게 됩니다. 신앙이란 무엇이야?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의지할 수 있는 신념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다시 한 번 영의 문제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현실적으로 주위에서 죽음을 많이 봅니다. 죽는 사람을 볼 때 우리는 대단히 비참하게 생각됩니다. 내가 저런 경우를 당하게 되면 심정이 어떨까 하고 상상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

개는 죽음을 남의 일처럼 여기는 것이 보통입니다. 자기도 분명히 죽을 사람인데도 죽음에 대한 강박관념보다는, 저 사람은 죽었지만 나는 안 죽는다는 막연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현실에 매이는 겁니다.

인간이 얼마 후에 자기라는 장막을 벗어날 것을 안다고 해서 세상에 대한 미련을 떨쳐 버릴 수 있느냐? 아닙니다. 오히려 미련을 못 버리고 버둥거리다가 끝내는 죽고 마는 것이 인간의 공통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기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을 갖고 있었다면, 이제는 세상을 떠나야 하는 마당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어야겠다는 생각을 해야 하는데, 어물거리다가 죽고 마는 겁니다. 그만큼 인간들은 영과 육의 갈림길을 정확하게 모르고 살아갑니다.

우리 역사 안에서도 신앙 체계가 서고, 또 실질적으로 주님 앞에 많은 공로를 세운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근래에 신앙 안에서 죽은 몇몇 사람을 제하고는 거의가 체계가 서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몇몇 사람은 열심히 믿다가 좋은 곳으로 갔지만, 심판대 앞에서 건짐을 받을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앞으로 떠나야 할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더 많이 계신 것입니다. 연세가 많든가, 혹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날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걸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자기의 현실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은 별로 느끼지 못하지만, 주의 종은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나이가 든 분들은 한 해가 다르고 두 해가 달라집니다. 죽음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 가르치는 것입니다.

일반교회에서는 죽음에 대해 별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영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가르치는 사람도 모르고, 따르는 사람도 모릅니다. 무조건 믿기만 하면 되는 줄 압니다. 이렇게 막연하게 모인 숫자를 놓고 설교할 때에는 죽음에 대해 운운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으면 천국 가는 줄 아니까,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좋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죽는 순간에 그 죽음은 공포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믿기는 믿었는데, 데려갈 때에는 마귀가 데려가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나 주님을 열심히 믿고 매달리는 것으로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긴자가 역사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마귀가 무조건 물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길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현실의 문제입니다.

모세가 어떻다, 바울이 어떻다, 다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와는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모세 때 누가 어떻게 했다, 사도 시대에 누가 뭘 했다, 하는 것은 지나간 역사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교훈을 주지만, 우리에게 당면한 현실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이긴자의 슬하에서 요한 계시록에 기록된 내

용을 배우고 깨달아 지키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현실적인 신앙을 빨리 터득해야 합니다. 과거의 역사에 얽매이고, 어제의 신앙에 미련을 두어서는 곤란합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이긴자 감람나무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일대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가지는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우리 역사에 동참했던 사람이 여기서 떨어져 다른 교회에 나가면 대단히 편안합니다. 믿기만 하면 되니까 문제가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다가 죽으면 교회의 목사, 장로가 와서 마지막 길을 축복도 해 주겠지만, 주님이 함께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늘의 섭리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손길이 닿을 수 있는데 안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손길이 닿을 수 없는 상황이 조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도, 찬송도 같으니까 그게 그거려니 하는 겁니다. 영의 문제를 모르니까 뱃속은 편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듣지 못하니까 신앙이 곁돌게 되는 겁니다. 그의 최후가 비참해지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여기 장로님, 권사님들이 앞선 역사에서부터 따라오지만, 여러분은 이영수를 만난 것이 아니라, 감람나무를 만난 것입니다. 그럼 감람나무란 뭘 하는 사람이나? 오늘날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하는 겁니다. 박 아무개 밑에 있다가 이 아무개 밑에 왔다면, 끌어가는 사람만 바뀐 거지, 섭리는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A라는 권사님이 박 아무개 밑에 있을 때 어떻게 믿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 보십니다. 남이 볼 때 이 아무개는 박 아무개와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육적으로는 두절되어도 영적으로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우리 역사입니다.

안 하려야 안 할 수 없고, 그렇다고 방법을 바꿀 수도 없는 어려움을 갖고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파란만장한 생애를 헤쳐 나오고 있는데, 시작부터 그런 운명을 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럴 때에 주의 종이 여러분에게 바라고 싶은 것은, 이 시대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자세히 듣고 그것에 적응해 달라는 겁니다.

우리 속에는 육체를 지배하는 혼이 있습니다. 그 혼에 성령이 연결되면 하나님의 영혼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만일 그 혼에 악령이 스며들어 지배하게 되면 마귀의 영혼이 됩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저에게 안찰을 받을 때 여러분에게 성령이 들어가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주님에게 속한 영혼이 됩니다. 그러나 제 슬하를 떠나서 여러분 속에 악령이 들어가면, 어둠에 속한 영혼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디에 속하는 영혼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죽은 후에 가는 길이 달라집니다. 어둠에 속한 영과 연결된 사람은 어둠으로 가야 할 것이고, 빛에 속한 영과 연결된 사람은 빛으

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은 여러분들이 오늘 돌아가셔도 빛에 속하는 영혼을 소유하게 해야 합니다. 안찰이란 여러분의 혼과 성령이 결합되어 새 생명체가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여기 어떤 권사님이 생수를 드시다가 축복을 받고 돌아가셨다면, 그 혼이 빛에 속하는 영혼으로 화하였으므로 그 영혼을 안내하기 위해서는 빛에 속하는 천사들이 와야 하는 것이고, 어둠에 속하는 영혼으로 화하여 죽었다면 어둠에 속하는 사자들이 와서 데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의 종을 통해 안찰을 받거나 생수를 마시면 바로 여러분 속에 있는 혼하고 주님의 영하고 결부가 되어 여러분 속에 영혼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혼과 주의 종을 통해서 나가는 영이 결부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이런 영적인 결합은 이긴자가 주고자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여러분이 받고자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주고자 하는 이긴자와 받고자 하는 여러분 사이에 호흡이 맞아야 연결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성전도 필요하고, 말씀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왜 한 생명이라도 좋으니 알곡을 만들라고 저에게 당부하시는가? 하나님이 직접 하시고 주님이 직접 하신다면 제가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수만 명 모이는 기성교회에서 직접 하시지, 저에게 만들어 내라고 당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알곡성

전도 필요 없습니다. 알곡성전을 주님이 지상에서 직접 짓는 게 아니잖습니까? 이긴자가 주님의 지시에 따라 여러분과 힘을 합쳐서 짓는 겁니다.

알곡을 하나님이 만듭니까, 주님이 만듭니까? 이긴자가 하나님과 주님이 주시는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시110:1) 그 재료가 뭐냐? 생수의 성령입니다. 이런 역사가 세계 어디에 있습니까? 현재 이긴자의 역사를 어느 곳에 간들, 보고 들을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역사상 이런 일은 전 무후무한 것입니다.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실제로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옥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한적한 곳에 내 성전을 지어서 내 역사를 이룰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몇 년이 지나서 지으라는 지시가 떨어지고, 그때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지시대로 여건을 조성해 놓으면 알곡이 본격적으로 배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주의 종이 여러분께 이 시대의 주님의 안타까운 사정을 전하고자 무던히 애쓰는 겁니다. 이미 언급했지만 알곡을 만드는 재료는 이긴자가 주님으로부터 물려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긴자가 나타나면 “내가 이겨서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처럼, 내 보좌에 앉히겠다.”고 말입니다.(계3:21) 권세를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이 중요한 겁니다. 실제 이긴자가 하는 일이 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은

요한 계시록의 내용이 이루어지는 시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는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냐? 앞선 감람나무 시대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비참하게 무너졌어도, 감람나무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니까 다시 세워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제가 영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권능이나 하나님의 깊은 사정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일반교회를 상대하면 됩니다. 굳이 망해 버린 앞선 역사를 상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일반교회를 상대하면 제 밑에 교인이 구름 떴처럼 모일 겁니다. 저마다 탄복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보십시오. 감람나무다, 이긴자다, 하니까 이단으로 몰아 버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긴자니 감람나무니 하는 것을 빼 버리고 일반 신도를 상대하여 선교 활동을 하자. 그런 엄청난 재료를 가지고 왜 것처럼 공상맛게 움직이느냐?” 하고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가 감람나무 시대이고, 적은 성도일망정 알곡을 만들어 내야 하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사정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겁니다. 백만, 천만의 일반 기독교 신자보다 여호와께서 필요로 하시는 성도의 수가 채워져야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안타깝게 우리 역사를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간 이영수가 이끌어 간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 자신도 주님께 이끌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가야

하고, 여러분도 가야 하는 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날 주의 종 밑에 와서 하나하나 배우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계시지만, 진리는 알면 알수록 놀라운 것입니다. 나 자신도 어찌다가 이런 시대에 주의 종이 되었는가, 놀라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나 내가 발버둥 쳐 봤자 인간이지, 별 수 있습니까? 다만 위에서 오는 게 있으니까 영적으로 다른 것뿐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워 혼자 발을 동동 구르는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내 말을 들어도 그때뿐이고, 좀처럼 옛사람을 벗어 버리지 못합니다. 하기가 예수님을 곁에 두고 은 30냥에 팔아 버리는 판인데, 나야 말해 뭘 하겠습니까? 신앙은 결코 간단한 게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의 신앙을 탓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이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다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신앙이란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옛날 모세 때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그것을 보고도 의심하느냐고 의아해하지만, 오늘날은 안 그렇습니까? 오늘날 이처럼 신령한 영의 말씀을 듣고도 핵 돌아서는 판인데, 그때 사람들 별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닥치면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때로는 돌로 쳐 죽이려고도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을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경계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됩니다.

Chapter 18.

하나님의 요구 조건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한 지 어언 강산이 두 번이나 변할 만큼 세월이 흘러가고, 다시 새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또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다가, 기대에 어긋나 새로운 작업을 하셨습니다. 아담의 후손인 인류를 멸하고, 노아를 통해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여의치 않으므로 아브라함을 통해 단일 민족을 형성하여 역사하시다가, 그들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자 저들을 멸해 버리고, 모세를 통해 다시 새로운 후손을 만들길 원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출32:10)

제가 이 역사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도 바로

그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내가 이 백성들을 쓸어버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백성들’이란 하나님의 크신 역사에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기대하셨던 일이 안될 때에는, 그대로 두지 않고 없애 버리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항상 같습니다. 인간에게는 변화가 있어도, 하나님에게는 변화가 없습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 시대를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제가 청량리에서 단에 섰을 때, 광채가 하늘에서 내려오면서, “네가 선 곳이 거룩하니라. 그것은 바로 내 섭리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고 말씀하셨다는 얘기를 전에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를 따르는 교인들은 불과 2, 3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그나마 제대로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습니다.

제가 옥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재판이 유리하게 내려진다고, 아니면 빨리 내보내 주신다는 이상이 아니라, 앞으로 할 일만 자꾸 보여주시는 겁니다. “네가 어려움을 겪었으니, 그걸 연단으로 삼아서 앞으로는 더욱 열심히 일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는 오늘날까지 몸으로 겪어 왔습니다.

저는 알곡성전을 지을 때, 가진 것이 없어서 지붕만 덮어도 다행이라고 생각했다는 저의 심정을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알곡성전을 지은 후에, “너는 양떼를 데리고 편안하게 예배나 보고 영광이나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시다시피, 그게 아니었습니다. 별관을 어떻게 해라, 뭘 어떻게 해라, 그

래서 그렇게 해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5별관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너무 벅차니까 제가 축소시켜서 일단 건축 설계를 했으나, 더 웅장하게 짓는 것을 보여주셔서,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두 차례나 설계를 고쳐서 우리의 힘으로는 상상이 안 가는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지시하실 때, 웅장하고, 견고하고, 정밀하고, 예술적으로 지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 끌려갔다가 해방되어 본국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집을 고치고 살림살이를 꾸미는 데 바쁘다 보니, 하나님의 성전에 신경 쓸 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에게 지시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자기 집을 고치는 일에만 관심이 있지 내 집(성전)은 방치하고 있구나.” 그래서 학개가 부랴부랴 제사장들에게 얘기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광경이 성경에 나옵니다.(학1:14)

저는 당시의 하나님의 의도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오늘날 겪고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명령을 주시는 동시에 길도 열어 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만사가 형통하느냐? 아닙니다. 가로막는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어둠의 세력입니다. 우리 양떼들은 곳곳에서 지극히 적은 무리가 그야말로 코 묻은 돈으로 일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사실상 이처럼 어려운 일

을 헤쳐 나오고 계신 것입니다. 이걸 마귀는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갖은 방법으로 가로막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방주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지시하셨을 때, 남들은 방주가 간단히 만들어진 줄 알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덟 식구가 우리 알곡성전의 두 배나 되는, 3층 높이의 배를 만든다는 것은 난공사 중의 난공사입니다. 막대한 자재가 필요하고, 배를 지어 물이 들어오지 않게 역청을 바르고 — 이런 작업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러나 노아의 여덟 식구는 남들이 비웃고 조롱하는 가운데서 해냈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 바로 인내와 화합이었습니다.

노아에게는 세 아들과 며느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노아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배를 만드는 기간은 수십 년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노아와 아들과 며느리들이 얼마나 정신력을 집중시켰으면 자식이 하나도 태어나지 않았겠습니까? 노아의 식구는 세 아들에 세 며느리, 그리고 노아와 아내, 여덟입니다. 그렇다면 그네들은 배 만드는 동안에 부부 생활을 했겠습니까? 안 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럼 당시에 노아의 자식들이 부부 생활을 안 할 정도라면, 노아가 자식들에게 얼마나 교육을 철저히 시켰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노아의 내외는 말할 것도 없고, 아들과 며느리도 부부 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생기지 않은 겁니다. 왜 부

부 생활을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여덟 식구에게 배를 지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식구가 더 늘면 되겠습니까? 가족 수를 늘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덟 식구만 들어가라고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배를 다 만든 다음에 자식을 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자식들이 퍼졌습니다. 배 안에는 노아의 여덟 식구만 들어갔습니다. 배가 다 만들어질 때까지 여덟 식구가 그대로 유지된 겁니다. 지금 같으면 피임을 해서 자식이 안 생겼다고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피임법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의 정신력이 어떠한다는 것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5별관을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바로 노아의 아들과 며느리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뜻을 지극히 적은 수인 우리가 해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토록 비참하게 매장당하고 완전히 좌초한 감람나무 역사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앞선 역사에서 시집, 장가 못 가게 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일에 열성을 기울여 왔습니다. 실제로 겪어 본 사람들은 알 겁니다. 그들은 심지어 영화 프로도 못 보고 살았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신앙생활입니까?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럼 제2의 감람나무 역사에 동참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앞선 역사와 비교해 보면 잘 알 겁니다. 여러분이 저한테서 사생활에 구속받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죄를 지었다고 내가 단에서 치거나, 안찰하면서 죄를 지적하여 망신을 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면에서는 일반교회보다 더 쉽게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오늘날처럼 편안하게 믿는 시대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주의 종 사이에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 언약의 대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을 벌써부터 하고 싶었지만, 입 밖에 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해야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들의 힘으로 이 역사가 유지되는 줄 아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역사를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우습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땅에 떨어진 감람나무의 역사를 다시 일으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건물 하나하나를 멋있게 짓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날 이 역사에 동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먹을 것 못 먹고, 입을 것 못 입고, 열심히 충성하시는 것을 제가 잘 압니다. 그러나 노아 당시에 배를 만든 여덟 식구의 노고를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뿐만이 아닙니다. 바울 시대는 또 어떠했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남편과 자식을 버리고 바울을 따라 집을 뛰쳐나온 여자들이 집에서 볼 때는 행방불명인 겁니다. 당시에 방송이 있습니까, 신문이 있습니까? 찾을 길이 없습니다. 나가면 그만입니다. 금불이나 집문서를 갖고 나가서 바울의 전도 비용을 대었습니다. 물론 처자를 버리고 집을 나와 바울과 동고동락한 남자 동역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생한 사람들은 결국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누구누구는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빌4:3) 이들은 처자식을 다 버리고 일생을 바친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이 역사에 들어오셔서 좁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 경위를 다는 모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이곳에 오시게 됐는지, 제가 일일이 어떻게 압니까? 저한테 오신 여러분을 위해 저는 최대한의 사명을 다하면 되는 거지, 누가 오고 가는 건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오는 사람도 제 힘으로 끌어들이 수 없는 거고, 가는 사람도 제 힘으로 붙잡을 수 없습니다. 온 사람에 한해서는 정성을 다해 제가 주의 종으로서 할 일을 하는 것뿐이지, 그 이외의 영향력은 저에게 없습니다. 다만 이 시대에 주의 종이 감람나무 역사를 마무리 지어야 하므로, 이 대열에서 낙오자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이끌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고 했습니다. 예술을 영의 세계로 대치하여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영의 세계를 향해 가고 있습

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는 영의 세계가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저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지난날에 교만했던 것, 불합당하게 생각했던 것, 나태했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역사에서 여러분이 저를 만나는 순간부터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제가 영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부모 형제나 친척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도 제가 큰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영적인 책임이 제게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주의 피권세로 사망의 그늘에서 그 사람을 건져 내야 합니다.

어떤 종이 그렇게 됩니까? 그거 하루 이틀이지, 사명이 아니면 못합니다. 사명 자체가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겁니다. 우리 역사가 커진 다음이나 청량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할 때나, 제가 여러분을 달리 대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언제나 똑같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마무리되는 순간까지도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주의 종이니까 추위도 탈 수 있습니다. 범죄한 사람은, ‘주의 종이 이걸 알면 찍히겠구나.’ 하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범죄하면, 용기를 갖고 이겨 나가기를 바라고 도와줄 뿐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일단 건져 놓고 봐야 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작대기로 쭈시면 죽고 맙니다. 사람을 죽이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죽이는 직분보다는 살리는 직분이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주위에 신앙이 식어 가

는 식구가 있을 때에 남의 일로 생각하지 말고,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듯이 이끌어 줘야 합니다.

찬송가에 ‘이 세상 이별할 때에 음부의 권세 이기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는 것은 순교자들의 대열에 서는 것을 뜻합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시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다스리지 못할 것”(마16:18)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 말씀에서 음부에 대한 주님의 인식을 엿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음부에 대해 그만큼 비중을 두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음부가 얼마나 무서운 곳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와의 은총 가운데 이루어진 우리의 역사는 순교하지 않고 음부의 권세를 벗어나서 뿔기세덱의 반열에 참여할 수 있는 생명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 운동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요, 그런 섭리 속에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아 오늘 이 시간에도 먼 거리를 무릅쓰고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탁해서 인간들이 그것을 이루어 드리고, 인간이 이를 위해 하나님에게 간구하여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필요한 것을 마련해 주실 때에, 하나님과 인간은 상부상조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 드릴 때에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탁하는 입장이 될 것이고,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혜택을 받게 될 때에는 인간이 하나님에게 간구하는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이 “나는 이것이 필요하다. 대신에 너희들이 필요한 것은 무엇이나?”, “네, 여차저차 합니다.” 하고 서로 주고받아 이루어지는 것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럼 주시는 측하고 받는 측 사이에 언약이 없다면, 어떻게 해 드려야 하는지, 또 어떻게 주실 건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이 원하는 것을 제시하십니다. 즉 “너희들은 나에게 이렇게 해다오. 그러면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하겠다.” 하고 말합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역사에서 인간이 먼저 요구 조건을 제시하여 언약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이렇게 해다오’ 하고 요구하는 차원에서 시작된 겁니다. 한편 그 요구를 받아들이는 측에서, “대신에 이것을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해서 언약을 받아 내면 그것은 여호와께서 해 주실 일이고, 이렇게 해다오 하는 측이 하나님이라면 그 일을 해야 하는 측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 달라는 요구를 하시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이런 것을 좋아하실 것이다.’ 하고 일하는 경우가 많고, 한편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데도 그 뜻을 알지 못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은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깊은 사정을 헤아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뜻을 단계적으로 성취하고자 우리를 필요

로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섭리를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이 시대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체계란 기독교 전체의 근본 원리는 말할 것도 없고, 오늘날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뜻과 섭리를 아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고 못 깨닫는 것을 체계가 섰다, 서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Chapter 19.

사후의 갈림길에 대하여



1) 예비된 장소

오늘은 하나님의 세계가 이루어졌을 경우를 잠깐 여러분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천사가 요한에게 “이리 올라오라.”고 하면서 하늘문을 열고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계4:1) 나는 이상에 대해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설명해 드렸습니다마는,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 다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잠들었을 때 보는 것을 꿈이라고 합니다. 이상은 이처럼 꿈속에서 보는 일상적인 장면이 아니고, 우리가 평소에 볼 수 없는 장면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일들, 예를 들어 어제 우리가 잠들었을 때 고기 잡으러 갔다거나 수영을 했다면 이건 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하늘나라의 일들을 하나님이 “이건 이런 거야.”

하고 보여주시는 것을 이상이라고 합니다. 꿈은 육적인 것이고, 이상은 영적인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늘나라에 대해서입니다. 그 나라에는 현재 여호와, 주님, 또 천군 천사들, 그리고 순교자들이 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을 때에 펼쳐지는 영의 세계를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일부 보여주었습니다. 계시록에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계4:2-7)

영의 세계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영의 세계는 우리가 현재 살아 있는 세계처럼 존재하는 것인가? 바로 그것부터가 문제입니다. 그 세계는 엄연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육을 가지고는 가지 못합니다. 새 생명체는 지구에 국한된 생명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육이 살고 있는 하나의 천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은 다음의 생명체, 즉 영이라는 생명체는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를 왕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세계로 갈 수 있는 생명체인 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임하시게 되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요14:16) 영원토록이라는 것은 끝이 없다는 뜻입니다. 다른 보혜사는 우리가 살아서도 함께할 수 있고, 우리가 죽어서도 함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성령은 하나님의 종들이 살아 있는 동안 능력이 같이하였지만, 죽으면 그만입니다. 죽은 다음에 그 혼까지 지배하지는 못했습니다. 구약 시대의 기라성 같은 선지자들이 죽어서 음

부에 끌려간 것은 이 때문입니다.(마27:52 참조)

그럼 주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 마.” 하는 다른 보혜사라는 성령은 무엇이나?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이 살아 있을 때에만 역사한 그런 성령이 아니고, 살아 있을 때에도 역사하고, 죽은 후에도 역사할 수 있는 성령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나는 육체의 하나님이다.”(렘32:27)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육을 다스리기 때문에. 당시에는 육을 중요 시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희들은 육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육과 영을 아울러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라.”(마10:28)고 영을 내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육은 사실 무익하다는 것입니다.(요6:63) 그리하여 주님은 영과 육을 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님은 인간의 혼을 다스릴 수 있는 성령을 보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다른 보혜사라는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보혜사에 대하여는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주님이 보혜사라는 생수의 성령을 주시면 어떻게 되는가? 이것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연세 많은 장로님들이나 권사님 들한테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얼마 안 있으면 본인들에게 닥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내가 너희의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노라.”(요14:2) 하고 말씀 하셨습니다. 너희의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다는 것은, 사람이 죽게 되면 가야 하는 곳이 있는데, 하나님과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야 할 장소가 아직 마련돼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늘에 가서 그 장소를 예비하게 되면, 그때 너희들이 나 있는 곳으로 올 수 있느니라.”(요14:3)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영의 세계라는 것은 어떻게 돼 있기에, 우리가 영으로 변해야만 갈 수 있는가? 성경에는 영의 세계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이 황금 보석으로 꾸민 집으로 나와 있습니다.(계21:11-21) 금은 가장 변치 않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이 국가 간에 재산의 원천이 됩니다. 그런데 전체는 아닐지라도, 일부나마 금으로 장식된 건물이 솔로몬 성전이었습니다. 영의 세계를 그림자로 해서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백향목으로 기둥을 세우고 그 기둥 바깥에 금을 녹여서 씌웠습니다. 그 금이 표면에서 부식을 방지하기 때문에 백향목이 썩지 않습니다. 수천 년이 가도 변치 않을 수 있는데, 솔로몬이 우상을 섬긴 범죄로 말미암아 나라가 쪼개지고, 후손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관계로 하나님이 적에게 탈취를 당하게 하여,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 송두리째 파괴되어 버렸습니다.(왕하25:8)

영의 세계는 이 시간에도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입은 성도만 가서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뵈 수 있고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갈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지금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세계가 없어서 못 가는 게 아닙니다. 그 세계는 엄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육을 가지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2) 음부와 지성소

모세가 이상 중에 자주 하나님을 대하다 보니까, 직접 한 번 뵈기를 바라서, “하나님의 모습을 제가 보면 안 됩니까?” 하고 여쭙었더니, 여호와께서 “네가 나를 보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출10:28) 하고 대답하셨습니다. 모세가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순간에 그 광채를 감당하지 못해 죽게 됩니다.

여호와를 뵈 수 있는 영적인 생명체로 변해야 하나님을 대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뵈고 싶어도 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서 하나님을 뵈려면 하나님을 뵈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뵈고도 끄떡없는 그러한 생명체로 탈바꿈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만나 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탈바꿈한 자를 성경은 ‘어린 양의 아내 될 자격자들이다’(계19:7),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소위 말해서, ‘세마포를 입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세마포는 스스로 입지 못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 뵈 수 있는 생명체로 바뀌려면 하나님의 생명체가 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뵈 수 있는 생명체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체를 우리에게 보내 주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가 봤자 하나님을 뵈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세계로 가게 됩니다. 즉 음부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고 싶어 가고, 가고 싶지 않아서 안 가는 것이 아니고, 조건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

다. 그것을 신의 조건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죽기 전에 어떻게 해야 그 생명체가 만들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내 나라에 들어올 자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23년 간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외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재료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 만들어진 영은 마귀가 데려갈 수 없고, 데려가 봤자 소용없습니다. 왜? 자기 세계 하고는 생활 요건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영은 천사들이 와서 하늘나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 안에서 하나님을 뵈 수 있는 자격이 만들어진 사람은 마귀가 데려가지 않습니다. 억지로 데려가 봤자 어울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자, 곧 천사들이 와서 안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만드는 동안에는 마귀가 훼방을 해도, 일단 만들어진 다음에는 마귀가 건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을 아끼고 기억하셔도, 여러분이 죽는 순간에 그 영을 하나님이 데려갈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마귀가 데려가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은 가만히 둡니다. 그게 서로의 ‘룰’입니다.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내가 너에게 이 일 후에 될 일을 보여주겠다.”(계4:1) 해서 요한을 불러올렸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올라가서 하늘나라를 보니까, 휘황찬란한 보좌가 펼쳐져 있는 겁니다.(계4:2) 그리고 그 보좌에 위엄이 대단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 분이 앉아 계신 보좌는 백옥과 홍보석 같고 빛이 찬란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일곱 빛깔 무지개가 아롱져서 번쩍거리니까, 그 안에 뭐가 있긴 있는데 보이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비비고 자세히 보니까, 그 번쩍거리는 보좌를 에워싸고 24장로들의 보좌가 짝 펼쳐지는 것이었습니다. 양쪽에 열둘씩 둥글게 에워싸고 있었습니다.(계4:4) 그 24보좌에 하얀 광채 나는 옷을 입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그 머리에 보석이 박혀 번쩍거리는 면류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또 보니까, 네 생물들이 여호와와 가장 가까운 주위를 앞뒤로 둘러싸고 있는데, 안과 밖으로 눈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형상을 자세히 보니까, 그 네 생물의 형상은 만물의 영장인 사람을 비롯해서 사자, 독수리, 소, 이런 대표적인 동물의 모습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계4:7)

그렇다고 하나님의 측근들이 물론 오늘날 우리가 보는 사자, 소, 독수리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습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얼굴을 가린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엄을 보여주기 위해 천군 천사들의 네 우두머리들을 그렇게 묘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측근인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등장하는 장면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줬던 겁니다. 이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네 생물들이 여호와와 보좌를 향해 찬양합니다. 네 생물이 “만물을 다스리기에 합당하신, 높고 귀하신 분이시여,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찬양을 하니, 24장로들이 일제히

하나님께 경배를 합니다.(계4:10)

여러분 중에서 누가 이 은혜 가운데서 돌아가시고 두 천사의 안내를 받아 주님께로 갔을 경우에라도 하나님을 바로 뵈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먼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당장 모습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다섯째 인을 떨 때에 주님이 보여주신 장면, 즉 목 베임을 받은 자들이 거하는 지성소에 안내를 받아 가게 됩니다. 그리하여 지성소에 있는 영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렇지 못하고 음부로 가게 되면, 마귀 두 마리가 와서 데려갑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까, 마귀는 그 은혜 받은 부분만큼은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럼 음부는 뭐 하는 곳이야? 어마어마한 통치 기반을 갖춘 세계입니다. 이 지구 같은 건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 통치 세계로 여러분을 끌어갑니다. 그리하여 거기서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서 영이 살아갑니다. 육이 살아가는 것과 같은 느낌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영들과 하늘나라의 영들 사이에 접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즉,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음부의 권세자가 꺾이면, 그곳에서 지배를 받던 영들을 다 하늘나라로 불러 올려 심판합니다. 그때 은혜 받은 사람들을 가려냅니다.

양자의 싸움에서 어둠의 아들들이 지게 되면, 자기들에게 대단히 불리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싸움

니다. 따라서 전쟁이 치열합니다. 이때 어둠에 속한 자들은 지면 형벌을 받을 것을 아니까, 마귀의 편에서 끝까지 발악을 합니다. 따라서 지상에서의 전쟁보다 더 치열해집니다.(단12:1)

그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 하나님은 통치하는 시대가 옵니다. 지금 그 세계에는 주님과 지성소에 가 있는 영들이 천군 천사들과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음부에는 굉장히 많은 무리가 있고, 심판을 거쳐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변화시키는 시대가 오게 됩니다. 주님이 “내가 너희의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노라.”(요14:2)고 말씀한 그 장소는 주님이 지상에서 순교자들만 불러올리는 지성소입니다. 현재 하늘나라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부로 간 사람들은 전쟁이 끝난 다음에 심판대 앞에서 비로소 만나게 됩니다. 세상에는 까무러쳤다가 깬 사람, 죽었다가 깬 사람 등,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 가서 조상도 만났고, 그 밖의 누구누구도 만났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사람이 아직 영의 세계에 가 보지 않아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하늘나라나 음부에 간 것이 아니고, 영이 그냥 세상을 배회한 결과입니다.

영의 세계는 그렇게 아무나 만나고, 자기 조상이 나타나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 지배자는 대단합니다. 영의 세계는 계급이 지상보다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세계에 가려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체가 그곳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하고, 음부로 가려면 어둠의 영이 우리를 그곳에 적응하게 만들어 줘야만 합니다. 빛의 영으로 화하면 어둠의 세계에 가려고 해도 갈 수 없고, 또 어둠의

영으로 화하면 빛의 세계에 가려고 해도 갈 수 없습니다.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간다고 전 세계가 주장하고 있지만, 얼마나 영을 모르고 하는 소리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며칠 후,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렇게들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3) 영의 안내자

안찰은 싸움입니다. 저를 통해서 나가는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려고 하고, 여러분 속에 있는 어둠의 영은 나가지 않으려고 하여 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수 축복을 한다든가, 또 여러분들에게 안찰하려고 하면 성령이 활동합니다. 이때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한한 겁니다. 사도 바울의 손에 희한한 능력이 있어 그 손으로 안수하매 즉시 성령을 받았다고 했습니다.(행19:11)

성령이라는 말조차도 듣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에 놀라운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바울이 안수하니 즉시 성령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령의 조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도들이 바울이라는 성령의 전달자를 만난 겁니다. 전기를 연결하면 마이너스, 플러스가 부딪쳐서 스파크가 일어나는 것처럼, 안찰에서도 이런 영적인 스파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건 성령과 악령이 부딪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자를 만들어

내라는 겁니다. 이걸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선 주의 종과 양떼들 사이에 호흡이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양떼들이 얼마만큼 호흡을 맞추고 있느냐, 그걸 주의 종에게 알려 주시는 겁니다. 주의 종 밑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또 주의 종에게서 어떻게 은혜를 받았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거취에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주의 종은 여러분 중에 누가 세상을 떠나면 주님이 지배하는 생명체가 되기를 바라고, 또 그걸 목표로 해서 투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들딸이,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친척이, 그 밖에 누가 돌아가셨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하고 내가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예배를 인도하고,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이렇게 오시게 한 것은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 먼 곳에 자기 발로 불원천리하고 찾아올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곳에 오시는 것을 주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내가 안찰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주님이 저의 손길을 통하여 하십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여러분을 다 지켜보십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돌아가시면 더 이상 나하고 대화가 안 됩니다. “권사님!” 하고 내가 불러도, 죽은 사람이 무슨 말을 합니까? 그런데 그 영은 누가 주관하느냐?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에는 그 영을 어떤 신이 됐든, 신이 주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신이 주관하기 전까지 그 사람이 빛의 신에게 가게 되든, 어둠의 신에게 가게 되든, 누가 영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느냐? 바로 이긴자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만들라는 것입니다. 만들어지고 안 만들어지는 결과에 대해 내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생명체를 많이 만들수록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것이고, 많이 만들지 못하면 못한 대로 하나님께 섭섭함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60만의 대군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길 바랐지만, 결국 두 명밖에 못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노하신 겁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책임지고 끌어들이라고 하였는데, 결과가 그렇게 된 겁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은 안 해도 걱정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일일이 잔소리를 안 합니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내가 여러분 개개인을 다 살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상태로 가면 안 되는데.’ 그렇다고 내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도 없는 거고. 내가 설교하는 걸 잘 듣고 자기가 알아서 호응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적당하게 얼렁뚱땅 하루하루를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어쩔 겁니까? 그저 그런가 보다 하고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죽으면 어떤 결과가 오리라는 걸 나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렇게 좀 살아 주십시오.” 하고 호소할 뿐이지, 여러분에게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은 오늘날 이 역사에 들어오셨지만, 주의 종이 조금 거북스러운 얘기를 하면 듣기 싫어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고칠 건 고치고, 정리할 건 정리해 주시면, 대단히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이 주의 종과 의합하게 되면 저는 여러분을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되어,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지내고, 주의 종은 주의 종대로 걱정하게 되면, 그만큼 일이 더더집니다.

일반교회에서는 이 시간에도 목회자들이 주의 복음을 전하느라고 나름대로 애를 많이 쓰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믿으십시오. 이렇게 착한 일을 하십시오.’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그런 곳 하고는 다릅니다. 여기는 바로, 지금 내가 설명해 드린 대로, 지성소에 필요한 수를 채우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역사입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 영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영이 있기 때문에 죽음은 바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길이 새로 시작됩니다. 이 길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내가 20여 년 동안 안찰을 해 옵니다. 오늘도 내가 여러분이 떠다 놓은 물에 축복을 합니다. 그 물속에는 주의 것이 담기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안찰을 할 때 그 은혜가 옵니다. 이 손을 통해서 주의 것이 나갑니다. 그러나 각자가 받는 은혜의 강도가 다 다릅니다. 손은 똑같이 대는데 느낌이 다 다른 것은 영을 받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날 실제로 겪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신도 아니고 어떤 사이비 교주처럼, 뭐나 된 것처럼 도도하게 구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주의 종은 사실 그 대로 알려 드려서 여러분이 이 시대의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파악하여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하고, 여러분에게 은총을 끼치기 위해서 최대의 노력을 해야 하지만, 그 다음은 주님께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잘 믿지 못한 분이 세상을 떠나도, 심지어 제단에 한 번 나와 보지도 않고 핏박만 하던 사람까지도, 여러분이 원하면 주의 종이 축복한 생수를 통해서 그런 대로 은총을 입고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영들은 심판대 앞에 가서 그 생수의 은총 때문에 많은 죄를 탕감 받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삽니까? 십 년만 흘러 보십시오. 이 자리에 앉은 분들 중에도 세상을 떠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사고로 떠날 분도 계실 거고, 연세가 많아서 떠날 분들도 계실 거고. 영의 세계는 그 순간이 바로 시작입니다. 인간의 이 짧은 생애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 영의 세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한 생애를 놓고 싸우는 겁니다.

영을 모를 때에는 지금 살아가는 세계만 최고로 알고 있지만, 알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멀쩡하다가도 죽음이 닥치기 시작하면 팍팍 쓰러집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내일 닥치더라도 땀땀이 맞이하러 올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의 말이 그거 아닙니까? “내가 매일 죽노라.”(고전15:31) 매일 죽는 심정으로 살아서 죽음을 기꺼이 맞이하는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 죽는 사람이 세상에 무슨 물욕이 있겠습니까? 소망은 오직 영의 세계에 가려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임박하면 “아이고, 내가 이제 죽게 됐구나.” 하고 탄식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노라. 내 앞에는 생명의 면류관만 있느니라.”(딤후4:8) 하고 죽음을 달게 맞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병들어 심한 고통을 겪다가도 혼이 떠나는 순간에는 평화를 얻게 됩니다. 혼이 딱 떠나는 순간에 자기를 봅니다. 갈 때 자기를 보면서 갑니다. 숨을 거두는 순간, 이미 자기한테 안내자가 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는 곳을 모릅니다.

여기 이 권사님이나 박 집사님이 세상을 떠나면 어디로 갈 겁니까? 면목동에 사는 사람은 면목동의 지리밖에 모르고, 영등포에 사는 사람은 영등포의 지리밖에 모르는데, 죽었다고 해서 어디로 갈 겁니까?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등포의 자기 집으로 가서 남편이나 자식이 울고불고하는 것을 다 보고 있습니다. 제사를 안 지내면 안 지낸다고 화낼 거고, 갖은 것을 다 보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일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죽으면 시체는 시체대로 가족들이 처리하고, 영은 안내하는 사자에 의해서 끌려갑니다. 그렇다고 무서운 게 아닙니다. 마귀가 와도 여러분에게 무섭게 대하지 않습니다. 마귀라고 해서 뿔로 들이받고 이리저리 않습니다. 자기 세계로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그 권사님은 어둠의 세계로 끌려가므로, 벌써 ‘아이쿠, 이거 내가 세마포를 못 입었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그런데 마귀가 아니고, 한 젊은이가 광채 나는 옷을 입고 왔다면 ‘나는 이제 말로만 듣던 지성소로 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한 마디로 동화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미리 알고나 돌아가시라고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저승사자를 보면 섬뜩할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떠날 때 어느 사자가 오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길을 모르는 사람에게 길을 안내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안 오면 갈 곳을 모릅니다. 말만 들었지, 여러분이 지성소나 음부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신은 인간에게 무자비하게만 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마귀의 싸움이 치열한 거지, 하나님이나 마귀가 사람을 대할 때에는 공포 분위기를 자아내는 게 아닙니다. 신과 신이 전쟁을 하니까 중간에 있는 인간들이 두려워 떠는 거지, 신이 사람에게 해코지하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마귀가 전쟁을 하다 보니까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거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마귀에게 미움을 받는 겁니다. 언뜻 생각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은 자비의 대상이고 마귀는 공포의 대상으로만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죄 지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공포의 대상입니다. 그들은 자기편의 영(악령)을 더 좋아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

분이 1년에 세 번 내지, 네 번 정도 안찰을 받는 것은 그동안에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범죄한 것을 그 순간에 다 소멸시켜서 자범죄가 누적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원죄, 유전죄는 이미 처음 안찰을 받았을 때 소멸됩니다. 이 원죄, 유전죄는 한 번 소멸 받으면 다시는 생기지 않고, 자범죄만 생깁니다. 여러분이 짓는 죄는 주의 종의 안찰과 평상시에 마시고 쓰는 생수로 소멸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유지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면 축복받은 생수를 통해서 시신이 아름답게 변하게 되고, 또 여러분이 은혜를 간직하고 충성의 열도가 높아 세마포를 입을 자격이 될 때에는 방금 말씀드린 지성소로 가게 됩니다. 이곳에 오셔서 20년을 믿었든, 5년을 믿었든, 그 과정을 저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하나님의 신(성령)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총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Chapter 20.

인간이 기록해지려면



우리 역사에 부름을 받은 여러분의 신앙 체계에는 서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찍 나오셔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순리대로 많이 배우신 분들과 근래에 나와 배우시는 분들, 또 앞선 역사를 알고 여기 오신 분들과 앞선 역사를 전혀 모르고 여기에 오신 분들은 이해하는 깊이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루어 가는 이 신앙 운동은 어떤 차원에서 시작했으며, 어떻게 끝날 것인가, 이런 의문점을 사람들에게 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일반 신앙 운동은 거의가 사람 위주로 시작되어 사람 위주로 끝나기가 일쑤입니다. 하나님 위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입김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경우는 아마 우리 역사가 으뜸이라고 봐야겠습니다. 시작부터도 그랬고, 지금까지 걸어온 과정도 그렇고, 앞으로 나아갈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그 시대마다 각자 해야 할 일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삼손 같은 사람은 그 당시에 블레셋 군과 싸우는 사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세레 요한처럼 제사장의 집안에 태어나 주의 길 예비자로서 물세례를 줌으로써 위력을 떨친 종도 있었습니다. 또 모세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신과 같이 추앙할 정도로 놀라운 능력을 나타낸 종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다 성서에 등장한 인물이지만, 우리와 직접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스가랴의 경우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스가랴 선지자에게 지시한 내용은 우리와 직접 관련됩니다. 그러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왜 남들이 우리를 이단이다, 혹은 사이비라 하는가? 그런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전개되는 신앙 운동은 믿는 사람들에게 거부반응을 일으킬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늘에 올라간 후 밝힌 내용이 이루어질 때에는 거부반응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지상에 계실 때 하신 말씀의 테두리 밖에서 다른 얘기가 나온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말에 대해 한 번도 언급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도 분야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조차 논하지 않던 생소한 얘기가 기독교 안에서 강조되면, 이단이나 사이비

소리를 듣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앞으로 될 일들에 대해 예언합니다. 그래서 예언자라고 합니다. 그들은 거의가 다 메시아에 중심을 두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이 바로 나를 증거하느니라.”(요5:39) 그리하여 주님은 그 말씀에 부합되는 일들을 친히 이루어 놓고 하늘나라로 가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 예언의 말씀을 다 준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써 완벽하게 이루어 놓았던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까지, “성경을 응하려 함이니라.”(요13:18 등)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각본대로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써 할 일을 다 하신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독교 전체에 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만 믿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위로는 왕이나 대통령에서, 아래로는 비천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위대한 분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으로 하실 일을 다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로써 해야 할 일은 일단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이제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요19:30) 하고 돌아가신 겁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은 아들로써 지상에서 할 일을 다 하셨다는 겁

니다. 바로 이 점을 여러분이 유념하셔야 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 버리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메시아 말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또 다른 인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스가랴가 예언한 두 감람나무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메시아와 두 감람나무라는 인물을 함께 예언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성서를 떠나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두 감람나무라는 존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메시아가 나타났을 때에는 하나님은 메시아에게 “내가 선지자 누구누구에게 미리 예언한 것을 네 시대에 이루어야 한다. 네가 할 일이 이거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감람나무라는 존재가 나타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감람나무가 할 일을 지시하십니다.

나타나 봤자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리이러한 존재가 나타난다는 지시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는 겁니다. 그런데 감람나무는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된 존재를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습니다.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었습니까? 오히려 잡아 죽였습니다.

이제 주님의 시대가 지나가고, 지금은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한 감람나무 시대가 온 것입니다. 메시아 시대에는 메시아가 성경에 예언된 말씀대로 메시아의 역할을 해야 하고, 감람나무 시대에도 성경에 예언된 말씀대로 감람나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너로부터 2,500년 전에 나 여호와가 내 젊은 종 스가랴에게 지시한 내용들을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움직여 나간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저에게 오기 전에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사람들이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 받은 감람나무라는 사람의 존재를 몰라야 합니까? 알아야 그 시대를 알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할 일을 다 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세상이 인정합니다. 말씀대로 응했기 때문에. 그런데 감람나무라는 존재가 이 시대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모릅니다. 앞선 역사에 부름을 받은 자들도 그 역사가 어처구니없이 패망하는 바람에 흐지부지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다시 “내가 감람나무다.” 해 봤자 여간해서 먹혀들 수가 없습니다.

스가랴는 이상 중에 당시의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시꺼멓게 더럽혀진 옷을 입고 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와의 사자에게 “더럽혀진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옷을 갈아 입혀라.”(슥 3:4)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채 나는 옷을 입혀 놓으니까 사람이 바뀐 것입니다. 조금 전의 모습하고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자 “여기 있는 사람들을 보라.” 해서 보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같은 모습으로, 많은 신령한 사람들이 그 옆에 쪽 늘어서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처럼 이 많은 사람들이 거룩하게 만

들어질 것이다, 하고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 한 돌에 일곱 눈이 박혀야 합니다.(눅3:9)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자기가 나쁜 짓을 해서 더러워졌습니까? 마귀가 더럽혔기 때문에 더러워진 것입니다. 그러나 한 돌에 일곱 눈이 박힌 시대가 되면, 순식간에 깨끗하게 입혀 놓는 작업을 하게 된다 이 겁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한 돌에 일곱 눈이 박히려면 그 돌이 있어야 하고, 눈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게 만들어져야만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더럽혀 놓은 걸 순식간에 정결하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가랴에게 앞으로 하시고자 하는 작업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돌에 일곱 눈이 박힌 것을 스가랴에게 보여주시고, 이번에는 두 감람나무에 대한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두 감람나무는 등잔에 금 기름을 내려보냅니다.(눅4:12)

그런데 스가랴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 지시를 받아서 기록한 내용에 대해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 습니다. 언급하셨으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 번도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이걸 메시아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감람나무하고 관계가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이걸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감람나무는 하루에 죄악을 제하여 버릴 수 있는 일곱 눈이 박힌 돌이 마련되어야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돌을 만드는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입니다. “시온에 한 돌을 돌 터인데, 그 돌을 깨닫는 사람은 형통하겠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거치는 반석이 되리라.” (사28:16)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돌에 떨어지면 가루가 된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요긴한 머릿돌이 되었나니.” (마 21:42) 주님은 자신을 돌로 비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한 말씀이 오늘날 여러분의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때에 그 사명을 맡은 자에게는 바로 돌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흰 돌’이라고 합니다. (계2:17) 그는 모든 죄악을 하루에 제하여 버립니다. (속3:9) 그것은 그의 능력이 아니고 돌(주님)의 권능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지시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모인 이 역사에 관심을 갖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일이라면 하나님은 거들떠보시지도 않습니다.

Chapter 21.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라



1) 폭발적인 성령의 운동

나는 너무나도 어려운 역사를 맡아서, 23년 남짓한 세월을 걸어 오는 동안에 많은 것을 보고 또 느꼈습니다.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변할 수 있는가도 겪어 봤습니다. 인간은 참으로 죄악 가운데 빠지기 쉽습니다.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 같습니다. 다만 거기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얼마만큼 신앙이 깊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중에 누가 어느 시점에서 떨어질지 모릅니다. 나는 절대 안 떨어진다,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절대 의심하지 않는다고 다짐과 맹세를 하는 것을 나는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들에게 배반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나빠서 스승을 배반한

줄 압니까? 악령이 틈타면 도리가 없습니다. 제 정신이 아닌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어떻게 나무랄 수 있겠습니까? 주의 종에 대하여 모든 게 언짢게 보인다고 해서 그걸 나무랄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을 그렇게 조종하는 마귀가 원망스럽고, 그 마귀의 세력에 사로잡힌 것을 안타까워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영의 세계는 냉정합니다. 행한 대로 보응하는 것이 그 세계입니다.(잠24:12) 저는 그 세계를 잘 압니다. 한두 차례 본 것이 아닙니다.

“너희 조상들은 하늘에서 주는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내가 주는 만나는 먹으면 영생하리라.”(요6:49-50) 이것은 바로 주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하신 말씀인데, 전 세계 기독교는 이 말씀을 토대로 하여 2천 년 동안 나름대로 성찬 의식을 행하면서 내려왔습니다. 즉 떡을 떼어 주면서, 바로 ‘이것은 주의 살’이요, 포도주를 나누어 주면서 ‘이것은 주의 피’로다, 이렇게 의식을 올리면서 기독교는 퍼져 나갔습니다.

그렇게 퍼져 나오다가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람나무의 출현이었습니다. 감람나무가 나타나서 비로소 피의 증거를 할 적에, “살과 피는 그렇게 주는 것이 아니다. 주의 보혈로 이렇게 내리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렇게 체험을 하는 것이다.” 하고 주장한 것이 바로 앞선 역사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감람나무의 가지로 부름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아 열성적으로 주 앞에 찬양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중에는 오늘날 말하는 ‘휴거’처럼 언제 주님이 오신다 하면 그 대로 믿고 모든 것을 희생시키면서 순진하게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악령과 성령의 싸움인지, 무엇이 주의 뜻인지, 그 뜻을 어떻게 이루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덮어놓고 주님이 오실 줄 알았던 것입니다. 무조건 은혜가 내리고, 기도하면 응답을 받으므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기적과 이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니 다른 이유를 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폭발적인 성령의 운동이 이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시달렸다가 마음에 위로와 소망을 주는 종교에 심취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났다 하면 불이요, 섰다 하면 교회’라고 할 정도로, 교회는 왕성하게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구미 각국에서는 기독교가 시들해질 무렵에, 기독교가 전해진 지도 얼마 안 되는 한국 땅에서 그런 놀라운 신앙 운동이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성령의 운동이 1세기도 넘기지 못하고, 불과 4반세기 만에 몰락해 버린 겁니다. 이것은 쟁개비 같은 신앙, 한마디로 말하면 확 달아올랐다가 확 꺼져 버리는 불장난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따르는 사람들의 눈에는 위대해 보이고, 엄청난 무엇이 있는 것 같이 생각되어도 알고 보면 그건 한갓 유희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실제로 하시고자 하는 뜻이 계셔서 감람나무 역사를 필요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

가서 평안하게 잘 먹고, 잘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세우실 때부터 여호와께서는 목표가 있으셨다는 것을 수차 여러분에게 설명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해 놓고, 모세를 통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간 동안에 열방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눈동자같이 아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탐지한 날 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간 유리방향하게 만드셨습니다.(민14:34)

하나님이 정하신 뜻은 그 시대의 인류가 안고 있는 과제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이루어 나가는 것이 현명한 태도이지, 똑똑한 척하고, 자기 나름대로 계산을 해서 맞다, 안 맞다 판단하고, 이러쿵저러쿵 떠들어대는 것은 가장 미련한 사람이 하는 짓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고 못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왜 애굽에서 보따리 싸가지고 나와 열방을 무찔러 가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가를 그 백성들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모세가 진작 알려 줘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백성들의 소동이 두려워, 분명히 알려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애굽 땅보다 얼마나 더 살기 좋으나, 이것만 따집니다. 그 결과 계산이 안 맞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겁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따르는 백

성들이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2) 다시 세우는 역사

앞선 역사에 사람은 많이 모였습니다. 그러면 그 모아 놓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습니다. 말씀으로 다듬어 세우는 역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따르면서도 기사와 이적이 계속 일어나기만 바라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왜 불러 주셔서 크신 은혜를 베푸시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덮어놓고 주님이 오신다고 박수 치고, 큰 소리나 치고, 교만이 하늘을 찌를듯하여 결국은 그 꼴이 되고 만 것입니다.

신앙의 운동은 먼저 여호와의 뜻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인간에게 얼마나 혜택이 돌아오느냐 하는 것으로 성패가 좌우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성패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를 갈라서 위력을 떨치고, 만나를 먹고, 별일을 다 겪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애굽 땅에 열 가지 재앙을 내리는 위력은 대단했습니다. 당시에 모세는 많은 사람들이 신으로 받들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당시에 모세를 따른 60만 명의 장정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통고를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당사자 모세까지도 못 들어간다는 섭섭한 선고가 내려졌습니다.(신1:37)

사람의 하는 일에 실족하는 경우가 없을 수 없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만나고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여, 그 안에 거하지 못하고 떨어지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의 섭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에서 훌륭한 교역자들이 많은 양떼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여러분이 부르는 하나님을 부르고,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인이 천만이 넘어섰으니, 백 분의 일만 쳐도 14만 명에 육박합니다. 100명 중에 한 사람만 세마포를 입어도 거의 차게 되는 셈입니다.

그럼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 신자는 얼마나? 말로는 10억이라고 합니다. 하도 숫자들을 불러서 얘기하니까, 줄잡아 반으로 똑 잘라도 5억은 됩니다. 그럼 5억에서 14만 4천을 배출시키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약 시대부터 이 시대가 끝날 때까지 14만 4천 명, 즉 어린 양의 생명책에 녹명될 자들을 채우려고 무척 애쓰십니다. 아직까지 14만 4천이 차지 못했습니다. 그럴진대 14만 4천을 채우는 일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교회에서는 14만 4천 명의 숫자는 어떤 특정인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 아니고, 구원받을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얼버

무려 적당히 넘어가고 맙니다. 2천 년 동안 그렇게들 주장하고, 또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요한 계시록에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지시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너한테 될 일을 지시하마. 너는 본 그대로 적어서 일곱 교회에 보내라.” (계1:19, 11 참조) 일곱 교회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당시에 많은 교회 중에 일곱 교회를 주님이 지적하신 것입니다.

제가 직분을 수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흘돌이로, 어떤 땀 일주일 만에, 어떤 땀 열흘 만에, 계속 영의 세계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앞선 역사가 어떻게 시작됐으며, 어떻게 망했고, 어떻게 뒷수습을 해야 하는가를 소상히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14만 4천의 나머지 숫자를 채워 달라 이겁니다. 그 숫자는 많이 모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번성과 확장을 위해 성령을 보낼 때에는 많이 모일수록 주님은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나 14만 4천을 채우는 데 필요한 숫자를 요구하시는 시대에는 사람이 많이 모여 북적거리는 것을 하늘에서는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달라진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작업이 다르다 그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 부흥 발전하면 겉으로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중에 14만 4천에 포함될 자가 육성되지 않는다면, 사람의 눈에는 위대한 역사로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차

지 않습니다. 만드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간단하다면 하늘에서 이 시간에도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훌륭한 목회자들을 데리고 하시지, 뭐가 답답하다고 보잘것 없는 나 같은 것을 내세워 이 산골짜기에다 따로 성전을 짓게 하시고, 차비도 없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자 이곳까지 쫓아와서 따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겠습니까? 부흥도 안 되는 감람나무 역사를 굳이 다시 일으켜, 그 즐기만을 통하게 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동댕이쳐 버리지, 무엇 때문에 미련을 느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이 시대가 너로 인해서 결말이 난다.” 그러므로 주의 종의 근황이 어려우면 하늘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대처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섭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감람나무의 역사가 한 사람으로 끝나도록 예정되었다면 엄청난 환난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또 하나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조용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셋은 아닙니다. 성경에 둘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의 세상 조류는 앞선 역사하고는 종류가 다릅니다. 흔히들 전자가 망했으니, 후자도 망할 거다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 돌이킬 수 없는 패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앞선 역사를 겪어 본 사람들은 특하면 판단부터 합니다. 따르는 사람들이 주의 종의 꼭대기에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역사

가 유지되고 있는 까닭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서 있는 이 사람이 나와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지 않고 오늘날까지 이끌어 오지 않았으면, 여러분이 감람나무의 ‘감’자나마 입 밖에 내고 믿으실 분들입니까? 다 떨어져 세상과 짝하든지, 기성교회로 가실 분들 아닙니까?

제가 버티고 있는데도 따르다가, ‘아니다, 가짜다.’ 해서 나갑니다. 제가 그렇게 소상히 가르치는데도 고개를 갸우뚱하는데, 저를 만나지 않았던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알아서 신앙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감람나무를 누가 재론할 겁니까? 감람나무의 역사는 완전히 매장 당하고 말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앞선 역사를 일으키셨기 때문에, 뒤를 이어 지금 유지해 나가는 겁니다. 그토록 처참하게 무너진 감람나무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을 했기 때문에, 그걸 되살려 십자가의 군병을 배출하는 작업을 다시 하기 위해, 하나님이 오늘날 이와 같이 이끌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거기에 제가 심부름을 하고 있는 겁니다.

3) 하나님의 지시

여러분은 추호라도 인간 이영수를 따라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을 이끌고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끌고 갈 자격도 없고, 그럴 처지도 못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같이하시니까, 여러분이 그 섭리를 인정하고 저를 따라 주시는 것

이지, 여러분이 뭘 보고 저 같은 것을 따라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오늘날까지 이곳에 오셔서 저와 호흡을 함께해도, 인간 이영수 때문이 아니라, 저를 통해서 나가는 하나님의 성령을 보고 따르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똑같이 믿는 자세로 일하지, 여러분에게 대우를 받는 지도자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저는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부디 이 역사 안에서 진실하게 살고, 영의 세계에 가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큰상을 받게 되는구나.’ 하고 저에게 고마움을 느끼면 저는 그것 하나로 족합니다.

오늘날 이곳에 모인 얼마 안 되는 양떼들이 오랫동안 큰 공사를 하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주의 종은 주의 종대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정말 어려운 고비를 넘어왔고 또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에게서 얼마나 손가락질을 받고, 얼마나 낮 뜨거움을 당했습니까? 직장에서도 어느 교회 다닌다고 떳떳하게 한 번 밝히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무조건 무시하고, 무조건 모자란 사람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갚으려면 우리 역사가 성공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상대가 욕한다고 해서 우리가 같이 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우리에게 침을 뱉는다고 해서 우리도 같이 침 뱉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침을 뱉으면 받아 주고, 얼굴에 똥칠을 하면 참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놓는 것입니다.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만들어만 놓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 주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앞선 역사 식으로 비참하게 고생만 잔뜩 안겨 주는 그러한 역사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이 눈으로 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세워 놓은 자랑스러운 알곡성전, 1별관, 2별관, 3별관, 4별관, 5별관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의 자랑입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건물을 지어 놓았다고 해서 제가 목에 힘주고 돌아다니는 걸 봤습니까? 누가 관람하면 내가 나서서 설치는 걸 봤습니까? 전 그런 생각조차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놓으면 조용히 물러나는 사람입니다. 뒤에 처져 살아가지, 사회에 ‘내가 이런 사람ियो.’ 하고 나서지 않습니다. 그런 건 저의 기질에 맞지 않습니다. 겸손하고자 하는 뜻에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은 5별관은, 전에도 말씀했지만, 제가 임의로 축소해서 설계까지 다 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하자면 너무 벽차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꾸 더 웅장하게 지으라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설계를 조금 크게 변경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더 크게 지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변경했습니다. 어떡합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1별관을 지을 때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오늘날 “집을 이렇게 지어라.”, “길을 이렇게 내라.” 하고 지시하셨다면 누가 곧이듣겠습니까? 모세 시대엔 있었던 얘기입니다. 여러분이나 보고 들은 신앙 체험에 의해 믿어 주지, 제3자가 코웃음을 치기에 알맞은 얘기입니다.

5별관에서부터 이곳 알곡성전까지 들어오는 이 길을 여러분이 차만 타고 들어오실 게 아니라, 때로는 걸어서 한 번 올라와 보십시오. 한참 걸립니다. 두 발로 걸어오면서, 전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서둘러서 마련하라고 지시하셨다고 주의 종이 여러분에게 전한 말을 상기해 보십시오. 그 길 하나만 해도 결코 쉽게 마련된 것이 아닙니다. 주위 사람들이 길을 내는 것도 가로막았던 것입니다. 그게 전부 위에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오늘날 누구를 막론하고 여기 들어와서 보면, 시시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들 놀랍니다. 어떻게 이런 훌륭한 성전을 지었나, 어떻게 허가를 받아 냈나, 하고 얘기합니다. 저마다 감탄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치가 좋고, 물이 좋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우리나라에서 공기가 제일 좋은 곳이 가평이라고 나왔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여기 들어와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것입니다.

옛날 솔로몬이 뭘 안다고 그 엄청난 성전을 지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재를 마련해 주시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서 지은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뭘 압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성전을 지어 놓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공해에 시달리다가, 공기 좋고 물 맑은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곳 생수 공장 주인이 우리에게 밀려 나갈 때에 한탄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제 얼굴을 모릅니다. 그런데도 “이영수, 그놈! 이영수, 그놈!” 하면서 그놈 때문에 자기가 망했다는 겁니다. 그 주인은 한 평생 물만 연구한 사람입니다. 이 물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답니다.

이곳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너무나 신기합니다. 내가 옥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서울에서 차로 한 시간 남짓 걸리는 한적한 곳에 내 성전을 짓게 되리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당시에는 그런가 보다 했지만, 정말 여기가 서울서 한 시간 남짓 걸리는 거리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그걸 많이 느낍니다. 어떻게 신이 이상 중에 인간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지나 하고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이 눈에 보이기를 합니까, 손에 잡히기를 합니까? 신의 조화는 한마디로 신기한 것입니다.

Part 04.

진리는 살아 있다



22. 알곡은 이렇게 익어 간다 · 23. 오늘의 주의 종 · 24. 체계를 반석 위에 세우라 · 25. 신과 신의 대결에 대하여 · 26. 베드로와 천국 열쇠 · 27. 새로운 국면을 맞은 하나님의 역사 · 28. 모세 율법의 한계

Chapter 22.

알곡은 이렇게 익어 간다



올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나름대로 정성을 기울였다고 봅니다. 감람나무에 연결된 가지들이 먼저 한마음 한뜻이 될 때, 식구가 많은 적든,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요구를 들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는 오늘날까지 글자 그대로 투쟁의 연속입니다. 이곳에 오신 여러분이 신앙이 있든 없든, 범죄를 했든 안 했든, 또는 이 역사에서 곁돌든 깊이 젖어 들었든 간에, 누구를 막론하고 이 율타리에 들어오는 분들을 여호와께서는 유심히 보십니다. 잘하는 것도 보시고, 못하는 것도 보십니다.

여러분 중에는 범죄하면서 주의 종을 따라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범죄하지 않고 따라온 사람만은 못하겠지만, 마음의 상처를 받고도 주의 종을 놓치지 않고 따라오신 데 대해 가상하게 생각합

니다. 우리 역사는 고난의 연속입니다. 남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자신들도 입에 담기가 민망할 정도로 매력이 없는 역사를 우리는 생명길로 여기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직장에서도 뒤통수가 근질근질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역사에 몸을 담고, 어떤 직분을 맡아 일하는 것은 쑥스러운 일 중의 하나입니다. 오늘날 우리 역사뿐만 아니라, 주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목수의 아들 예수를 믿는다는 것부터가 당시에는 대단히 창피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쉬쉬했습니다. 니고데모와 같은 율법사들도 주님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았지만, 그분을 찾아가는 것이 자존심에 저촉되는 일이기 때문에, 남의 눈을 피해 밤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진리가 됐든, 비진리가 됐든, 그곳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또 그곳에 누가 가느냐, 이것을 사회에서는 중요시합니다. 참 길이냐, 아니냐를 따지기 전에, 밖에 드러난 현상을 문제 삼습니다. 질보다 양을 중요시하는 겁니다.

일찍이 우리 역사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코너에 몰린 시대가 없었습니다. 일 자체가 그렇고, 길 자체가 그렇고, 여건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 지도자부터가 힘들고, 따르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불어닥치는 비바람은 역시 비바람입니다. 그 비바람을 피할 길

이 없습니다.

올해에도 우리에게는 안과 밖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의 따뜻한 손길 속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온갖 애로를 헤쳐 나가고 있습니다. 제5별관의 공사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 5별관은 솔로몬 성전의 행랑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고, 행랑을 건축하는 데도 여러 해가 걸렸습니다.

학개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학1:8) 우리가 건축하는 것을 남이 볼 때에는,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냐?’ 하겠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일이니까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일반교회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소리를 한번 들어 보십시오. 거의가 잘살게 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어려움을 겪으시니,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도와드리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교인들은 거의 이런 내용의 기도를 합니다. 기도의 제목 자체가 다릅니다. 잘 먹고 잘살게 해 달라는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맡겨 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십시오.” 전부 이런 식의 기도를 합니다. 이것은 하는 일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요2:24)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에게 무슨 신령한 것이 있겠습니까? 신령한 것

은 하늘로부터 와야 합니다. 그런 신령한 것으로 하나님께 정성껏 제사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인군자로 칭송받는 사람의 행적을 보면, 죄 안 짓고 선하게 삽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을 때 보면 죄인들의 죽음하고 조금도 다를 게 없습니다. 똑같이 시체가 썩어 갑니다.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시51:5) 아담, 하와가 지은 범죄로부터, 조상들이 지은 죄가 우리 핏속에 누적돼 있는데, 그것이 수억만 가지입니다. 주께서 이상 중에 이와 관련하여 저에게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너의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허물을 내 피로 다 씻어 주었노라.” 그것이 제거되지 않으면 주의 것이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나갈 수 없습니다.

원죄와 유전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인군자로서의 행적을 남겨 봤자, 그 사람이 살아 있는 동안에 안 지은 죄의 비중은 새 발의 썩입니다. 그러므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죄를 안 짓고 성인군자의 생활을 했다고 해도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수억만 가지의 죄가 그의 핏속에 남아 있으니 말입니다.

아무리 악질이라도 60년 동안에 짓는 죄는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갖가지 죄악에 비하면 몇 백 분의 일도 안 됩니다. 그 몇 백 분의 일을 깨끗이 살았다는 자랑 가지고 떠들어 봤자, 그것이 인간 앞에서는 자랑이 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도 자랑할 게 못됩니다. 조상으로부터 죄를 짊어지고 태어났기 때문

입니다.

그럼 기독교의 과제는 뭐냐? 어떻게 하면 조상으로부터 전해 내려온 죄를 소멸 받아, 정결함을 입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게 되었는데, 그 피권세로 한 돌에 일곱 눈이 박히면 사단이 시커멓게 더럽혀 놓은 것을 깨끗이 씻는 작업을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미리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겁니다.(슥3:3, 9)

인간은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죄를 씻어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받을 때마다 제물이 필요합니다. 제물이 없이는 안 됩니다. 피 흘림이 있어야 합니다.(히9:22) 그 피 흘림은 어느 정도냐? 구약 시대에 어떤 사람이 강도짓을 하여 송아지를 제물로 드려 제사를 지냈다면, 이 사람은 그 송아지의 피만큼 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피는 짐승의 피만큼도 깨끗하지 못하다 그 소리입니다. 짐승의 피가 사람의 피보다도 더 더러우면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보다 정결해야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제사를 지내 봤자 자기가 범한 죄만 용서받는 겁니다. 그것도 짐승의 피만큼. 그러니까 일부만 깨끗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죽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이 조상으로부터 받은 죄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부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도 속수무책입니다. 살아 있을 때에는 제사로 교류를 하는데, 죽으면 끌려가는 걸 보고도 가만히 계셔야 합니다. 그게 신과 신

의 규례(률)입니다.

그러므로 그 끌려가는 걸 끌려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그 사람이 일평생 죄를 안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죄와 유전죄를 소멸해야 합니다. 죽어서 음부로 끌려가는 이유는 아담을 비롯하여 조상으로부터 전해진 죄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죄까지 소멸하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고 해도, 죽으면 원죄와 유전죄 때문에 음부로 끌려가는 겁니다.

선지자도 죽으면 음부로 끌려가는 판인데, 일반 사람이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아무리 착하게 살았다고 해도 원죄, 유전죄가 해결되지 못했으니 그냥 음부로 끌려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선지자들과 순교자들 이외에는 단 한 사람도 하늘의 지성소에 간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은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른 보혜사가 임하면 영원토록 그와 함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요14:16) 오늘날 여러분이 주의 종을 통해서 안찰을 받습니다. 이때 제일 먼저 깨지는 게 뭐냐? 원죄입니다. 하늘에서 그것부터 깎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전죄입니다. 이거 도말해야 합니다. 이것을 처치하지 않으면 세마포를 입혀줄 수 없습니다. 본인이 예수를 믿으면서 제 아무리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아도 그에게 세마포를 입혀 줄 수 없습니다. 왜? 원죄와 유전죄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한 증거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세마포를 입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죽음입니다.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죄와 유전죄를 탕감 받지 못합니다. 그게 신의 처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교자를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열심히 믿는 자일수록 죽음으로 유도하는 이유가 그겁니다.(행 7:59 참조)

베드로도 주님이 사랑하시니까 죽음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요 21:18 참조)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원죄와 유전죄가 탕감되지 않습니다. 원죄와 유전죄를 사함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순교입니다. 기꺼이 목 베임을 받는 겁니다. 목 베임이라는 게 보통 고통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교를 당하지 않고도, 즉 자기가 하나님의 제물이 되지 않고도 세마포를 입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나? 바로 다른 보혜사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게 그겁니다. “다른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게 되면 영원토록 함께하리라.”(요 14:16) 이것은 영육을 말하는 겁니다. 즉 살아 있으나 죽으나 항상 같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 보혜사 성령의 특징입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처음 안찰을 받을 때와 나중에 받을 때의 아픔이 다른 것을 느끼실 겁니다. 왜 그러냐? 처음 받는 사람은 원죄와 유전죄가 주의 종을 통해서 나가는 성령의 은혜와 부딪치게 됩니다. 이게 비중이 제일 큼니다. 그래서 원죄와 유전죄를 사함 받은 사람이 다음에 범죄하고 와서 안찰을 받으면 고통을 덜 느끼게 됩니다. 그 죄는 원죄나 유전죄보다 비중이 작기 때문입니다. 그래

서 처음 안찰을 받는 사람은 몹시 아프고 속이 울렁거리고 다리가 휘청거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무엇을 원하시기 때문에 주의 종을 통해 이런 번거로운 역사를 하시느냐? 이런 물음 자체가 우스꽝스럽게 들릴 겁니다. 왜? 우리가 배운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으시고 아쉬운 게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자로만 군림합니다.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절대자입니다.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에는 절대자의 위치에 계시지만, 마귀를 대하실 때에는 하나님이나 주님에게도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이 문제의 해결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삿5:23)

인간은 하나님을 대할 때에도 말할 수 없이 약하고, 마귀를 대할 때에도 형편없이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마귀가 대결할 경우에 하나님과 마귀에게 인간은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을 도와주느냐, 마귀의 편을 도와주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마귀의 싸움에서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존재가 싸울 때에 그 옆에서 어느 쪽 편을 드느냐에 따라서 이쪽도 저쪽도 유리하게 할 수 있는 게 인간이다 이겁니다.

이러한 여건에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다스려 나갑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 역사를 왜 일으키셨는가? 일반교회의 신앙 운

동처럼 예수를 믿어 마음에 위안을 받고,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아 하늘나라에 가자는 게 아닙니다. 여기 서 있는 이 사람이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역사에 이래라저래라 하고 간섭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해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학1:8) 우주를 지으신 분이 성전 하나 지었다고 해서 무슨 영광을 얻는다고 기뻐하시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뻐하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를 한번 봅시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 없애 버렸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학1:9-11) ‘내 집은 아무렇게나 황폐하게 방치하고, 자기 살 궁리만 하면 나 여호와와는 너희에게 이득이 있더라도 그것을 깨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좀 안된 말씀이지만, 여호와와는 보복하는 하나님이십니다.(렘51:56) 제가 여러분을 대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앞선 역사의 교역자들에 대해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로부터 되는 게 없다는 소리가 많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 특히 진리 안에 있던 사람들이 나가서 일을 하면 때로는 한때 잘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대단히 비참해집니다. 거의

가 다 그렇습니다. 푸른 나무를 톱으로 베어 놓으면 한동안 그 나무가 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잘랐다고 금방 메말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서서히 말라 들어갑니다.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 역사를 따르는 사람들은 대개 불우하고 가난합니다. 여유가 있고 목에 힘을 주는 사람들은 오지 않습니다. 와도 오래 견디지 못합니다. 이래저래 곧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가난한 사람들만 모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가장 어려운 일을 해야 합니다. 왜 어려운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도 취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유리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고생시키더라도 당신의 역사가 크게 발전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과 성도들의 중간에서 조종을 잘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너무 위하여 성도를 혹사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인간편만 들어서 하나님이 섭섭하게 생각하시도록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서 균형을 잘 맞춰야 합니다. 어느 한쪽 편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몹시 신경을 쓰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형편과 여건이 이런 건축을 할 만한 분위기냐 하면, 그렇지 못합니다. 아무 부담도 안 주고 오라고 해도 안 오는데, 자꾸 짐을 지어 주면 나왔다가도 몸을 사려 주저앉고 맙니다. 만날 모이기만 하면 뭘 어떻게 해라 하여 부담만 안게 되니, 숨통이

막힐 지경입니다. 그러므로 여간해서는 따라오지 못합니다.

우리 역사는 그야말로 좁은 길입니다. 그렇게 따라오기 힘든 이 알곡성전에서 알곡이 만들어져 갑니다. 계속 체계가 서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알곡이 되느냐? 체계가 서면 됩니다. 그 나머지는 주의 종이 주의 것을 가지고 씻어 세웁니다. 본인이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체계적으로 이 역사를 깨닫고 믿으면 됩니다. 그 나머지는 성령이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인구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하늘에서 하실 일입니다. 요한 계시록에, 진노의 포도주 틀에 포도송이를 밟으니 그 피가 말굴레에 닿았다고 했습니다.(계14:20) 포도송이는 예수를 모르는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믿노라는 자들입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영적인 것을 다 비춰 주시니 아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23년 동안 설교한 것이 전부 옛날 3년 동안에 걸쳐 가르침을 받은 것입니다. 계속 사흘돌이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대학 강단에서 학생을 가르치려면 대학을 마치고 대학원을 거쳐 박사 코스를 밟아서 아는 것이 많아야 합니다. 머릿속에 든 게 없는 사람은 강단에서 봤자 할 말이 없습니다. 주의 종처럼 23년 동안 만날 신경만 쓰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안과 밖으로 괴롭히는 자들 때문에 마음 한번 편할 새가 없어 도, 아무 준비 없이 단에 서기만 하면 입이 절로 열립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사전 지식

이 쌓여 있고, 현재 성령이 교류되니까, 말이 살아 나오는 것입니다. 임기응변도 하루 이틀입니다. 누구도 20여 년을 줄곧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설교해 보십시오. 조금 전까지 다른 일을 하다가 막상 단에 서서 설교하려면 말이 막혀 버립니다. 그러니 어떻게 듣는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부터 감동이 없으니, 상대방은 냉랭할 수밖에 없습니다. 몇 마디 말을 하고 나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신학 박사라는 사람들도 빈손으로 단에 서면 설교의 앞뒤가 맞지 않아 찢절매게 됩니다. 그래서 갖가지 신학 서적을 갖다 놓고 준비를 하고 나와서 설교를 합니다. 내가 거짓말하나 가 보십시오.

주의 종은 설교를 마치고 생수통에 축복해야지, 안찰해야지, 그 밖에 갖가지 일들을 다 처리해 나가습니다. 안팎으로 복잡한 겁니다. 그러나 그 북새통에서도 정리되어 있는 게 뭐냐? 바로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Chapter 23.

오늘의 주의 종



하나님을 그냥 무조건 믿을 때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믿을 때는 그 믿음의 자세가 전혀 달라집니다. 깨닫지 못하고 무조건 믿는 믿음하고, 깨달아서 믿는 믿음은 남이 볼 때는 똑같이 믿는 것 같아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즉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감람나무 역사를 전하여 한 사람이 듣든, 열 사람이 듣든, 그 사람이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을 이겨 내야 합니다. 이것을 하늘에서 잘 아시기 때문에, 이 시대에 그 역사 안에서 호호를 맞추는 양떼들을 감찰하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지시를 주의 종에게 하시면 저는 여러분에게 전해 드립니다. 그때 같은 얘기를 여러분도 듣지만,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50%, 어떤 분은 70%, 또 어떤 분은 100% 받아들입니다. 그 받아들인 만큼의 믿음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호흡이 맞지 않으면 신앙이 형성되지 못합니다. 일반 종교는 예수를 잘 믿으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역사는 다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우리가 얼마만큼 이루어 드리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마음에 드는 것은 준행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들지 않아도 준행하려면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깨달아야 합니다. 시험 공부를 할 때, 내가 이 시험을 잘 봐야 앞날이 열린다고 깨달은 사람은 공부를 열심히 하지만, 이거 해 봤자 무슨 소용이 있나 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공부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나 목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의욕이 생기지 않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이 땅굴을 파서 탈옥을 한다고 가정합니다. 그에게 감옥을 빠져나가야 한다는 목표가 없으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쳐서 땅굴을 파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곳에서 탈출해야겠다.”는 목표가 확고히 서 있으면 땅굴을 파는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믿는 신앙 운동은 일반교회에서의 그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내가 누차 지적한 대로, 일반교회에서는 지상에 계셨을 당시의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냐? 하늘에 계신 오늘의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의 주님이 저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시대의 일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맡겨 봤자 하지도 못합니다. 왜 그러냐? 그들은 지상에 계실 때의 주님이나 사도들의 가르침에 의해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요한 계시록의 내용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긴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무작정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세우신 계획에 따라서 일으키십니다. 이때에는 그 계획을 성공시키기 위한 방법을 먼저 강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긴자다, 감람나무다 하는 독특한 종을 통하여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특공대를 필요로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차원에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뜻이 계실 때 노아면 노아, 아브라함이면 아브라함, 무슨 나무면 나무, 이런 인물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을 이루실 때 언제나 종을 세우는 것입니다.

삼손이 블레셋 군대와 싸울 때, 왜 하나님은 삼손의 머리에 힘을 주셨는가? 그것이 당시에 요긴한 전술이었습니다. 이때 하늘에서 삼손을 부리는 것입니다. 모세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는 데 필요한 종으로서 택했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뭘 하시고자 감람나무를 원하시는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주님에게는 열두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는 분야와 바울이 해야 할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바울을 내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마찰이 생겼습니다. 먼저 움직인 사도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일을 하면 마찰이 일어나지 않는데, 먼저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중에 등장한 바울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니, 마찰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같은 주의 종이지만 주장이 다른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 한쪽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그렇게 만듭니다.

앞선 역사에서 가장 큰 논란은 감람나무가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앞선 주의 종이 무슨 조건을 내세워서 성경을 부인한 것입니다. 이것은 결정적인 범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 제거된 것입니다. 앞선 역사의 주인공이 사업을 하고, 말로 부도를 내고 - 이걸 아무것도 아닙니다. 핵심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감람나무를 둘로 작정하셨는데, 그걸 하나로 우기면 하나님의 각본과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걸 사람이 임의로 변경시키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치신 것입니다. **(계 22:18)** 앞선 역사가 시작된 지 3년도 안 되어서 그 주인공은 하나님의 눈 밖에 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이니까, 때가 될 때까지 보호하신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길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인간이 변개코자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외면하시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몇 사람이 하는 일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은 그 몇 사람이 하는 일을

도와주시고 수억 명이 하는 일을 돕지 않습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니까, 사람들은 모이는 수가 많은 쪽의 영향력을 의식하게 되지, 적은 수가 모이는 쪽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깨닫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모이는 수가 많은 쪽은 번성하고, 모이는 수가 적은 쪽은 코너에 몰리기가 일쑤니까, 이곳에는 아무나 오지 않습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 이름이 알려진 사람, 돈 있는 사람들이 오게 되면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인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러다 보니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리라고 한 말씀이 자동적으로 응해지는 것입니다.(마11:5)

옛날 지위가 있고 평평거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냥 모가지입니다. 왜? 이단으로 지탄받기 때문에. 그래서 무서워서 안 갑니다. 하늘에서는 이걸 아시기 때문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리라 하고 예언한 것입니다.(사61:1) 밀져야 본전인 사람들은 별로 부담을 안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역사는 자동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출발부터가 불리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 역사를 보십시오.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미 망한 앞선 역사의 뒤를 이어서 나가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희한한 일이 나타나도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시체가 변한다, 안찰이 어떻다, 이런 것은 지금은 안 통합니다. 그건 우리끼리나 하는 얘기지, 제3자들에게는 먹혀들지 않습니다. 도깨비장난이라고 단정

해 버리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거 옛날에도 있었던 일이야, 이러면 그만입니다. 그런 여파가 온다는 것을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기에 대비하여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감람나무 역사가 인정을 받았으면 계속해서 일을 순조롭게 진행시킬 수 있는데,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역사를 일으키면 또 모르는데, 그럴 수 없습니다. 왜? 성경에 두 감람나무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대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정을 못 받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 노선을 따라가면서 역사하실 때에는 방법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따르는 사람들이 그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일학교 때부터 이 시대의 섭리를 철저히 심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게 심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을 저에게 지시하셔도, 따르는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정하신 뜻을 준행하시지 못한다 이겁니다.

우리는 1년 앞도 내다보지 못합니다. 1년은커녕, 내일 일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수천 년, 수만 년을 내다보십니다. 또 그 기간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관념으로는 길지만, 하늘에서는 길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늘나라에서는 천 년이 하루와 같기 때문입니다. **(벧후3:8)**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상대하여 역사하시면서, 저들이 범

죄하면 저주하여 징계의 채찍을 가하였습니다. 천사들이 계속 저들을 살피서 보고합니다.

“지금 지상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의 슬하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 전에 하나님께서 저들이 범죄하여 내리셨던 저주를 좀 거두어 주셔야겠습니다.”

“그래? 그때 꼴 보기 싫던 놈은 어떻게 됐느냐?”

“다 죽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세월이 흘렀느냐?”

“지상의 시간으로 70년이 지났습니다.” (슌1:12)

“알았다.” 해서 그 저주가 풀립니다. 풀려서 파격적인 대우가 내려갑니다.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슌1:17) 이제 하나님의 기분이 풀리신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상 중에 하나님 앞에 가 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실 때 무슨 말씀을 드려도 받아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기분 좋을 때 말씀을 드려 허락을 받아 내야 한다는 뜻에서, “여호와께서 가까이 계실 때에 말씀도 드리고, 만날 만한 그런 분위기에서 만나야 복이 있다.” (사55:6)고 백성들에게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오늘날 제가 23년 동안 이 역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에서는 하나님의 근황을 간혹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을 대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을 저는 평생 살아가면서 자주 상기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른 시대에 다른 종들하고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는 나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주님이 바울에게 하신 말씀 등등은 내 시대의 일이 아닙니다. 그건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필요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느냐, 이게 나와 여러분에게 긴요한 얘기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종이 없으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옛날 종들 사이에 오고 간 얘기를 귀담아 들으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은 오늘날의 종을 만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오고 간 얘기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현재의 하나님의 종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과 옛날 종들 사이에 오고 간 얘기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2천 년 전, 옛날 얘기입니다. 성경에 어디 근래의 하나님과 종들 사이에 나눈 얘기가 나와 있습니까? 전부 2천 년 전 것입니다. 500년 전 것도 없습니다. 인도나 중국의 종들하고 나눈 대화도 없습니다. 그것도 순전히 이스라엘 민족하고 오고 간 대화의 내용입니다.

오늘날 이긴자를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영적인 승리자란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승리’를 의미합니다. 과거의 이스라엘은 이미 끝났고, 새로운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교류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걸 워낙 엄청난 얘기니까, 이단 소리를 듣기에 꼭 알맞습니다.

이긴자가 나타나게 되면 요한 계시록의 내용이 밝혀집니다. 구약 성경의 주인공은 주님이지만(요5:39) 요한 계시록의 주인공은 이긴자입니다.(계3:21) 이긴자가 나타나기를 원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과 주님입니다. 이긴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요한 계시록은 풀리지 않습니다. 왜? 이긴자가 그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서나 주인공이 있을 때 그 부서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대통령이나 임금이 없으면 무정부 상태가 되어 질서가 잡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 계시록은 그 내용 중에서 한 가지만 이루려고 해도 그 주인공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긴자는 요한 계시록을 지상에서 이루어 가는 주인공입니다. 그걸 이루려고 하시는 분은 주님입니다.

지금 일반교회에서 이 땅에 오셨던 주님의 역할에 대하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영광의 주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늘에 계신 주님과 이 땅에 계실 때의 주님의 차이점을 누차 설명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주님을 믿고 있는 것이고, 일반교회는 옛날의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귀가 따갑도록 설명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일반교회에서는 이 땅에 계셨던 주님은 잘 압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하늘나라에 계시는 지금의 주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앞선 역사를 어둠이 삼켜 버렸습니다. 빛과 어둠의 싸움에서 빛이 진 것입니다. 전쟁은 지면 손을 들게 돼 있습니다. 그

냥 ‘너는 너, 나는 나’,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제가 뭘 압니까? 앞선 역사에서 그 주인공을 따라 교역자 생활을 하면서, 몇 년 있으면 주님 오실 줄 알았고, 달무리만 지더라도 무슨 징조가 일어난 게 아닌가 하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이 빛과 어둠의 소상한 내막을 설명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편안하실 리가 없습니다. 듣는 저 자신도 충격이 컸지만, 내막을 설명하시는 분은 더더욱 민망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너만 알라. 때가 되기 전에는 입을 봉하라.” 이런 엄명이 떨어졌던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어느 정도 체계가 섰으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가 23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앞선 역사가 이렇게 될 때 내가 이렇게 되니, 네가 이렇게 해 줘야겠다.” 하고 부탁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로서는 그 부탁을 들어드려야 하는데,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걸 해내면 주님이 보좌를 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계 3:21) 이게 핵심입니다. 이단도 아니고, 삼단도 아닙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그에게 “너 이렇게 해라.” 하셨는데, 그게 결코 거저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걸 하면 의(義)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딤후4:8)

예수님은 안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죽어 달라.” 이겁니다. 그러면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으로 나를 대행하게 된다.”는 것입니

다.(시110:1, 4, 히5:8-10)

망한 역사를 다시 일으켜 세운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걸 제가 미련스럽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주님이 그걸 원하시니 어떡합니까? 그 두 분께서는 기다리고 계시지만, 일은 지상에서 제가 하는 겁니다. 감람나무의 역사는 그 주인공이 하기에 달린 거지, 하나님이나 주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혹자들은 이걸 모르니까, 자기는 하나님과 주님을 믿으면 된다고 착각들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종의 말이 바로 법입니다. “넌 이렇게 해. 여기까진 범죄이고, 이걸 범죄가 아니야.” 하면 그렇게 정해집니다.(요16:8 참조) 이긴자는 율법에 구속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좌우합니다.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역사를 체계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그 깊이를 알 수 없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은 주의 종의 그늘에서 신앙을 키워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모든 문제들은 하나에서 열까지 이긴자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하실 일을 저에게 맡기셨기 때문입니다.(계2:26-27, 3:21) 그렇지만 여러분의 신앙은 천층만층입니다. 이렇게 깨닫는 분, 저렇게 아는 분, 뭐 가지각색입니다. 주의 종을 얼마나 깊이 있게 아느냐가 문제입니다. 이긴자 감람나무를 체계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원리적으로 알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Chapter 24.

체계를 반석 위에 세우라



기독교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주님의 근황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주의 근황을 알 때 비로소 우리가 주 앞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2천 년 전에 지상에서 움직이셨던 예수님의 행적에 관해 2천 년이 지난 우리 시대에 더듬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살아 움직이시는 현재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점에서 우리와 이 시대의 그리스도와와의 관계를 논하며 믿음을 가꿔 나가는 곳은 세상에서 이곳밖에 없습니다. 어느 교회에 나가도 2천 년 전의 예수를 소개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주님이 어떠한 상황에 계시는가를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오늘날 그리스도께서 보내 주시는 메시지를 전달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천 년 전의 예수를 논하고,

거기에 준해서 주님을 찾기 때문에 번지수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 계시록은 수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알고자 하여 머리를 싸매고 연구해도 허탕을 치곤 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나 선교사나 목사님들에게 물어봐도 답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 믿으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꼬치꼬치 캐내서 어찌자는 거냐, 주님도 도마에게 일일이 만져 보고 믿는 것보다도 그냥 믿는 게 좋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냥 믿으면 돼 — 이런 결론에 이르고 마는 것입니다.

요한 계시록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적에 하신 말씀이라면 이해하기가 쉬운데, 이 요한 계시록만큼은 글자 그대로 계시입니다.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요한 계시록을 알고자 무던히 애쓰면서도 2천 년 동안 근황조차 몰랐던 것입니다.

그럼 요한 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다른가? 주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말씀의 존재로 여호와와 곁에 함께 계셨습니다.(요1:1) 말씀의 존재인 그리스도께서 우주의 창조에 직접 동참하셨습니다.(창1:26) 이 점에 대하여는 일반교회의 목사님들도 저와 같은 주장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말에 의하면, 말씀의 존재로 계셨던 그 위대한 분이 육신을 입고 지상에 오셨을 때, 운이 좋아서 자기가 직접 섬길 수 있는 제자가 됐다, 그래서 피부로 느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다, 하고 말했던 것입니다.(요일1:1)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전 세계 기독교 신자들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말을 진리로 인정합니다.

주님은 친히 지으신 인간들에게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찢어 죽인 사람이 바리새인이든 로마 사람이든 간에, 그 사람을 주님이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일반교회 목사님들도 똑같이 기도를 합니다. “친히 지으신 인간들에게 고난을 당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에 일반교회에 다니시던 분들도 계시지만, 이 시간에도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도 요한의 말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엄청난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요 17:5) 다시 말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영광 중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영광의 주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천사보다도 못한 존재로 오셨습니다.(히2:9) 그런 존재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우리 죄인보다도 더 못한, 가난하고 비참한 생활을 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셨다, 이렇게들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발자취가 사실 그랬으니까.

그러나 그러한 존재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곁에서 말씀의 존재로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하

고,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어서 천사보다도 못한 존재로 목수의 일을 하다가 십자가에 처형당해 돌아가신 예수님하고, 같은 존재인데도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은 전혀 다릅니다. 인간을 친히 지으신 존재로 계셨던 분이 지으심을 받은 인간들한테 죽임을 당하는 존재가 되셨다면, 이건 하늘과 땅의 격차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죄인을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오셨을 때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은 천사보다도 못합니다. 왜 못한가? 그래야 십자가에 달려서 대속의 피를 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천사와 같은 영체로 오시면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런 천사보다 못할 때의 하나님의 아들이 기적을 일으키고 복음을 전하여 사람을 가르칠 때에,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기록한 내용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내가 지금 요한 계시록은 어떤 책인가를 밝히기 위해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되면, 내 권한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열두 보좌에 앉을 수 있도록 하겠다.”(마19:28) 하고 언약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육을 가지고 계실 때에는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되기를 희망하신 분입니다.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그 보좌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런 희망 사항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되면, 너희들도 영광의 보좌에 앉을 수 있는 권세를 주겠다. 그러나 내가 영광의 보좌에 앉으려면 내가 너희들을 떠나

야 한다. 다시 말해서, 내가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창피를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은 후에야 내가 그 영광을 취할 수 있다.”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했던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주님이 이 말씀도 하시고, 저 말씀도 하신 것을 제자들이 썼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관한 행적이 이 제자들이 쓴 복음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게 오늘날 기독교의 핵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사실상 천사보다도 못한 존재로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러한 위치에 계신 분이 하고 싶은 말씀을 다 하신 것도 아닙니다. 듣는 자들의 심령이 어리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씀을 다 하지 못하셨습니다. 이게 4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게 되면 모든 게 달라진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내가 지상에 있을 때에는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로 가서 모든 조건이 조성되면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직접 갈 수 있는 길이 마련된다.” (요14:2)

이렇게 되면 이 땅에 계셨던 주님하고, 하실 일을 마치고 하늘 나라에 가신 주님은 전혀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시기 전의 주님하고, 이 땅에 오셨을 때의 주님하고, 부활 승천하신 주님의 권세가 다 다릅니다. 권세가 다르면, 말씀이 달라집니다.

나는 방금 주님의 신분에 대해 구분하여 말씀드렸습니다. 태초에는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면서 주님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니다. 주님은 감춰 놓은 존재였습니다. 그건 전략상 하나의 비밀이었습

니다.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가 사실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노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인데, 네 나이가 50도 못된 놈이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요 8:57) 하고 반박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늘나라에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알 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 오셨을 때의 주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늘나라에 계실 때의 주님과 비교해도 초라하고, 현재 십자가를 지시고 승천하신 주님과 비교해도 형편없이 초라한 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저를 통해 현재의 주님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지만, 전 세계 기독교는 2천 년 동안 이 땅에 계실 때의 주님에 대한 것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오늘날 제가 현재의 주님을 서서히 드러내기 시작하니까, 나를 이단이라고 공박합니다. 왜? 듣지 못한 얘기니까. 그러나 자기들이 모르는 주님을 증거한다고 해서 이단으로 몬다면 곤란합니다.

나는 주님을 만나 가르침을 받은 것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의 근처도 못 가 본 사람들이 대통령은 이렇다 하고 떠드는데, 어떤 사람은 대통령을 직접 만나 이 얘기 저 얘기하고 나와서, 대통령은 이런 분이라고 말하니까, “웃기지 마라. 대통령은 그런 분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요한 계시록은 예수께서 하늘나라에 올라가, 하나님의 백성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게 된 공로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을 떼기에 합당하고 또 이루시기에 합당한 존

제가 되신 다음에 말씀하신 것입니다.(계5:9-10 참조)

이 땅에 계실 때의 주님의 말씀과 영광의 주님으로 하나님을 대항하게 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은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다 위대하지만, 이 땅에 계실 때에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권한을 대행하는 때의 말씀보다 한 차원 낮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광의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해라 하고 지시한 말씀과 과거 육으로 계셨을 때 하신 말씀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를 아셔야 합니다. 저는 지금 이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흰 돌’을 받은 존재가 나타나니, 비로소 영광의 주님으로서 하시고자 하는 내용들을 물 쏟듯 쏟아 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 돌에는 일곱 눈이 박혀 있는데, 그 눈을 주께서 다 만들어 놓으신 후에, 그 돌을 맡아 주관하는 존재를 통해, 제할 것은 제하고 정할 것은 정하는 역사를 하기 위해, 사도 요한에게 이 긴자가 나타나라고 최초로 공포하게 된 것입니다.

전 세계가 2천 년 동안 주님에 대해 배우고 아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내용이지만, 영광의 주님이 되어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을 떼신 후에 하신 주님의 말씀은 모르고 있습니다.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은 아무나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지상에서도 군대끼리 작전 명령을 시달할 때, 일급비밀이면 거기에 극비라고 찍습니다. ‘아무개 귀하’라고 수신인이 쓰여 있는데, 다른 사람이 뜯으면 군법에 걸립니다.

인을 봉하면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에게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피로 사람을 사서 여호와께 드리는 작업을 이루신 고로,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을 떼기에 합당한 존재가 되어 하나님께서 그 책을 주셨다 이겁니다.(계5:5-10 참조) 합당치 않으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와 곁에 있던 네 생물들, 24장로들과 하늘나라의 천군 천사들이 그 책을 받으신 그리스도 앞에 모두 부복합니다. “하늘의 대주재시여, 피로 사서 사람들을 여호와께 바치는 대주재시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계5:12) 하고 경배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와 권한이 주님께로 이양되는 순간입니다.

주님이 죄를 대속해 주는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통하여 죄 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한 증거 시대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면 주님이 은혜를 내려 주셔서 속죄함을 받았습시다. 그런데 이 작업을 더 강력하게 본격적으로 하자 해서 주님을 대행할 수 있는 권세자를 세운 것입니다. 그를 이긴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긴자가 나오면 뭘 맡기겠다고 주님이 언약하신 것입니다.(계2:7-3:22) 그러므로 이긴자가 나타나면 그 언약이 명실공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걸 오늘날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긴자에게 약속대로 권한을 다 맡겨 주시면, 그때에는 하늘에서 기다리시게 되는 겁니다. 뭘 기다리느냐? 마귀를 발등상시킬 조건을 마련하기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마22:44) 주님이 직

접 하시려면 주님이 움직이셔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기다리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긴자가 나타나면 그에게 권세를 맡겨서 일이 잘되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쟁은 권세를 맡은 자가 하는 고로, 주님은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왜 이긴자가 나오기를 원하셨는가를 아셔야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의 권한을 대행하시면, 지금까지 하나님을 향해 참소하던 마귀가 주님을 대적하게 되므로, 하나님은 편안해집니다. 그런데 이긴자가 나타나면 모든 마귀의 세력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지상을 다스리던 그리스도에게서 떠나, 이긴자를 향해 돌진하게 되므로, 주님은 편안해집니다. 장군들이 있어서 나라를 지켜 줘야 대통령이 편안하고 왕이 편안한 거지, 장군들이 전쟁에 지면 왕은 불안합니다. 막아 줄 장벽이 많을수록 그 나라의 임금은 든든하게 여기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면 이긴자라는 존재 하나가 혼자 움직일 때보다, 체계가 선 부하들의 장벽이 계속 만들어지면, 이긴자를 세우신 주님은 더욱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군병은 주님을 대신해서 싸우는 장병들을 말하는 겁니다. 국군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처럼, 십자가의 군병은 주님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는 자들입니다.

주님은 주를 위해서 싸우는 군병들을 필요로 합니다. 이런 군대

의 수를 채우는 것이 하늘의 당면한 목표입니다. 오늘날 주의 종에게 전무후무한 영의 권세를 주시는 것도 그걸 위해서입니다. 장벽이 많이 만들어질수록, 즉 체계가 선 성도가 주의 종의 곁에서 자꾸 늘어갈수록, 주님의 방어벽은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비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들을 길러 내기 위해서, 여호와께서는 주의 종에게 20여 년 전에 강조하신 것이 그겁니다. “체계를 굳게 심어라.” 즉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깊은 신앙의 뿌리를 내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Chapter 25.

신과 신의 대결에 대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창3:1-3)

나는 근래에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뱀이 가장 간교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제기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간교한 짐승을 지으셨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마치고 “그 지으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창1:31)고 했습니다. 간교한 짐승이 피조물

중에 있다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을 성스럽게 지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짐승들을 간교하게 지으실 리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뱀은 하나님이 처음에 지으셨을 때의 모습일까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뱀은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고귀성을 상실한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 중에서 뱀이 간교하게 변했기 때문에 아담, 하와에게 접근해 온 것입니다. 이걸 성경에 쓰여 있지 않지만, 우리가 지금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마당에, 마귀의 꾀계를 알아보기 위해 성경의 밑받침에 의해 추리해 보는 것입니다. 간교함은 하나님의 속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하나님에게는 간교함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뱀이 가장 간교한 상태에서 아담, 하와에게 접근했다면, 고귀하게 지음을 받은 뱀에게 간교함을 제공한 상대가 있었을 거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이 동산의 모든 과일들 중에서 선악과는 만지도 말고, 먹지도 말아라. 그걸 먹는 날에는 죽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근거하여 생각해 보건대, 하나님은 아담, 하와를 지으셨을 때 이미 경계할 대상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는 조심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위험하니까 사전에 주의해라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걱정거리가 왜 생겼느냐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염려하게 하는 대상이 뭐냐? 이걸 캐내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근심하고 염려해야 하는 이런 문제가 왜 일어나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에 대해 제가 조심스럽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 기독교에서 하는 말과 같다면, 제가 조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훌륭한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한다면, 제가 그 우산 아래서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하지 않는 말을 제가 할 때에는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언급하는 겁니다. 그러나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해야 하는 일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에도 엄청난 일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엄청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주를 지으신 분의 얘기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흠모하는 분에게 가려진 베일을 벗기고, 그 불리한 여건에 대하여 감히 제가 언급해야 합니다. 그러니 결코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까 봐 걱정이 되어 주의를 주고, 신경을 쓰십니다. 왜 시작부터 걱정하시느냐 이겁니다. 아담, 하와가 범죄한 다음이라면 모를까, 이건 범죄하기 전입니다. 이 근본부터 알아야, 오늘날 인간이 여호와를 도와드려야 한다는 말이 이해가 가게 됩니다. 그걸 모르면, 여호와를 위해 어찌고저 찌고하는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원을 밝히

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서는 인간이 지으심을 받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뭔가 도전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엄청나게 번성한 다음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걱정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견 시작부터입니다.

하나님의 걱정은 바로 현실로 나타납니다. “동산 가운데 있는 실과 만큼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따먹는 날에는 죽는다.” 이거, 기가 막힌 얘기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것과는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가로막는 엄청난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뭔가 도전해 오는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눈앞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냐? 고귀하게 지은 동물들 중에서 바로 뱀이 간교해진 것입니다. 지으심을 받을 때에는 간교하지 않았는데, 간교하게 되었다면, 뱀에게 다른 요소가 침투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 여기까진 여러분이 답을 받았습시다. 이번에는 가장 중요한 핵심을 말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당부하신 과 일나무는 에덴동산의 중심에 있었습니다.(창3:3)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에덴동산을 창조하실 때에 변두리가 중요할까요, 가운데가 중요할까요? 당연히 가운데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가운데를 경계해야 할까요?

에덴동산의 중앙에는 당연히 아담, 하와에게 가장 맛있고 유익

한 과일나무를 심으시는 것이 상식입니다. 우리 알곡성전의 꽃나무만 해도 아름다운 것은 성전 주위에 심고자 합니다. 아름다운 것을 화장실 뒤에 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동산의 가장 중심부에 하나님이 가장 나쁜 나무를 심으실까요? 가장 좋은 나무를 심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부에 있는 나무의 과일을 먹지 말라고 아담, 하와에게 당부하셨습니다. 먹지 말아야 할 과일나무를 왜 하필 중심부에 심어 놓았겠느냐 이겁니다. 전 세계 기독교계에서 이것을 문제 삼은 사람이 있느냐? 상상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에덴동산의 중앙에 있는 가장 보기 좋은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주의를 주셨다면, 그 나무에는 하나님의 진액이 들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가 먹는 날에는 죽는다고 주의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과일을 먹고살라고 지으신 건데, 먹으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변두리가 아니고 중앙에 있는 과일나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곳에 하나님의 어떤 적대 세력이 침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곡성전에 나무를 심을 때에 윗나무가 있으면 그 독이 몸에 오를까 봐 베든가, 탄 데로 옮기든가 하는데, 하물며 그 아름다운 동산의 중심부에 위험천만한 나무를 하나님께서 심으실 리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는 중앙에 따먹지 말라는 과일나무가 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들짐승 중에서 뱀이

가장 간교하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무와 이 짐승에게 어둠의 세력이 침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담, 하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의를 주신 겁니다.

동산의 가운데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과일나무는 먹지 못하는 나무로 변해 버리고, 또 들짐승 중에도 가장 사랑 받던 뱀이 간교한 짐승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을 도전할 때에는 하나님이 가장 요긴하게 쓰시는 대상에게 침투하는 겁니다.

이처럼 마귀가 하나님의 핵심을 찌르는 힘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도전자가 강한 힘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인간을 짓기 전부터 강력한 도전자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간을 창조하면서부터 하나님은 도전을 받고 계셨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을 도전자에게 어떻게 빼앗겼는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빼앗긴 인간을 다시 빼앗기 위해 지금도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당신의 슬하에서도 인간을 빼앗겼는데, 어둠 속에 있는 인간을 빼앗아 오려면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Chapter 26.

베드로와 천국 열쇠



2천 년 동안 유지해 오던 신앙의 고정관념을 단시일에 시정하는 것이 바로 요한 계시록입니다. 오늘날 계시록은 그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계1:3) 하고 부언한 것입니다. 그만큼 계시록에는 어렵고 또 새로운 내용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날 그리스도의 안타까운 사정을 얘기하는 것도 이 장소밖에 없고, 그것도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이 시대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그것이 ‘흰 돌’의 내용이며, 그 ‘흰 돌’은 거두는 역사의 주인공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계2:17) 사람의 얘기라면 그때그때 따라서 변경할 수 있고 또 다른 말로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이 요한 계시록을 근거로 하는 ‘흰 돌’의 말씀이나 다른 보혜사 성령의 얘기는 다시는 들을 수 없는 것이고, 재론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여러분에게 조심스럽게 알려 드리고 있는 것은, 이 땅에 계실 때의 주님의 사정과 하늘나라에 가신 다음의 주님의 사정의 차이입니다. 나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적절하게 설명해 드리고자 무던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이 땅에 계실 적에 주님이 남긴 발자취에 근원을 두고 이 시간까지, 우리나라만 해도 1,000여 만 명의 신자들이 예배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기독교의 신앙관을 더욱 보충하는 차원에서, 하늘의 새로운 진리를 전하게 되면, 그동안에 믿고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는 생소한 얘기가 될 수밖에 없고, 나아가서는 이단이라고 배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어느 정도 알고 따르는 여러분에게도 제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면서 문답식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순순히 받아들일 얘기들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 종으로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자꾸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행적은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세상이 다 인정합니다. 주님에 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예 교회를 다니지도 않습니다. 일단 교회에 나왔다 하면, 성서의 말씀에 따라 위안도 받고 신앙도 생깁니다. 것처럼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성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전 세계 기독교가 오늘날까지 신학 박사

를 배출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목회자를 양산하여 수억의 인구가 나름대로 충성하면서 예수를 믿어 왔던 것입니다. 또 이 시간에도 범세계적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예수를 믿으면서 예배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는데 다른 것이 그보다 더 중요하다고 주의 종이 설명할 때, 그것이 당사자들에게 과연 얼마만큼 받아들여지겠느냐, 또 여기 오신 여러분이 여러 해를 따랐다고 해도 과연 어느 정도 납득이 갈 것인가 하고 생각할 때, 주의 종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요한 계시록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되풀이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역사하여 여러 가지 행적을 남기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문제는 4복음서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이상을 생각하는 기독교 신자는 2천 년 동안 아무도 없었습니다. 만일 그 이상을 생각한다면 이단이 되므로, 감히 입도 뵙글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건에서 우리 주님이 새로운 메시지를 전하시는 내용이 바로 요한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주님이 자상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연고를 우리가 깊이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베드로에게 자신 있게 맡겨 주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천국 열쇠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서, 이 천국 열쇠와 관련하여 얘기를 드

립니다.

여러분, 열쇠는 잠가 놓은 것을 여는 데 쓰입니다. 여러분이 자기 집에 자물쇠를 잠가 놓고 밖에 나가서 열쇠를 잃어버리면 자기 집이라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열쇠가 있어야 들어갑니다. 그러나 자기 집이 아니라도 그 집 열쇠를 가진 사람은 열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열쇠라는 것은 이렇게 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류 최대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구원받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 기독교 신자들이 들어가고자 하는 곳은 천국입니다. 즉 하늘나라입니다. “예수를 왜 믿느냐?”, “천국 가기 위해서 믿습니까.” 이게 하나의 공통된 대답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겠다고 이겁니다.(마16:19) 세상에서 가장 권위 있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베드로에게 최고의 선물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땅을 얼마 주신다거나 큰 금덩어리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인류 최고의 소망인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를 주시겠다고는 겁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에게 주시는 선물 중에선 제일 큰 것입니다. 천국 열쇠를 준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네 마음대로 하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신임을 얻어야 열쇠를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천국 열쇠를 맡기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어진다.”(마16:19)는 것이었습니다. 네가 열쇠를 갖고 네 자신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네가 누굴 풀어 주면 그 풀어 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네가 묶어 버리면 그가 아무리 천국에 들어가도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엄청난 권한을 맡겨 주셨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맡겨 주신다는 뜻은,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맡겨 줄 터인즉,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게 되면, 너는 나 대신 지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라.” 하신 겁니다. 주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요10:9) 문이라는 건 열쇠나 마찬가지로입니다. 문을 열면 들어가고, 닫으면 못 들어갑니다. “나는 양의 문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하신 주께서 그 권한을 베드로에게 맡겨 주신 것입니다.

맡겨 주시는 이유는,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적에 주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셨는데, 이제 주님은 떠나셔야 하니 사람들하고 상종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대신해서 주님의 역할을 하는 직분을 베드로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이 지상에 없을 때 당신의 역할을 대신할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제자들이나 그 밖의 추종자들은 주님이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의 지배에서 해방시켜 평화롭게 살 수 있게 하는 애국혁명가로 오래 남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이런 당부를 하신 것입니다. “내가 가게 되면 나 대신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해다오.” 하고 말입니다.

주님은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받으신 후에 베드로가 지상에서 당신을 대신하여 치리하면, 바로 다시 오실

줄 알았습니다.(마16:28) 이것은 이 땅에 계실 적의 주님의 심정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면 하늘나라로 갑니다. 그러면 주님을 대신하여 주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을 인도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역할을 대신할 지도자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주님은 이것을 내다보신 겁니다.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맡겨, 주님이 없는 동안에 베드로가 죄에서 구속시킬 사람들을 구속시키면, 주님은 하늘나라에 가셨다가 곧 지상에 다시 오실 것으로 여겨, 사랑하는 제자들이나 따르던 사람들에게, “조금만 참아라.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인자가 다시 오는 것을 볼 거다.”(마24:34) 하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나이가 30된 사람, 40, 50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너희가 죽기 전에 영광의 권세자로서 다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라 이겁니다. 그때까지 지상에서 치리할 자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내 대신 네가 치리해라.” 이겁니다. 그 천국 열쇠는 바로 주님의 임무를 대신하는 역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막상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실태를 명확히 알아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실 적에 알고 계셨던 하나님의 섭리하고는 내용이 다른 겁니다. 주님은 믿는 사람들이 지상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만 알고 기다릴 것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하늘의 새로운 섭리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습니다.

만일 이 땅에 계실 적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부족함이 없다면, 그 이상의 하늘의 섭리가 필요 없습니다. 지상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끝날 텐데, 무엇 때문에 새로운 말씀을 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오늘날 제가 가르치는 신앙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역사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으로부터 직접 설명을 들었습니다. “때가 되면 밝혀라.” 해서 조금씩 터뜨리고 있습니다. 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으면, 얘기해 봤자 내 말이 먹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체계가 선 사람이라야 내 말을 믿습니다.

주님이 지상에 계실 때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복음을 전하라.”고 당부하신 말씀이 오늘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즉 오늘날 극히 일부 공산국가를 제외하면 복음이 범세계적으로 전파되었습니다. 그동안 주께서 하늘나라에서 지상을 내려다보시며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은 미국에 신자가 몇 천만 명이 모여도 함께하시고, 일본에 신자가 십만 명이 모여도 함께하셨습니다. 기독교가 어디에 생기든, 장장 2천 년 동안을 주님이 직접 처리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제가 아는 겁니다. 이처럼 주님은 각 민족을 다 대해 보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오늘날에 이르러 주님이 아신 게 아닙니다. 2천 년 전에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에 올라가자마자 아신 겁니다. 그래

서 빨리 새로운 내용을 가르쳐 주기 위해 사도 요한에게 지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도 하나님의 깊은 사정과 주님의 안타까운 처지를 아는 기독교 신자들이 없었습니다. 왜? 가르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가르치지 못했는가? 아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에는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경륜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문맥상 감춰진 대목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알면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목을 마지막 때까지 봉합해 두었다가(단12:9) 때가 되면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받은 종이 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차원에서 배우고 믿으면서 2천 년 동안 지내온 것입니다. 전 세계에 기독교가 퍼져 나가면서 얼마나 많은 훌륭한 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믿으면서 지나갔습니까? 그리고 이 시간에도 얼마나 많은 인격자들이 믿고 있습니까? 그분들이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에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2천 년 전부터 그렇게도 전하고 싶어 했던 내용들을 전할 수 있는 종이 대한민국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주님이 각 민족을 치리하시다가 2천 년 만에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습니다. 지상에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태까지 각 민족을 치리하시던 주님이지만, 2천 년 전부터 사도 요한을 통해 바라던 소망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권한을 맡겨서 당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끝내 버리려고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계시를 본 요한조차도 감추어진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이 곧 오신다고 생각했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계1:7)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조롱하던 사람, 침을 뱉던 사람, 별 사람이 다 있었습니다. 주님이 요한에게 지시하실 때 그들 중에 아직 살아 있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죽기 전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요한이 생각한 겁니다.

기독교는 주님이 이 땅에서 가르치신 복음과 제자들이 가르친 메시지에 의해 퍼져 나갔던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도 그런 처지에서 신자를 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2천 년 동안 지속된 겁니다.

그러다가 이긴자가 나타나서 감람나무 역사가 시작되자, 주님은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듯이, 이긴자에게 권세를 맡겨 주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몰라도, 바로 그 일 자체를 가로막는 악령은 압니다. 하늘의 권세가 누구에게 맡겨졌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마귀와의 싸움이 이긴자와 마귀와의 싸움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에게 말씀 많이 하셨지만, 그 말씀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이긴자가 나타나 새로운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긴자 감람나무가 대한민국에

나타나 엄청난 수가 모였고, 그중에 9만의 성도가 폭포수 같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9만 명은 주의 피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상대로 해서 건져 내라 이겁니다. 그걸 건져 내기 위해 땅에서는 제가 움직이지만, 하늘에서는 주님과 천사들이 움직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하늘에서는 이 시간에도 이 역사를 이끌어 주고 계십니다.

Chapter 27.

새로운 국면을 맞은 하나님의 역사



사도 당시부터 오늘날까지 말세를 부르짖지 않은 시대가 없었습니다. 앞선 역사에 동참했던 학생들이 곧 주님이 오신다 해서 학업을 중단하고, 수많은 선남선녀가 시집, 장가가지 않고 청춘을 희생하면서 소망을 하늘에 두었습니다. 친척이 손가락질하고, 친구가 등을 돌려도, 받은 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것을 믿고 고생을 달게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 이루어졌습니다. 안 된 정도가 아니라, 환멸의 비애를 맛보아야 했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는 너무나도 몰랐습니다. 저 자신도 몰랐고, 앞선 역사에 참여했다가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도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님이 다시 오시는 여건과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뤄지는 과정을 알지 못하고, 은혜 받고 좋아서 금방 천지개벽이 이루어지는 줄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영계에서는 빛과 어둠의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전쟁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겨야 합니다. 지면 적에게 지배를 받게 됩니다. 기독교를 대표하는 감람나무 역사가 쓰러지면, 기독교 자체가 어둠에 쌓이게 됩니다. 패배자에게는 멸망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영적으로 산송장이나 마찬가지로입니다. 아무리 교세가 확장되고 부흥되어도 어둠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의 역사는 겉으로 보아서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을 근원적으로 해명하지 않으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섭리가 바뀌어 새로운 메시지가 내려올 경우에 하늘에서는 이를 이루기 위해 그동안에 귀하게 여기던 것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고 밀어내야 합니다. 전자가 버티고 있으면 후자가 들어갈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전자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서 이것이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메시아의 강림은 하나님의 역사에서 일대 혁명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짊어지고 있어서 주님의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모세의 율법에 의해 차단되어 이단시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주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역사에서 내가 전하는 새로운 영적인 말씀을 이단 시하는 것은 기성교회의 보수적인 신학입니다. 앞선 감람나무 역사에서 은혜를 끼쳐 주고, 일반적인 주님을 증거할 때에는 목사님들이 앞을 다투어 안찰도 받고 주님을 찬양하다가, 감람나무 얘기를 꺼내자 대뜸 이단으로 낙인을 찍고, 등을 돌려 버렸습니다. 만일 그때 앞선 역사의 주인공이 은혜만 끼쳐 주고 주님만 증거했다면, 훌륭한 부흥강사로 추앙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종이 기성교회에서 함께 일할 수 없었습니다.

길게 얘기하면 뭐 합니까? 같은 감람나무끼리도 내가 성경 말씀대로 둘이라고 주장했다고 해서, 앞선 역사의 주인공이 나를 도깨비로 모는 판국입니다. 내가 다시 전도사로 발령 받아 15중앙 제단에서 두 감람나무 소리를 하지 않고 앞선 역사의 주인공처럼 호조건이니 감람나무는 하나다 하고 증거했던들, 나는 쫓겨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으로부터 맡은 사명을 완수하려고 했기 때문에 쫓겨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에게 따로 하라고 지시하신 것입니다. 혁명기를 맞은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단적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방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해서 무조건 미화시키는 것은 눈감고 아웅 하는 격이지, 하나님을 참으로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냉정하게 보아야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보다 크신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건 전 세계 기독교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태어나실 때부터 별을 보고 동방 박사들이 찾아왔습니다. 열두 살 때에 율법사들 앞에서 성경을 논하고, 놀라운 이적과 기사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런 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수제자 베드로까지도 주님을 인정했다, 부인했다 하면서 긴가민가하게 여겼고, 주님을 자기 생명보다 더 귀히 여겼던 막달라 마리아도, “내가 죽으면 갈릴리로 오라.”(마26:32)는 생전의 주님의 말씀을 못 믿어, 무덤으로 주님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갈릴리는 주님이 처음에 전도한 장소를 가리킵니다. 지금은 못 사람들이 주님을 메시아니, 구세주니 하지만, 당시에는 그분도 인정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주님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간증하신 겁니다. 마귀는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마8:29) 그러나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찢찢매지 않습니다. 지존하신 분이라고 해서 깎듯이 공대를 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 워낙 큰 인물이었기 때문에 천사가 왔습니다. 그럼 천사만 왔느냐? 아닙니다. 마귀도 왔습니다. 하나님이 모세가 살아 있을 동안에는 지배하셨지만, 죽은 다음에는 손을 쓰지 못하셨습니다. 그럼 모세의 지배자는 누구냐? 마귀입니다. 마귀가 모세를 일단 음부로 끌고 간 겁니다.(요10:8-9, 마27:51 참조) 마귀를 획

불면 금방 날아가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안다면 엄청난 내용이 담긴 하나님의 역사를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경위에 대해 복잡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 일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 죽는 겁니다. 즉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병 고치고, 물위를 걸어가고, 이거 백번해야 소용없습니다. 만에 하나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역사는 실패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일을 다 마치셨습니다.(요19:30)

그렇다고 만사가 끝난 거냐? 그게 아닙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면 다 될 줄 알았으나, 그게 아닙니다. 그럼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대가는 뭐냐?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히5:8-10) 그리하여 주님은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으로서 영광의 보좌에 앉아,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을 받으시고, 떼시기에 합당한 존재가 되셨습니다.(계5:5)

그렇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그때부터 주님이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으로서는 하실 일이 태산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앞으로 될 일을 지시하시고, “내가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고 말씀하신 겁니다.(계1:18) 십자가를 지시고 그 피권세로 갖게 되신 겁니다. 주님은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을 기록하여 일곱 교회에 전하여라.”(계1:11) — 이것은 기독교의 새로운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 메시지를 제대로 논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대제사장으로서는 전한 말씀을 이루지 못하시고, 2천 년 동안 기다리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님은 하늘에서 2천 년 동안 마귀가 발등상 되게 하기를 기다리신 겁니다.(마22:44, 히10:13) 그 주님의 뜻을 본격적으로 이루기 시작한 것이 앞선 감람나무 역사였습니다.

그 역사는 사람들의 눈에는 우습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과 주님께게는 너무나 귀중한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것처럼 쓰러졌습니다. 이렇게 되니 빛의 세력이 크게 불리해진 겁니다. 거의 항복에 가까운 것입니다. 이걸 재건하라는 겁니다. 다행히 나중 감람나무가 버티고 있었으니 망정이지, 하나님의 역사가 큰 위기를 맞은 것입니다.

기독교는 오순절 날 불과 같은 성령을 받아 세운 초대교회를 통해 사방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 기독교에서 감람나무 이긴자가 나타나면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계2:26)는 겁니다. 그런 존재가 이 땅에 나타났습니다.

감람나무는 한 국가의 주를 모신 자가 아니라, “온 세상의 주를 모신 자”(슥4:14)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됐든, 감람나무가 되면 기독교의 대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인물이 마귀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면 그것은 개인에게 국한되지 않고 기독교 자체가 치명상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영적인 역학 관계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우리 눈에는 기독교계가 멀쩡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온 세상의 구세주이십니다. 만에 하나 주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인류에게 구원이 없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14:6)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 두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을 것이다.”(사1:9) 하고 말했습니다.

구약 시대의 기라성 같은 대 선지자들이나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도 주님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마27:50-52, 시16:10 참조) 다시 말해서 주님은 구원의 매체입니다. 이것은 주의 피권세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 피권세를 맡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마무리 짓는 주인공이 감람나무 이긴자입니다.

그가 어디서 나타나든 상관없습니다. 미국에서 나타나든, 독일에서 나타나든, 이스라엘에서 나타나든, 그는 기독교의 대표자입니다. 그런 존재가 어찌다가 오늘날 이 시점에 와서 한국에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그가 손을 들고 어둠의 세력에게 항복하게 되면, 기독교 자체가 항복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럼 기독교는 누구의 것이 됩니까? 어둠의 소유가 되고 마는 겁니다.

이처럼 지배권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둠의 세력에게 넘어간 다음에 그 아래에서 선하면 뭐하고, 인격이 훌륭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는 인물이 되면 뭐합니까? 다 그 어둠에 속하고 맙니다. 영적으로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잘

났다 못났다 따져 봤자, 도토리 키 재기요, 모두 멸망의 자식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감람나무 때문입니다. 감람나무가 아니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긴자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이긴자가 나타나 영적인 권한이 그에게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를 잡아 버리면 기독교 자체에 불이 꺼집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세상에서 가장 귀히 여기시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초비상수단을 감행하셨습니다. “네가 십자가를 져야겠다. 그래야만 네 피권세로 말미암아 내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유리해진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저에게 당부하신 내용도 이와 비슷합니다. “내 처지가 이러하니, 네가 이렇게 해 줘야 내가 유리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괴로워도 주의 뜻을 준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런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하여 지난 23년 동안 여러분은 잘 믿든, 못 믿든, 주의 종을 따라오고 있습니다. 깊이는 몰라도 이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로 생각되고, 생명길 같으니까,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불평도 하고, 짜증도 내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고, — 이런 신앙 자세로 따르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의 종은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일일이 신경을 써야 합니다.

쓰러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절뚝거리는 사람은 부축해 주면서, 10명이면 10명, 100명이면 100명을 모두 이끌고 가야 합니다.

씻어 세워야 합니다. 말씀이나 전하고, 식구나 늘리는 것으로 족하다면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러나 여긴 그런 장소가 못됩니다. 23년 전에 들어온 분, 10년 전에 들어온 분, 5년 전에 들어온 분, 근래에 들어온 분을 낙오됨이 없이 끝까지 주 앞에 갖다 세워 놓아야 합니다. 그게 거두는 감람나무의 역사입니다.

하늘에서 원하시는 뜻이 따로 있는데, 이것을 헤아리지 못하고 걸도는 수억의 민노라 하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정말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안타까워한들, 이 말이 그들에게 먹혀들 리가 만무합니다. 이 역사를 시작한 지 23년이 지나 겨우 조금씩 어려운 내용을 말씀드려도 듣는 여러분의 머리가 멍한데, 감람나무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어떻게 납득이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홍수로 인류를 멸하실 때, 노아의 식구 이외에 구원시키기로 예정한 사람이 있었다라면, 그들을 불러서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의 식구 이외에는 홍수로 싹쓸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실 때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 한 가족만 건져 내시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멸망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다루시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오늘날 주의 종이 몇 안 되는 사람들을 모아 놓고, 여기만 뭐가 있다고 외쳐야 하니, 듣는 사람의 귀에 그게 제대로 박히겠습니까? 여러분도 눈에 보이는 것에만 큰 비중을 두고, 영의 세계는 뒷

전에 밀리기가 일쑤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새로운 복음을 전하면서도 마음이 괴롭습니다.

어디에만 구원이 있다 — 이걸 결코 바람직한 일이 못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모하고 주의 이름을 열심히 부르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도 심히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어떡합니까? 성서적으로 그게 사실인 것을. 그러니 나도 어쩔 수 없이 증거하는 겁니다. 이게 제가 할 일입니다. 상대방이 듣기 싫어해도 증거해야 합니다.

지금은 감람나무 시대입니다. 그 이전과는 다릅니다. 당시에는 주님만 열심히 믿으면 구원받았습니다. 주님이 직접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게 안 됩니다. 이긴자 감람나무가 나타나면, 주께서 그에게 권한을 맡겨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계2:27, 3:21 참조) “너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게 올 자가 없다.” —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비극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깨달아 주의 뜻에 합당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도우려고 해야 합니다.(삿5:23)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돕는 것인가를 깊이 헤아려, 주님의 부르심에 보답이 되도록 움직여야 합니다.

Chapter 28.

모세 율법의 한계



오늘 이 시간에는 수천 년을 지켜 온 모세 율법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것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너무나도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상세한 얘기를 하지 못했지만, 이제 서서히 조금씩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모세 시대의 배경을 잠시 돌아봐야겠습니다.

모세는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시키는 선지자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서 부르심을 입은 종입니다. 그 언약을 우리는 첫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이 첫 언약을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했습니다.^(히10:1) 기독교가 오늘날까지 안고 있는 과제는 바로 이 모세 율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도 완전히 깨지 못하셨고, 사도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그만큼 모세의 영향력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

래서 모세의 율법을 밀어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는 두 거두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이고, 둘째는 모세입니다. 이 두 인물을 빼면 이스라엘은 자랑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택한 선민이라는 긍지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모세 율법 아래 있는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이 땅에 오셔서 모세 율법을 걸림돌로 여기고 계셨지만, 이에 대해 논란을 하게 되면 예기치 않은 핍박의 화살이 날아올 것이 뻔하므로 모세 율법을 조심스럽게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다만 온전케 하러 왔노라.”(마5:17)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님의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는 말씀에는 “폐하기를 바란다.”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 문제가 너무나도 논란이 심하니까 “폐하러 온 게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온전케 하러 왔다.”는 말씀 가운데 주님의 진정한 의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즉 주님이 모세 율법을 온전케 하러 오셨다면, 그 모세 율법은 온전치 못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만일 모세의 율법이 온전하다면 주님께서 모세 율법을 온전케 하러 왔다는 말씀을 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율법의 불완전함을 사실상 드러낸 것입니다. 즉 주님은 모세 율법의 허점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모세 율법의 아성을 나사렛 목수의 아들의 신분

을 가지고,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허물기에는 사실상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열두 제자들까지도 주님을 여러 해 동안 따라다녔지만, 모세 율법을 숭상했던 것입니다.

그 후 바울이 모세 율법을 변경시키라는 명령을 주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등장합니다. 그리하여 모세 율법을 밀어내기 위해서는 우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파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살아 있으면 모세 율법도 살아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특명을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할례를 폐지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어진 언약입니다. 그 언약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천 년 동안 유지되어 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할례 때문에 선민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표시였기 때문입니다. 그 할례를 하나님과 주님께서 바울에게 폐지시키라 하신 겁니다.

이것을 폐지시키는 일은 결코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과 주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따르는 사람들이 납득해야 하는 겁니다. 그걸 납득하지 못하면 일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할례제도를 간신히 폐지시켰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도 모세 율법 자체를 폐지시키지는 못했습니다.

만일 모세 율법을 폐지시켰던들, 오늘날 기독교는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듯이, 모세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전 기독교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에게만 관계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경은 우리만 보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나라만 해도 훌륭한 분들이 많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제 말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원리를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의 표시가 할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도 태어난 지 여드레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 할례를 사도 바울이 폐지시켜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할례를 폐지시키는 이유는 그 이상의 다른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무 대책도 없이 그냥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대책을 세웁니다. 그래서 전에 있던 것을 없애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맡은 사명이 일반 종들처럼 전도나 하고 은혜나 끼쳐 주는 일 같으면 그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폐지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도 하지 못한 일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해야 합니다.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지시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걸 단행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면 할례는 하나님의 시킨 일인데, 왜 폐지시키려고 하는가? 그토록 중요시하면서 몇 천 년간 실시해 온 일을 없애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이 점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단벌 신사라면 그 양복이 다소 떨어져도 버리지

못합니다. 꿩매서라도 입어야지,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옷이 낡았다거나, 찢어졌으면 그 옷을 버리고 새 옷으로 바꿔 입습니다. 이것은 여유가 있을 때, 즉 그 옷이 아니더라도 다른 옷으로 대체하는 방법이 있을 때의 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메시아가 나타난 후에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됩니다. 그것은 메시아가 나타나기 전까지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메시아가 나타났으면 받아들여야지, 아브라함과 모세를 내세워 보수주의를 고집하고 메시아를 배척하게 되면, 그 메시아는 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나타나게 됨으로써 아브라함과 모세의 율법은 사실상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한 겁니다. “선지자들의 율법은 세례 요한 때까지니라.”(마11:13) 주님이 오시면 필요 없게 되는 고로, 주님의 길 예비자인 세례 요한 때까지로 끝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건 주님밖에는 하실 수 없는 말씀입니다. 감히 아브라함의 언약과 모세의 율법을 논할 자가 주님 말고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존재가 아브라함이나 모세보다도 작다면 아브라함과 모세를 밀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을 제일주의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예수님의 존재가 아브라함이나 모세보다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보다 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 제자들, 즉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이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마17:1-2) 그러니까 주님의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자기가 섬기는 나사렛의 목수인 예수님이 모세나 엘리야보다 큰 인물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깨어나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예수님만 거기 계셨습니다. 그리하여 “주님, 이제 저희가 주님이 메시아인 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하고 말하니까 주님이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마17:9)고 당부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 아브라함과 모세를 밀어내고 주님이 그 자리에 들어앉아야 합니다. 글자 그대로 종교혁명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모세라는 두 인물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예수님의 존재가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것을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더욱 걱정하신 겁니다. 왜 그러냐?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천국 열쇠를 맡긴 베드로까지도 아브라함의 언약과 모세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존재를 심기가 역부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파기하지 않으면 주님의 존재가 심어지지 않습니다. 이방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가르침을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첫째, 할례를 받아야 하고 둘째, 모세 율법을 지켜야 하는데 이방인들에게는 해당치도 않는 얘깁

니다.

오늘날도 기독교에서 모세 율법을 존중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이 기뻐하시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율법은 목이 곤은 인간을 끌어가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모세 율법은 자유를 주는 법이 아닙니다. 구속을 시키는 법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롬8:2) ‘죄와 사망의 법’은 모세 율법을 가리킵니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해방시킨다는 말의 뜻을 아셔야 합니다. 모세 율법 아래 있는데 왜 해방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이것은 대단히 고차원적인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최초로 한 말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속박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율법으로 모든 걸 온전케 할 수 있다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필요가 없습니다. 모세 율법을 가지고는 온전케 할 수 없습니다.(히 8:19) 그런데 기독교는 오늘날까지도 모세 율법을 온전한 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루기 위해 모세 율법이 필요했다면, 그 모세 율법을 밀어내고 새로운 율법을 심으려고 할 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언약부터 폐기시켜야 합니다. 즉 근본 뿌리부터 뽑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앙에 혁명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혁명이란 뒤집어엮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혁

명가가 한 왕조를 뒤집어엎으려면, 그 왕조의 뿌리를 없애야 합니다. 그래야 싹이 돋아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폐지시키는 작업은 주님이 하셔야 하는데, 원체 뿌리가 깊어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유대교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두 종교가 서로 예루살렘이 자기네 성지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에 가담한 종교가 또 하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살려 뒤서 뿌리를 남긴 원주민들, 곧 가나안 민족, 오늘의 팔레스타인인들이 믿는 이슬람교입니다. 이들은 다른 신, 곧 알라신을 공경하고 있습니다. 이 이슬람교도들이 사원을 짓고, 예루살렘은 우리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세 파가 버티고 있어서 지금도 전 세계 순례자들이 가면, 이걸 자기 땅이라고 서로가 우기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동상이 로마에 있습니다. 바티칸에 갔다 온 사람의 얘기를 들어 보면, 사람들이 앞을 다투어 베드로의 발에다 키스를 해서 반질반질하답니다. 그만큼 베드로를 존경한다는 겁니다. 천주교에서는 베드로가 제1대 교황이라고 합니다. 역대 교황들을 다 썩지 않게 미라로 만들어서 안치한 관들이 바티칸 성당 밑에 짝 놓여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어디 그만큼 존경받습니까? 그걸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겁니다. 이분들이 다 존중한 아브라함의 언약을 감히 누가 건드릴니까? 그것을 지금 주의 종이 여러분에게 조금씩 변죽이나마 울려서 들려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께서는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원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실 한 민족을 만드시고자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스라엘의 사명은 끝나고, 유대교는 새 언약과 복음을 기반으로 한 기독교로 발전하였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죄를 소멸시킬 수 있는 생명수 샘물을 이루셨다. 그 생수를 유업으로 받아 역사할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두 감람나무를 예정해 놓으셨다. 예수님은 승천하신 뒤 하나님께 책을 받아 보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아셨으며, 이를 제자들에게 알리고자 사도 요한을 불러 계시를 주셨다. 그 계시 가운데, 이기는 자가 나오면 생명수 샘물을 유업으로 맡기고 두 감람나무의 사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